

12. 2월 + 0
2월 + 0
2월 + 0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2011 04



서울문화재단

Contents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2011. 04. vol 50



06

예술가로 살아남기

문화예술 산업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창작 영역에서 확장된 다양한 직업군이 부상하고 있다. 예술과 생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 예술가들이여, 망하거나 죽지 않고 살 수 있겠니.

02 Must 10 4월의 문화 소식

4월의 문화+서울 | 예술가로 살아남기

06 Intro

창작에서 확장된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가다

08 Report

왜 즐겁다면 밥 먹고 살기 힘든가요?

10 TA(Teaching Artist)

12 TD(Teaching Designer)

14 프로덕션 스테이지 매니저

16 에듀케이터

18 레지던시 매니저

20 음악치료사

22 유물 복원 사진 전문가



26

24 Image Seoul 행복

사람과 사람

- 26 Depth Interview
미처가는 탐미주의자, 소설가 김탁환
- 34 Young Artist 2011
첫 번째 앨범 〈Gayo〉 발매한 사비나앤드로즈
- 40 Life in Seoul 조선시대 성벽의 아름다움
- 42 My Story of Seoul
진성 강북내기 돌아왔네, 요리사 박찬일



46

지금 서울은

- 44 Art Gallery
〈문화+서울〉이 주목한 4월의 작품
- 46 Issue in Seoul 1
문화로 봄나들이
- 52 Issue in Seoul 2
제1회 '신촌 연극제'를 보며
- 56 Issue in Seoul 3
대중음악과 노스텔지어



54

서울 너머로

- 58 해외뉴스 1 Rome
- 60 해외뉴스 2 Paris, London
- 62 해외뉴스 3 New York, Berlin, Stuttgart
- 64 해외뉴스 4 Tokyo, Montreal, Beijing

문화@서울

- 66 Reader's Album
독자사진전-나만 아는 서울의 숨은 공간
- 68 Seoul Art Space
상생을 추구하는 커뮤니티,
홍은예술창작센터 개관
- 72 SFAC Critique
2nd 대학로 우수작품 인큐베이팅 프로젝트,
〈장석조네 사람들〉 〈특급호텔〉 〈상사몽〉
- 76 Cultural Calendar
- 78 SFAC News
- 84 Board



68

Cover story

박능생

2009~2011 서울문화재단 금천예술공장 입주작가로 '독산동 프로젝트 2'를 작업 중이며 현재 개인전을 진행하고 있다.



번지점프 시리즈 Bungee Jump Series

acrylic, Korean ink on canvas,
91x72cm, 2010

현대인에게 산은 여가와 운동, 관광과 순례 같은, 어쩌면 산의 모습과는 무관한 생활 풍속의 대상이 된 것 같다. 번지점프를 통해 도시의 제일 높은 곳에서 자연의 소소함까지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을 표현했다.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

발행일 2011년 3월 25일 등록일 2005년 6월 8일 발행인 안호상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편집기획 서울문화재단 홍보교류팀 | 홍보교류팀장 이현아 | 정경미, 변현정, 김수연, 신동석, 주환석 | 씨네21(주) 발행 (재)서울문화재단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Tel 02-3290-7000 Fax 02-6008-7347 홈페이지 www.sfac.or.kr 편집·디자인·사진 씨네21(주) 교열 최귀열

(재)서울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문화+서울」은 서울에 숨어 있는 문화 욕구와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예술가들의 창조적 힘과 시민들의 일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문화+서울」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서울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문화+서울」에 실린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Must 10

01



01

지금도 언제나 '엄마를 부탁해'

연극 <엄마를 부탁해> | 4월 29일~5월 1일 |

서울연립극장 창동 | 02-994-1469

국민소설에서 국민연극으로? 이번에 공연되는 연극 <엄마를 부탁해>는 지난 공연과 다르게 '외판방' 장면을 과감히 삭제한다. 작가로 성장한 장녀와 엄마의 간극을 더욱 강조하면서 가족이야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 이야기 전개는 빨라지고 슬픔은 더 깊어졌다. 불꽃 같은 여배우 손숙이 '엄마' 역을, 한국 연극계의 초석 박웅이 '아버지' 역을, 뛰어난 연기자 김여진이 '큰딸' 역을 맡았다.

02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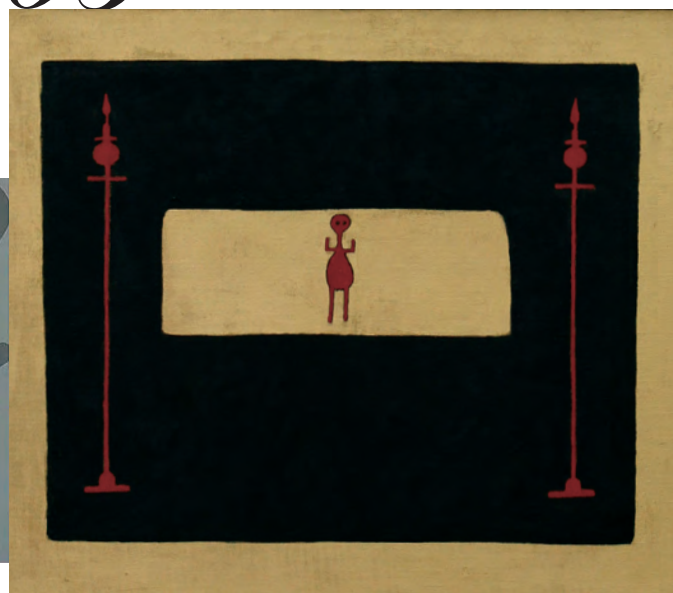
20세기 영웅들의 초상

인물사진의 거장, 카쉬(KARSH)展 | 3월 26일~5월 22일 |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 1544-1681

<카쉬展>이 2년 만에 한국을 다시 찾았다. 2009년 전시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앤디 워홀, 넬슨 만델라, 샤갈, 엘리자베스 테일러 등의 인물 사진이 더해져 더욱 풍부하고 다양한 구성을 선보인다. 게다가 디지털 프린팅이 아니라, 카쉬가 직접 만든 오리지널 빈티지 필름으로 전시하고 있어 더욱 의미가 깊다.



05



04



03

03

홍은예술창작센터 개관을 축하하며

〈앵프롱프튀(즉흥)〉, 〈몸과 숨, 쉬는 입체정원〉전 |
4월 14일, 4월 6일~4월 30일 | 홍은예술창작센터 |
02-304-0234

홍은예술창작센터가 4월 27일 개관기념으로 다양한 공연과 전시를 연다. 개관일 축하 공연으로 올리는 〈앵프롱프튀(즉흥)〉는 젊은 무용수들이 각자의 예술론을 즉흥적으로 전개해나가는 작품. 〈몸과 숨, 쉬는 입체정원〉전은 회화, 설치미술 분야에서 작업하는 젊은 작가 3~5인이 자연과 하나 되는 예술의 모습을 구현한다.

04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책

〈계몽의 변증법〉 | 아도르노 · 호르크하이머 지음 |
노명우 풀어씀 | 살림 펴냄

서양 문명의 핵심인 인간 이성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무시무시한 책이다. 합리적 이성의 원리가 유대인 학살 같은 20세기의 비극을 낳았다고 주장한다. 문명과 문화를 부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점에서, 이성의 왕국에 살고 있는 현대인이라면 한 번쯤은 읽어야 할 필요가 있다.

05

암호인 듯 해독 불가능한

〈베르나르 브네 - 페인팅 1961~2011〉 |
3월 9일~4월 14일 | 서울시립미술관 |
02-2124-8938

페인팅, 조각, 퍼포먼스, 사진, 영화, 음악, 무용 등 매체와 장르를 넘나들며 전방위적인 창작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프랑스 출신의 세계적인 작가 베르나르 브네의 전 작업 세계를 아우르는 회고전. 개념미술의 전형을 보여주는 1966년 이후의 작품, 2000년대 이후 변형 캔버스 작품 등을 일목요연하게 조망한다.

Must 10



06

06

설악, 한 작가의 내면풍경

〈김종학〉전 | 3월 28일~6월 26일 |

국립현대미술관 | 02-2188-6000

‘설악의 화가’ 김종학을 아는가. 강렬한 색채와 거친 붓질로 설악 풍경을 여과 없이 표현하는 작가다. 그에게 설악은 각별하다. 화려한 색감과 거침없는 표현으로, 절제된 모노크롬 추상 미학의 극단에서 한국현대미술의 또 다른 맥락을 제시했던 김종학 화백을 만나보자.

07



07

융합형 예술가

〈다중감각〉전 | 3월 2일 ~ 4월 15일 | 사비나미술관 | 02-736-4371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융합하여 기존 예술이 지닌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창작물을 생산하는 융합형 예술가. 시대의 화두인 ‘융합’을 위한 해법으로 융합형 예술가들의 창의적 발상법을 탐구해 보는 전시가 눈길을 끈다. 예술의 영역의 하이브리드 현상을 되짚어본다.



09



10

08

08

동성애 아니, 인간애

연극 〈거미여인의 키스〉 | 4월 17일까지 |

대학로 아트원 씨어터 1관 | 02-764-8760

남미문학의 걸작으로 꼽히는 마누엘 푸크 소설이 원작이다. 이지나의 연출로 태어난 연극 〈거미여인의 키스〉는 적절한 타협과 과감한 각색으로 색다른 매력을 빚어냈다. 동성애자와 혁명가의 만남이라는 소재를 살리고 원작을 조금 더 유머러스하게 압축한 것. 연극은 너무도 다른 삶을 살았던 두 남자가 서로의 구원이 되어가는 과정, 사랑을 통해 서로를 이해해가는 과정을 그린다. 뮤지컬 스타 정성화와 최재웅, 김승대와 박은태의 연기 변신 또한 관전 포인트다.

09

상상력 종결자

〈일곱 개의 고양이 눈〉 | 최제훈 지음 |

자음과모음 펴냄

아는 사람은 아는 〈퀴르발 남작의 성〉의 작가, 놀라운 소설의 탄생을 알리며 거물신인으로 화려하게 등장한 최제훈의 첫 장편소설이다. 중편 네 편이 하나의 장편으로 엮이는 흥미진진한 작품. 일단 손에 잡고 읽기 시작하면 어느 샌가 마지막 장에 다다를 것이다. 각 장에 삽입된 QR코드 확인하는 재미도 놓치지 말길.

10

널 위해서라면 천 번이라도

〈연을 쫓는 아이〉 | 할레드 호세이니 지음 |

왕은철 옮김 | 현대문학 펴냄

아프가니스탄의 질곡 어린 역사를 배경으로, 부유한 상인의 아들 아미르와 비극적 숙명을 지닌 그의 하인 하산의 이야기를 그린 성장소설. 아미르가 어린 시절의 과오를 바로잡으며 자기고백을 통해 치유와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 감동적으로 펼쳐진다.

예술가로 살아남기

에듀케이터

유물 복원 사진 전문가

음악치료사

레지던시 매니저



창작 영역에서 확장된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가다



예술가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 시대 예술가의 존재방식 혹은 자기증명은 이제 '가난'인 것만 같다. 예술가로 삶을 영위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뒤따른다. 열정이나 의지만으로 돌파하기 힘든 이 단단한 현실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예술가를 '선택'하지 못하는 현실, 그래서 누군가는 "예술가는 몸이 아니라 마음이 굼어서 죽는다"고 했다. 하지만 예술과 생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영리하게 몸을 누이며 창작의 토대를 마련하는 사람들도 있다. 둘러보면 창작 영역에서 확장된 직업군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미술분야를 중심으로 예술 교육의 현황을 짚어보고 미술, 문학, 음악, 공연 등 각 분야별로 부상하고 있는 다양한 예술 인접 직업군을 살펴본다. 예술가 겸 교육가, 예술가 겸 행정가, 예술 서비스 전문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도 들었다.



TD (Teaching Designer)

프로덕션 스테이지 매니저

TA (Teaching Artist)



미술대학 교육 현장 진단 - 왜 졸업하면 밥 먹고 살기 힘든가요?

예술 전공자에게 최소한의 선택권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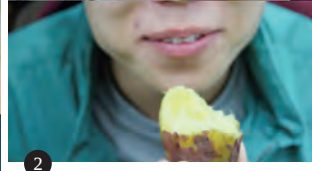
도대체 어디부터 잘못된 것일까?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예체능계열을 ‘선택’했을 때부터였던 건가? ‘예술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고된 길인 줄 알았더라면 그까짓 선택 과목 몇 개만 더 공부하면 그만이었을 텐데. 물론 생계에 대한 어려움만 친다면, ‘88만원 세대’라고 예들려 불리는 이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일이기에 인문계열이나 이과계열로 진학했어도 별반 다를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청년+예술가’에게는 불안정한 생활은 물론, ‘잉여’의 존재로 보는 사회적 시선과 선배 혹은 소수의 성공한 예술가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까지 덤으로 받는 위치에 놓여 있다.

필자가 자주 접하는 미술 분야의 경우, 직접 본 청년 작가 혹은 신진 작가들의 살풍경은 대략 이렇다. 미대 4년에 동 대학원에서 2년 과정까지 마치고 나면 이제 정말 빠도 박도 못한다. 자기 앞가림을 해야 할 때다. 문학계처럼 등단 시스템도 없는 마당에 직업란에 스스로 거리낌 없이 ‘작가’라고 쓰려면 작업을 하고 전시를 열어야 한다. 그러려면 돈이 든다.

대부분 아직 결혼 전이기에 ‘먹고사는’ 문제는 부모님에게 얹혀서 해결하고, 작업비나 여가비는 ‘알바’로 충당한다. 미대를 나온 이들이 할 수 있는 알바의 세계는 중견 작가의 어시스턴트나 미술학원 강사가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물론 카페, 식당, 상점 등에서 시간제로 일하는 ‘단순 알바’도 있다. 또는 주로 회화 작업을 하는 작가는 동화책이나 지면 광고 등을 위한 일러스트를 종종 업으로 삼는다. 설치 작업을 많이 하는 작가는 공연/방송 계열에서 무대미술이나 영화미술과 관련된 일을 맡기도 하는데, 순수미술 분야 못지않게 고되고 수입마저 적다고 한다.

‘작가의 길’을 걷기 위한 생계

이 중에서 가장 일반적이거나 ‘작가의 꿈’을 놓지 않으려는 의지가 가장 강한 집단에서 선호도가 높은 ‘직업 아닌 직업’인 중견 작가의 어시스턴트 일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알 필요가 있다. 일명 ‘어썸’이라고 불리는, 불의를 당해도 절대로 노조를 형성할 수 없는 이 일은 그 형태가 각양각색이다. 왜냐하면 ‘중견’이라고 해도 그 역시 어디까지나 작가인 이상, 수입이 불안정하기는 마찬가지다. 물론 열 명이 넘는 어시스턴트를 둘



2

김타조 작가의 〈본격 등록금본전뽑기〉, 작가가 대학등록금을 내려달라고 해도 내려주지 않는 등록금 문제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다 새로운 제안을 해본 작업.

1 Suggestion No.1 두루마리 휴지에 새싹 키워서 새싹 비빔밥 만들어 배고픔을 달래보기.

2 Suggestion No.5 전열기구로 고구마와 감자를 구워서 친구들과 사이좋게 나눠먹으며 우정 쌓기.

정도의 '스타 작가'라면 4대 보험까지 제공하고 월급제로 운용하기도 하지만, 그런 아주 극소수의 일이다. 그보다는 개인전이나 그룹전, 프로젝트 등 건당으로 적정 액수를 받으며 일하는 어시스턴트가 많다. 게다가 한 청년 작가가 여럿 중견 작가를 '모시는' 것은 '신의'에 어긋나는 게 미술계 정서라서 한 작가의 일만 돕게 된다. 즉 중견 작가의 스케줄에 따라서 일이 몰릴 때면 며칠 밤을 꼬박 새워야 하지만 없을 때면 손 놓고 놀아야 한다. 그렇다고 다른 단순 알바를 구해서 병행하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중견 작가가 필요하다면 언제든 하던 일을 멈추고 달려가야 하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작가들이 '어씨'를 하는 이유는 단순한 돈벌이이기보다는 중견 작가의 활동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꿈도 키우고, 현장을 익힐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어씨'마저도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학교 수업 중에 교수에게 간택을 받거나 소개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수요 면으로나 민주적인 채용 방법 면에서나 가장 만만하게 할 수 있는 일은 미술학원 강사다. 먼저 자신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월급제로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하고, 초중고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하교 이전에는 시간이 자유롭다는 것도 작가들에게는 유리한 점이다.

또한 '작가의 길'을 고집하면서 생계를 위해 미술계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일은 더 있다. 특별한 요건 없이 당장 할 수 있는 일로는 미술관이나 갤러리 등 문화예술 기관의 스태프가 되는 것이 대표적이다. 대개 '전시 지킴이'를 말하는데, 좀 따분해도 관람객이 작품을 손상하지 않는지 지키고 있거나 간단한 질문에 답해주면 되는 일이다. 규모 있는 기관이라면 대중을 상대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스태프나 전시 준비 과정에서 참여 작가를 돕는 등 보다 적극적인 일에 투입될 수도 있다. 또한 이러한 일을 외부에서 도맡는 외부 전문 업체도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는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및 진행하는 에듀케이터나 미술품 전문 운송업체, 전시 디스플레이 설치 업체에 취직을 하기도 한다.

그래도 작가로 살기 힘들다면?

그러나 역시 미대만 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위와 같은 일도 마땅치 않아 거의 '백수'나 다름없이 이들은 "이렇 거면 차라리 학교에서 전공 과목으로 '도배' 같은 거라도 만들지"라면서 통탄한다. 그래서 2000년 이후로 순수 예술 외에 취업과 바로 연결되는 큐레이터학과, 만화학과, 3D영상학과, 미술치료학과 등이 신설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서울대 미술이론과는 최근 예술경영과로 전공명을 바꾸기도 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미대는 물론 실기가 바탕인 음

악, 무용, 연극 등 기존의 순수예술 전공에서 취업과 관련된 응용 분야로 전공명을 바꾸거나 심지어 개설 과목을 바꾸는 것은 해당 학과의 정체성과 존립을 흔드는 문제이기에 그리 간단하지 않다.

그래서 미대생들은 가장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교직 이수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학원, 직업학교 등 대학 밖에서 따로 취업과 관련된 기술을 배우며 미래를 대비하기도 한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기간제 교사'로서 방과 후 미술 수업을 부분적, 임시적으로 맡을 뿐이고 심지어 저학년을 대상으로 수학이나 국어 등 미술과 전혀 상관없는 과목을 맡기도 한다. 또한 컴퓨터 학원에서 단기간 동안 기술을 습득한 이후 그래픽 관련 직종에서 활동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웹디자인, 편집디자인, 3D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익히고 나서 각각 홈페이지 제작, 출판사(잡지사), 광고기획사 등에 취직한다. 그러나 대학에서부터 디자인을 전공하고 온 동료들이 있는 가운데 비전공자로서 말단직에만 머무는 경우가 다반사다. 남자의 경우 인테리어디자인 분야로 빠지기도 하는데, 오히려 노역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작가로서의 소질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 아예 진로를 바꾸기도 하는데, 그래도 미술에 대한 애정이 남아 있으면 이론 관련으로 학업을 연장하여 큐레이터나 갤러리스트, 기자 등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필자가 일하는 미술전문지에 인턴기자제 모집 공모가 뜨면 대부분의 지원자가 미술 실기 전공자다. 만약 비교적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새로운 문화 공간을 직접 운영하기도 한다. 아니면 문화정책가, 예술행정가, 예술품 보존수복가 등으로도 전환한 예가 있다. 비록 예술가로 이름을 떨치지는 못했어도 여기까지는 행복한 결말이다.

예술가를 '선택'할 수 없는 현실

사실 대학에서 예술을 전공한 대부분의 사람들 모습은 이렇다. 서른 살 정도까지는 예술가의 꿈을 접지 않고, 이렇게 문화예술 언저리에 머물며 일용직을 마다 않다가도 결혼을 하거나 부모님의 원조가 더 이상 어려워지면 '예술 전공'이 무색하게 보험 모집인을 한다면, 요식업으로 빠지기도 한다. 이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그저 수동적으로 삶을 따르는 것이 돼버린다. 심지어 문화예술과 관련된 대안학교를 나온 작가의 경우는 더욱 막막하다. 대학교든, 전문대학교이든, 대안학교든 그것은 분명 본인이 실력을 전제하여 '선택'한 것임에 틀림없다. 학교에서는 졸업생이 그 이후의 삶도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해주어야 할 것이다.

TA (Teaching Artist)

차별화된 맞춤형 예술전문교육가

작품, 작가 그리고 독자 혹은 관객이라는 세 꼭짓점을 순환하면서 의미가 생성되는 예술은 실상은 형용하기 어려울 만큼 복잡다단하고 섬세한 구조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문화예술 산업 역시 콘텐츠를 생산하는 작가뿐 아니라 각자의 몫이 엄연히 다른 다양한 서비스 종사자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예술 산업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예술교육가가 교육과 예술의 개념이나 대상의 저변을 확대하면서 두드러진 활약을 펼치는 전문 직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다종다양한 예술강사 가운데 TA(Teaching Artist)는 서울 문화재단의 미적체험교육(Arts-Echo Project)을 위한 핵심인력 그룹으로, 재단에서 직접 선발하고 양성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받는다. 나이 제한 없이 심사를 거쳐 선발된 무용, 연극, 시각예술 등의 장르별 예술가들이 일정한 교육과 연구 과정을 거쳐 TA로 훈련되는 것이다. 특별한 시험 대신 창의력 교육에 대한 가치관이나 교육프로그램 기획력,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심사할 수 있는 시강(施講)이 합격 여부를 좌우한다.

현재 입문 12~13기, 심화 5기 과정이 운영되고 있는 TA 양성과정은 크게 네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예술가에서 예술교육가로 거듭나는 TA 양성 입문과정을 거치면, 다음 단계인 TA 양성 심화과정을 통해 예술장르 간 통합을 시도하는 새로운 교육을 발견하도록 훈련한다. 이 과정에서 통섭(Interdisciplinary)의 과정을 익힐 수 있도록 돕는 특별한 커리큘럼이 동원된다. 3개월씩의 수업으로 입문과정은 일 년에 네 번, 심화과정은 일 년에 한 번 모집하며, 심화과정은 입문과정 수료생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연구과정은 주제와 연구방향을 설정하여 교육과정 및 커리큘럼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단계이다. 집중워크숍은 정규과정과는 별도로 TA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과정으로 입문, 심화과정 수강여부와 상관없이 수시 지원자를 모집한다. 하지만 모든 교육생이 TA를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합격이 보장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자. 일련의 교육이나 연수 프로그램의 취지와 스스로가 과연 부합하는지 숙고한 후





2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술교육가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검토할 기회를 갖는 것이 TA가 다른 예술강사와 가장 차별화될 수 있는 지점이다. 최종적인 TA 양성 과정의 지향점은 인성적, 교육적, 예술적으로 보다 전문적인 TA를 양성할 수 있는 마스터 그룹이다.

예술을 통한 새로운 의사소통 교육을 꿈꾸다

TA 양성 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자신의 분야에서 미적체험교육을 활용·적용할 수 있다. 서울문화재단에 소속되어 이를 실행하는 TA는 현재 인원이 30여 명인데, 미적체험교육의 어린이 창의 Arts-TREE 프로그램을 위해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담당한다.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예술적 감수성을 길러주려는 취지로 진행되는 어린이 창의 Arts-TREE 프로그램은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저소득층의 자녀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방과 후 돌봄교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학생에게 실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수업이다. 몸을 통해서, 그리고 예술을 통해서 '나'를 창조하고 상상하면서 예술을 즐길 수 있는 학생으로 지도하는 것이 TA의 교육 목표다. 기존의 기량 중심 수업에서 개인의 미적 체험을 통해 예술적 상상력을 키우고 문화예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 전략이다.

전문예술교육가로서 TA의 자부심은 공동으로 교수안을 짜면서 더욱 공고해진다고 한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전체 TA가 모여 수업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고민을 나누며 공동 연구를 진행한 결과물이다. TA의 공개수업인 호기심 예술학교는 놀이와 공연 형식을 연계한 집중 통합예술교육 체험 프로그램이다. 어린이들에게 잠재된 호기심을 이끌어내 상상력을 발휘하도록 유도하는데, TA가 각자의 역량을 살려 연기하거나 춤을 추고 무대를 꾸미며 공연하게 된다. 2007년 마법 예술학교를 시작으로 매년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교육자이기 이전에 엄연한 예술가인 TA가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의미 있는 행사다. 주 5일 근무하는 TA가 공연이나 작업 활동을 꾸러가기 쉽지는 않은 편인데, 올해 신설된 주 3일 비전임 TA 제도는 예술 활동과의 병행을 배려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다문화시대의 새로운 의사소통 교육은 대중의 자율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 독자적인 표현 능력의 개발 이상으로 교육자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지원할 수 있어야 문화예술이 진정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고, 그 산업적인 안정성을 뼈대로 미적 취향도 발휘될 수 있을 테니. TA 제도가 그 바람직한 시도로 칭찬받을 수 있는 까닭이다.

- 1 TA는 '몸'을 통해서 예술을 즐기는 학생이 되도록 지도한다.
- 2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아이들.

김지민, 서울문화재단 TA

“다양한 예술교육 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펼쳐진다”

TA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린데, 예술교육을 일찍부터 준비하고 꿈꾸게 된 계기는? 고등학교 때 우연히 접한 연극 <동백꽃>이 정말 재미있었다. 교과서로 배울 때와 다른 감동이 가능하니 말이다. 몸을 움직여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어서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진학하며 연기를 전공하게 됐다. 국어교육학을 부전공으로 교직도 이수했는데 교사가 오랜 꿈이었기 때문이다. 예고로 교생실습을 나갔던 인연으로 졸업 직후 예고에서 연기 선생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면서 예술교육을 시작했다.

TA 교육 과정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었고, 어떤 과정으로 입문했나. 연기의 매력을 알고 즐길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해 많이 고민했다. 학부 때 교육 연극 수업을 담당했던 선생님 덕에 TA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기에 입문 과정인 '미적체험교육'을 들어봤다. 그러면서 예전부터 교육 연극이나 예술 교육에 두고 있던 나의 꿈을 재발견했다. 예고 수업을 그만두고 심화 과정을 마쳐 들은 후 TA에 응시하게 됐다.

TA로서의 보람은? 교실에서 수업만 받던 아이들이라 처음에는 놀거나 움직일 줄 모른다. 아이들의 성향 분석도 철저히 해야 한다. 그렇게 한 명 한 명 특성을 파악해두면 수업이 수월해지면서 아이들도 변화한다. 자기 소개조차 못하던 아이들이 '몸 깨우기'나 '마음 깨우기'와 같은 수업을 통해 달라지는 것을 보면 뿌듯하다.

주어진 업무와 관련해서 다른 활동도 하지.

TA 입문 과정에서 만난 다양한 분야의 강사들과 2009년 '통합문화

예술교육 연구소'를 만들

는 비영리 연구단체를 만들

었다. 2010년에는 청소년과

노인 대상 교육이나 아시아

문화 중심 사업 등 여러 예술

교육 사업에서도 활동했다.

2011년 역시 다양한 예술

교육 사업을 위해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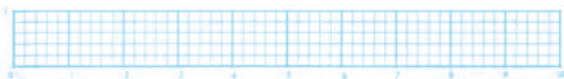




1

TD (Teaching Designer)

디자인 경험을 통한 사고의 확장 교육



TD는 TA(Teaching Artist) 제도에서 영감을 받아 양성하기 시작한 아동 디자인 전문 교육가다. TD 양성 과정을 운영하는 씨알드림은 교육 컨설팅을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며 현장에 파견되어 수업을 하는 교육 연구소. 통합디자인 워크숍으로서 디자인 수업에 동원되어야 하는 15~20명의 인원을 효율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필요에서 출발했다.

TD 양성 과정이 가능할 수 있었던 배경은 씨알드림이 2010년 6월부터 초청 단체로 입주해 있는 성북예술창작센터. 보건소를 리모델링해 개관한 성북예술창작센터는 그 역사를 바탕으로 치유, 소통, 나눔이라는 주제로 예술 활동을 후원하고 있다. 씨알드림은 성북예술창작센터의 취지에 맞는 예술 단체로 선정되어 연구개발 환경과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받는다.

씨알드림이 추진한 성북예술창작센터의 첫 공식 프로젝트인 TD 양성 과정은 1기 5명을 배출한 데 이어 20명을 모집한 2

기까지 성공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교육, 미술, 디자인 관련 분야 전공자 및 '디자인 교육에 관심 있는 그 외' 모두 지원할 수 있다. 센터의 지원 덕에 무료 교육이라는 특전도 누릴 수 있다.

전체 6주간 총 6회 진행되는 TD 강좌는 디자인 교육의 이해와 프로그램 설계 실습을 주요 내용으로 구성하며, 마지막으로 총 4차의 현장실습까지 나간다. 모든 과정을 수료한 TD는 서울시의 디자인 정책과 연구가 있는 네 개의 초등학교에 파견된다.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토요일 오전 세 시간 수업을 진행하며 성북구 밖의 다른 학교 수업까지 담당한다.

아동 디자인 교육은 표현 능력보다는 사고 능력을 길러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는 기술 측면의 학습보다는 관찰과 같은 경험을 통한 사고의 확장을 도모한다. 이미지를 예쁘게 만들기에 앞서 내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면서 취지에 적합하도록, 또 재료와 발표 등 소통의 방식이 적절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아이들의 경험을 토대로 팀 내에서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성취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식이다. 객관적인 평가와 논의로 검토되는 학생들의 작업은 실상 디자인의 심사 기준과 일맥상통한다.



2



3

TD 1세대로서의 희망

교육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별도의 교육 공간으로 노원구의 초등학교에 ‘디자인 교실’을 만들기도 했다. 사진으로만 보던 이미지를 실제로 보고 만지는 체험을 통해 아이들의 사고 발달이나 소통 능력의 발전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

성북센터와의 지원이 공식적으로 종료되는 시점 이후에는, 무료 교육이라는 혜택이 없어지겠지만,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TD 양성 과정이 운영될 수 있는 가능성은 활짝 열려 있다.

씨알드림의 유성자 대표는 “좋은 TD는 첫째 친절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좋은 디자인이 목표에 부합하듯, TD 역시 학생들의 의견과 시점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태도 역시 필요한 덕목이다. 아이들에게 자주 질문하고 생각해보도록 격려하면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을 길러줄 수 있기 때문이다.

TD가 미래에 하나의 안정적인 직업군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1세대 TD들과 함께 바라본다. 백년지대계로서 현재의 디자인 교육이 10년 뒤 그리고 또 10년 뒤, 디자인 교육 현장을 굳건히 지키는 힘으로 이바지하리라는 희망과 함께 말이다.

- 1 TD는 디자인 정책과 연고가 있는 네 개의 초등학교에 파견된다.
- 2 초등학교는 기술 측면의 학습보다는 관찰과 같은 경험을 통한 사고의 확장을 도모한다.
- 3 TD 양성 과정 수업.

유성자, 씨알드림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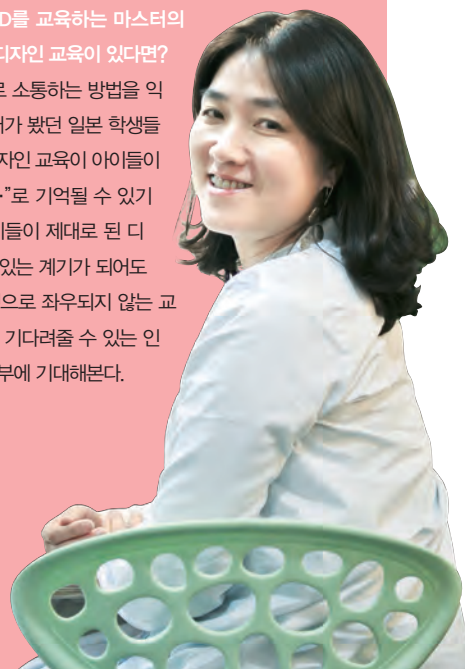
“아이들이 성공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익히게 하는 것”

어린이 디자인 교육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일본 무사시노 미술대학원에서 시각전달디자인을 전공하면서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확장된 디자인 개념과 함께 고민하게 되었다. 학부 2학년 수업을 청강할 기회가 생겼는데 함께 수업 듣던 일본 학생들이 그림책과 같은 ‘문화’를 경험해선인지 사고 방식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유아기나 초등학교 시기의 경험이 디자인에 대한 사고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실감한 것이다. 1996년 공부를 마치고 귀국해보니 우리는 디자인 교육의 필요성조차 논의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디자인적 사고를 키울 수 있는 체험 위주의 아동 디자인 교육을 하겠다는 결심을 워크숍과 마인드 교육 등을 통해 실천에 옮기게 됐다.

아동 디자인 교육가로서 독보적인 위치에서 활동하는데,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나 계기가 있었나. 2002년 예술의전당 디자인 미술관의 브루노 무나리(Bruno Munari) 전시회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위주로 디자인 워크숍을 기획하게 됐다. 7세 미만 아이들이 전시장에 들어가기도 꺼리던 시기였던 만큼 미술관 측에서는 난색을 표했지만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이후 아동이나 디자인 콘텐츠와 관련한 전시 기획에는 으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유사한 프로그램을 갖추게 되었고 나도 관련 일을 꾸준히 맡을 수 있었다. 그렇게 2003년 씨알드림을 시작하게 되어 의미 있는 교육 방법을 실험하고 또 제안해오고 있다.

스스로 TD이면서 TD를 교육하는 마스터의 입장에서 목표하는 디자인 교육이 있다면?

아이들이 성공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익히게 하는 것이다. 내가 봤던 일본 학생들이 이렇듯 우리의 디자인 교육이 아이들이 성장한 후 “언젠가...”로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란다. 물론 아이들이 제대로 된 디자이너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도 좋겠다. 정책과 유행으로 좌우되지 않는 교육으로서, 그 성과를 기다려줄 수 있는 인재를 학교 당국과 정부에 기대해본다.





프로덕션 스테이지 매니저

마침내 1막 1장 큐사인을 할 때까지



공연은 무대의 모든 요소가 어우러져 연출하는 총체적인 분위기에 현장감이 실린 긴장이 더해지며 의미와 아름다움이 성립되는 예술 장르다. 집체적인 양상블은 조명을 받고 있는 배우뿐 아니라 무대를 둘러싼 구성원들의 역할 조율로 표현되는 것이다. 무대 운영진의 명칭이나 역할은,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명확하지 않지만, 전체 프로덕션의 소통을 책임지는 스태프는 정해져 있다. '모든 것이 잘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프로덕션 스테이지 매니저가 하는 일이다. 흔히 무대감독이라 부르기도 한다.

프로덕션 스테이지 매니저는 연습이건 실제 공연이건 책임진 프로덕션을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자리다. 연출자가 산모라면 프로덕션 스테이지 매니저는 산파랄까. 이

어 마이크 세트를 달고 큐사인을 내리는 현장의 교통순경이며 신호등이기도 하다. 기획이나 연출, 연기와 미술 등 창작 과정과 그 결과를 지원하면서 연습과 실제 공연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의 체계와 균형을 관리해야 한다. 배우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행복까지 책임지는 프로덕션 스테이지 매니저의 소임은 때로는 커피나 샌드위치 준비에도 세세하게 미친다.

프로덕션 스테이지 매니저는 스태프와 함께 출근해서 필요한 의상 및 소품을 챙기며 일과를 시작한다. 배우의 분장이나 가발 상태도 살피고 조감독에게 안전 테스트와 난방 상태 등을 점검하도록 지시하며 기술 분야도 관여한다. 무대에 마킹을 하는 것도 프로덕션 스테이지 매니저의 몫이다. 프리세트도 확인하고 조명도 '쿨'하며 마침내 1막 1장 큐사인을 하게 된다. 공연이 끝나면 리포트를 써서 관계자들에게 돌려야 하는 과제가 남는다. 일정을 확인하거나 필요한 연락처를 만들며 서류 작업을 한참 처리한 후 공연장을 떠난다.

공연 제작 과정에서 프로덕션 스테이지 매니저의 역할은 명확하게 선을 그어 규정하기 애매할 수 있다. 자본력에 따라 프로덕션 규모도 다르고 워낙 제한적 계약의 형태로 일하는 데다 프로덕션 스테이지 매니저의 세부 수행 지침 역시 차이가 나는 법이라 다른 스텝과의 관계도 불분명하다.

2010년 출범한 한국무대감독협회(Korea Association of Stage Manager)의 회원 구성도를 참고하면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한국무대감독협회 회원은 제작 무대감독(Production Stage Manager), 무대감독(Stage Manager), 기술무대감독(Technical Stage Manager)과 부무대감독(Deputy Stage Manager), 무대조감독(Assistant Stage Manager)의 일을 담당하는 스텝이나 공연장에서 극장무대감독(House Stage Manager)의 역할을 수행하는 스텝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현장의 A부터 Z까지 점검하라

프로덕션 스테이지 매니저가 되기 위한 전문 교육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역시 어쩌면 당연할 수 있겠다. 연극학과나 뮤지컬학과와 같이 공연예술을 전공하면 제작실습 수업을 이수할 수 있기는 하다. 프로덕션 미팅을 하는 요령이나 제작과 공연에 대한 실무와 매니지먼트를 배우는 것이다.

그 외에 무대감독협회에서 워크숍을 열기도 하고 아르코나 충무아트홀 등에 프로덕션 스테이지 매니저 양성 과정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의 정석이라면 시수를 만나 도제식으로 배우고 데뷔하는 길이다. 말 그대로 ‘공연이 너무 좋다’는 막연한 열정으로 ‘알음알음’으로 소개받고 현장으로 직접 찾아와 A부터 Z까지 배우는 것이다.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을 요구하지 않는 일인 만큼 학벌이나 전공 불문이다. 공연을 좋아하고 많이 알면 이해나 적응이 빠르긴 하겠지만 근성이나 인성이 프로덕션 스테이지 매니저로서의 적성 여부로 먼저 내세워진다.

보다 섬세하게 필요한 능력은 현장에서 요구될 사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미리 계획하고 예상할 수 있는 기민한 감각이다. 모든 스텝과 디자인, 행정 및 홍보가 프로덕션 스테이지 매니저를 통하여 조정되고 중재되니 조직 관리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 역시 우수해야 할 것이다. 많은 프로덕션을 경험한 노련함도 다음 작품을 계약하는 데 유리할 수밖에 없다.

다른 예술산업 분야와 비교해 더 열악하다고 평가되는 우리 공연예술산업에서 프로덕션 스테이지 매니저는 상대적으로 대우가 좋은 편이라고 알려져 있다. 대개 공연을 중심으로 4시간 정도 집중해 일하는 시스템인데 시간과 노동력을 감안할 때 ‘나쁘지 않은’ 보수를 받는다고. 스케줄을 조정하면 다른 공연과 병행하여 일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공연문화계의 기획이나 연출 등 전체 스텝의 연령대가 갈수록 낮아지면서 프로덕션 스테이지 매니저의 입지 역시 덩달아 좁아지고 있어서 고민을 안고 있기도 하다. 연습이나 공연과 관련된 모든 요소를 살뜰히 챙겨주는 프로덕션 스테이지 매니저가 ‘연로하시다’면, 젊은 제작진이 짐짓 불편할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따라서 관록 있는 프로덕션 스테이지 매니저가 연출가로 전업하게 되기 마련이니 안타까운 노릇이다. 빠르게 대형화되고 다양화되는 우리 공연문화산업이 아직은 나이와 상관없이 현장에 충실할 수 있는 선진국의 공연문화계를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다.

1 배우의 분장이나 가발 상태도 살피고 조감독에게 암전 테스트와 난방 상태 등을 점검하도록 지시하며 기술 분야도 관여한다.

이수현, 프로덕션 스테이지 매니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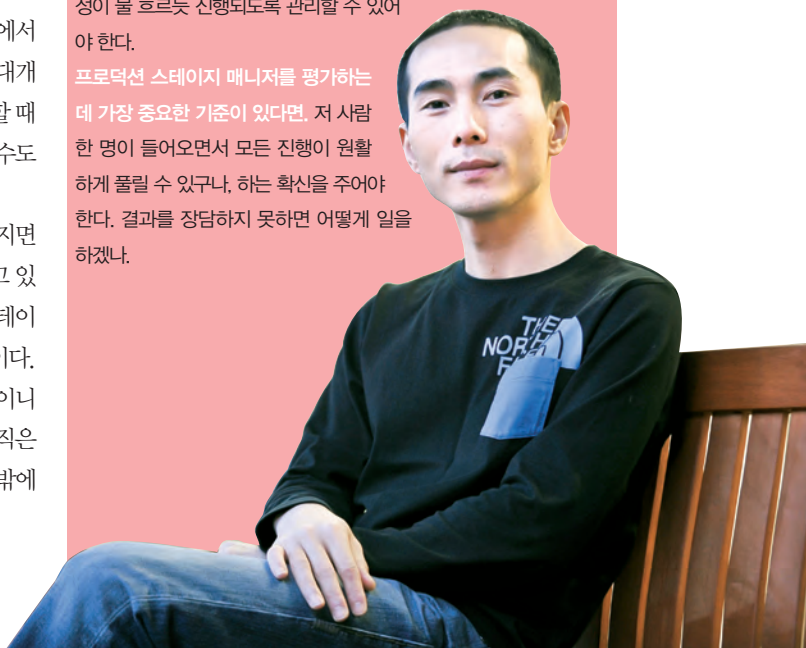
“모든 공연의 움직임이 나로부터 나온다”

어떻게 공연산업계에 입문하고 무대감독으로 진로를 정하게 되었나. 영화를 전공하려 단국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진학했었다. 그런데 1학년 때 연극을 올려보니 서로 싸우기 일쑤라 ‘왜 이렇게 싸워야 하나’ 하는 고민을 학창시절 내내 하게 됐다. 관계에 대한 그런 고민이 지금 직업을 선택하는 동기가 되었던 것도 같다. 또 감성적이라기보다는 계산이 빠른 이성적인 성격이라 감독이나 배우가 적합하지 않을 듯도 했다. 군대에 다녀오고 졸업한 후에 바로 현장에서 일을 시작했다. 데뷔는 2004~2005년 라이선스 뮤지컬 〈미녀와 야수〉를 통해서이다. 현재는 〈천국의 눈물〉 프로덕션을 위해 일하며 단국대학교에 출강한다. 일은 누구를 통해 어떻게 배웠나. 현재 사단법인 무대감독협회(2010~)의 부회장으로 계시는 이종일 감독에게 배웠는데, 지금은 무대감독보다는 연출 활동을 주로 하신다.

가장 힘들었던 공연은? 재작년 이효리 콘서트를 체조경기장에 올렸는데 시작 직전까지 세트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다. 마지막 무대 일이 될 수 있다고까지 걱정해야 했는데 결과적으로 사고 없이 무사히 끝났다. 물론 공연을 하다 보면 정전 사태도 생기고 갖은 말썽을 겪는다. 하지만 프로덕션 스테이지 매니저로서의 업무에 충실했다면, 공연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타의 불상사를 책임지는 사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은? 큐사인을 할 때면 희열을 느낀다. 모든 공연의 움직임이 나로부터 나온다는 자부심이 들 수밖에 없다. 그만큼 모든 과정이 몰 흐르듯 진행되도록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프로덕션 스테이지 매니저를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다면, 저 사람 한 명이 들어오면서 모든 진행이 원활하게 풀릴 수 있구나, 하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 결과를 장담하지 못하면 어떻게 일을 하겠나.





1

에듀케이터 (Educator)

관객과 소통하는 친절한 전시를 위하여



시각예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우리 미술시장 역시 양적인 규모를 부풀리며 작가 및 관련 인력을 쏟아내고 있다. 문제라면 수급불균형에 대한 우려만 양산할 뿐 문화적 현상이 될 만한 신통한 흐름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반 대중에게 미술은, 여전히 가깝게 다가오지 않는 난해한 대상으로 머물러 있다.

미술시장의 진정한 발전은 창작과 소비의 거리를 좁히면서 비롯되는 것이다. 미술 감상의 매개 역할을 중시하는 국제 미술시장의 추세에 발 맞추어 대중이 작품과 소통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시도가 국내에서도 포착되고 있다. 미술관 교육이 대표적이다. 큐레이터가 작가와 작품을 해석하는 역할이라면 관객 편에서 작품을 해석하도록 돕는 역할도 있다. 선진국의 미술관에서는 이미 큐레이터와 동등한 비중을 부여받고 있

는 에듀케이터. 전시와 작품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돕는 '소통의 매개자'로서 다양한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전문가이다.

42년 역사의 국립현대미술관은 1986년까지 주로 전시 공간으로서 존재했었다. 미술관 교육은 국립현대미술관이 과천으로 이전하면서 평생 학습 기관으로서의 기능에 주목하면서부터 비로소 출발했다. 지속적이거나 전문적이지 못했던 미술관 교육은 문화예술교육진흥법이 발효된 2005년, 사회 교육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박물관과 미술관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교육의 개념도 바뀌면서 교육장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전시를 매개로 관람객들의 이해와 소통을 증진하기 위해 미술관 교육 역시 당연히 필요한 분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미술관 교육은 현재, 미술 자체의 교육적 성격보다는 관람객들에게 작품에 대한 오류를 최소화하면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을 중요시하는 입학사정관제 덕분에 단체 관람의 교육 수요 역시 늘어나면서 학교 연계 교육이 특히 많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전체 미술관 교육

1 에듀케이터는 전시의 이해를 돕는, 작품과 관람객의 매개자, 관람객에게 작품을 설명하고 있다.

사업의 업무는 학생을 포함해 전문인이나 교사까지 대상으로 전시 연계를 하는 구조이다. 유럽이나 미국, 일본에 비하면 더딘 행보이다. 학예사나 예비 큐레이터는 넘쳐나는데 교육을 담당하는 에듀케이터는 심지어 희소하기까지 하다. 국립현대미술관조차 한 명의 전문 에듀케이터가 기획 개발과 프로그램 진행까지 '일당백'의 업무를 맡고 있는 현실. 모범 선례가 되고 있는 외국 미술관처럼 큐레이터와 에디터가 1:1의 파트너십으로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전시 연계 교육에 있어 가장 바람직한 형태일 텐데 말이다.

전문화와 규모 확대가 우선적인 과제

현재의 실정에서 에듀케이터는 연구직과 행정직, 서비스직까지 감당해낼 수 있어야 한다. 전문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니만큼 에듀케이터가 되기 위해서라면 그만큼 다방면의 이론을 공부해둘 필요가 있다. 적절한 문화적 이슈와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해야 하는 특성상 미술사의 기초가 튼튼하면 좋다. 교육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교육학에 대한 이해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커뮤니케이션학과 심리학의 기본개념도 같은 목적으로 알아두어야 한다. 트렌드에도 밝아야 하는 만큼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 역시 단련해두자. 어른 관람객이라면 인기 드라마를, 아동 관람객을 위해서라면 잡지나 만화까지 두루 보는 식이다.

국립미술관과 사립미술관은 전시나 인력 지원과 연관된 정책이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교환하면서 미술관 교육에서의 상생을 도모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100명 이상 추산되는 에듀케이터를 위한 모임도 생겼다. 2009년 첫 워크숍을 열어 교육 프로그램 정보를 공유하고 네트워크 내에서 미술관 권역을 표시한 지도를 제작하기도 했다.

미술관의 중요한 서비스로 부상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서 에듀케이터의 전문화와 규모 확대가 우선적인 과제로 논의되고 있다. 브로슈어, 도슨트, 전시 관련 자료 등의 배려도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관람객의 이해와 소통도 돕고, 미술 시장에 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직업군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미술관은 다양한 활동으로 운영되는 곳인 만큼 전문 직종이 얼마든지 파생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이 미술시장의 독자적인 영역이듯 브로슈어의 디자인이나 전시 공간 디자인 등 업무 세부적으로 전문화된 직업이 틈새 사이로 개발되고 발전될 수 있으리라.

우리 미술시장이 보다 투명하고 활기 있게 운영될 수 있으려면 대중이 먼저 관람이나 작품에 대한 적절한 동기부여와 건강한 구매 의지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예술의 의미와 가치가 체득되는 경험을 통해서라면 가능할 수 있다. '친절한 전시'를 고민하는 에듀케이터들의 사명이기도 하다.

글_ 난나 칼럼에서 논문까지 다양한 글을 쓰기도 하고 신문, 잡지, 단행본에 갖은 그림을 그리기도 하는 생계형 예술가.

사진_ 최성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진+사진+여자?

조장은, 국립현대미술관 에듀케이터 “전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통로를 만든다”

국립현대미술관의 에듀케이터로 일하게 된 경로는? 현재 어떤 업무를 하고 있나? 대학교에서 신문방송학과 미술사를 전공하고 국립국악원을 거쳐 2003년 국립현대미술관에 입사해 국제 교류 및 교육 업무를 담당했다. 병행하여 박물관미술관학으로 석사학위를 받기도 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 이직하여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총괄하다가 2008년 국립현대미술관으로 다시 들어왔다. 에듀케이터로서는 2005년부터 정식 직함과 프로그램으로 일하게 되었다. 현재는 크게는 국립미술관의 미디어전 연계교육을 맡고 있고 덕수궁 미술관의 전시연계교육과 기타 세미나, 큐레이터 재교육 및 국제교류 사업을 진행한다. 에듀케이터라는 직업의 고충이 있다면, 미술관 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1세대인 만큼 미술관 내 역할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도 한다. 전시는 물리적인 공간을 바탕으로 하는데 교육은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것이니 말이다. 잡다한 일이 너무 많기도 하다. 2시간 수업하려면 10시간은 투입되어 집중해야 하는 식이다. 무엇보다 교육기관으로서의 미술관과 교육하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인식부터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에듀케이터로서의 유능함이나 좋은 성과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미술관 교육이라는 원칙에 충실하면 된다고 믿는다. 에듀케이터는 소장품과 전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국립현대미술관의 소장품을 최선의 전시로 접목하기가 이곳에서 내가 하는 일이다. 기획과 전시는 소장품을 중심으로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부분이니 트렌드도 읽고 맞춰가야 한다. 다양한 공연장이나 전시관이 생겨나는 상황에서 국립미술관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도 고민해야 한다.

에듀케이터로서의 보람과 또 바람이 있다면, 기획 단계에서 의문을 가졌던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정교하게 설계되도록 성실하게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때 보람이 크다. 미술관 교육은 미술관이라는 공간을 체험하며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관람객과 최대한 소통할 수 있는 전시를 노력하고 있다. “관람객이 이해하지 못하는 전시가 전시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 찾기가 공론화되기를 바란다.





1

레지던시 매니저

예술과 사람, 그리고 공간을 잇는다

유망한 작가들이 보다 안정된 작업 환경에서 창작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창작공간을 지원하는 활동이 레지던시 프로그램이다. 서울에도 레지던시(창작공간)가 여럿 있다. 서교예술실험센터, 금천예술공장, 신당창작아케이드, 연희문학창작촌, 문래예술공장, 성북예술창작센터,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홍은예술창작센터 등이 그것이다.

작가 인큐베이팅이 가장 큰 목적이지는 하지만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주민참여형 문화마을을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한 비전이다. 창작, 소통, 향유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미래형 문화공간인 셈이다. 레지던시에 입주한 작가들은 특수한 지역성을 전제로 주변 환경, 지역 커뮤니티와 연계하여 예술 활동을 하게 된다. 이렇듯 예술, 사람, 공간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레지던시 매니저다. 작가들이 작품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원하는 조력자이며, 이 모든 것을 총괄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일이다.

레지던시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입주 기간 동안 작업 공간만 제공하기도 하고, 필요한 가재도구까지 지원하기도 한다. 입주 기간 또한 천차만별이어서 1~3개월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1~2년 장기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미술, 공연, 문학 등 각 분야별로 공간의 성격도 다르다. 형태와 성격이 다양한 만큼 레지던시 매니저의 역할도 조금씩 달라지지만, 작가들의 요구를 긴밀하고 성실하게 파악하여 지원하는 것이 기본적인 일이다. 창작 지원 외에도 작가와 시민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레지던시를 문화 플랫폼으로 만드는 역할도 한다. 창작공간 관리, 작가 인큐베이팅에 국한하지 않고 훨씬 광범위하게 활동하는 것이다. 그만큼 여러 사항을 고려하고 조율해야 한다.

멀티플레이어가 돼라

서울의 레지던시는 유럽의 스캇운동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캇운동은 예술가들이 도시의 비어 있는 건물을 무단 점거하여 자기 작업실로 꾸리는 예술운동이다. 이에 반해 서울의 레지던시는 서울이라는 도시에 맞게 서울시에서 주



2

- 1 레지던시 매니저는 레지던시를 문화 플랫폼으로 만드는 역할도 한다.
- 2 연희문학창작촌의 연희목요낭독극장.
- 3 레지던시에서 주최한 행사에 참여한 지역주민들.



3

도적으로 만든 공간이다. 큐레이터 등 시각예술에 관여하던 실무자들은 이런 재미 있는 공간에 매력을 느끼고 레지던시 매니저로 자리를 옮긴 경우가 꽤 된다.

레지던시 매니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예산 설정, 자료 데이터베이스화, 체계적인 리서치 등 행정실무에 능해야 한다.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도 프로그램 성격에 맞는 작가를 찾고 리서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얼마나 경험을 쌓았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인턴제나 자원봉사를 통해 경험을 쌓는 것이 필요한 이유다.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복합적으로 이해하고 아우를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일정한 경험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경험치를 만들어가면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인지를 계속 되묻는 것도 필요하다.

소통능력 또한 중요한 기준이다. 소통의 중심에 있는 매신저, 레지던시 매니저가 불통이 되면 안 되기 때문이다. 레지던시 매니저는 수많은 작가와 시민을 만나야 하는 사람이다. 그만큼 다양한 요구와 필요를 효율적으로 컨트롤해야 한다. 국제 레지던시가 많아지고 작가들 간의 국제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영어 소통능력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글_ 김현경 재미있는 이야기를 찾아 헤매는 스토리 헌터. 북매거진 (SKOOB) 기자로 일하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책을 잘 만들기도 하는 줄 알고 다산책방 팀장으로 일했다. 지금은 기획편집자로 살고 있다.

사진_ 최성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진+사진+여자?

안현미, 연희문학창작촌 총괄 매니저 “열린 마음과 창조적인 마인드는 필수”

등단한 지 10년이 넘는 신동엽창작상 수상 시인이기도 한데, 전업 시인은 아니다. 시인으로 생존하기 위해 다른 돈벌이를 항상 해왔다. 전에는 문학과 거리가 먼 일을 했는데, 저녁 6시 이후와 이전의 삶이 달라 고단했다. 문화행정을 공부하면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됐고 문학과 가까워져서 더없이 기쁘다. 나는 세상 모든 것이 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무한긍정주의자다. 일하는 이 순간도 시가 될 수 있다. 하루 23시간 59분을 직장인으로 살고, 1분을 시인으로 사는데 그 1분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창작자로서 이 일이 도움이 되는지, 작가들의 창작공간이다 보니 만나고 싶었던 작가도 볼 수 있고, 작가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정말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다. 집필실의 불빛에 자극을 받게 된다. 연희문학창작촌에 집필실이 스무 개 있는데, 밤이 되면 집필실이 스무 개의 별처럼 떠 있다. 저 별이 저렇게 빛나고 있구나 싶다. 같은 작가로서 그들을 서포트해주는 역할이라 보람을 느낀다.

레지던시 매니저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을까? 열린 마음과 창조적인 마인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문학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예술가를 존중하는 태도도 빠져서는 안 되겠지.

일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문화행정이라는 것이 문화도 알아야 하고 행정도 알아야 한다. 시인이기 때문에 문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는데, 행정 시스템은 틀이 갖춰 있고 순서라는 게 있다. 이 둘을 조화시키는 것이 힘들다. 예술가인 나와 행정가인 나를 조화시키는 것. 하지만 그래서 더 매력적인 일이다.

앞으로의 계획은? 연희문학창작촌이 작가들에게는 많이 알려졌는데 시민들에게는 아직 낯선 것 같다. 그래서 알리는 작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려 한다. 국제 레지던시 작가와 국내 레지던시 작가 간의 교류 프로그램도 활발하게 진행할 생각이다. 작년에 작가 대상 인문학 강좌를 열었는데 반응이 좋아서 새로운 커리큘럼을 준비하고 있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낭독극장, 연희문학학교도 계속 꾸려갈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세 번째 시집을 출간하고 싶다.





1

음악치료사

음악의 힘을 믿는 사람들

다윗은 음악치료사였다? 성경에는 목동 다윗이 사울 왕의 질병을 낮게 하기 위해 하프를 연주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고대 철학자들은 사람의 마음을 흥분시키는 소리, 사람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소리를 알고 있었다. 음악치료의 역사는 실로 오래되었다. 음악이 정신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고대 사람들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다.

음악치료가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 잡은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은 일이다. 1950년, 전 미국음악치료협회(NAMT : National Association for Music Therapy)가 결성된 것이 시초가 돼 학위 취득을 위한 교육 과정이 개설됐고, 음악치료사가 속속 배출됐다. 우리나라에는 1997년에 숙명여자대학교에 처음 음악치료대학원이 생겼다. 6개월 뒤에는 이화여자대학교에 음악치료대학원이 생겼고 현재는 전국 10여 개 대학에서 학부과정과 석·박사 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음악치료사라는 '신종 직업'이 한국에서도 서서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음악치료가 뭘까. 음악으로 무엇을 어떻게 치료한다는 걸까. 음악치료는 '정신과 신체 건강을 복원 및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음악을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음악치료사는 음악을 '치료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다. 자폐증, 우울증 환자는 물론이고 노인성 질환자, 치매환자, 통증환자 등 다양한 대상에게 음악치료가 이루어진다. 악기를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작곡을 하는 등 음악을 매개로 내담자(클라이언트)가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런데 음악치료는 개량화할 수 없다. 똑같은 증상을 지녔다 하더라도 음악치료의 방법은 제각각 적용된다. 음악의 힘을 최대한 이용하는 음악치료도 있지만 의학에 비중을 더 두는 음악치료, 심리학에 치중하는 음악치료 등 음악치료 안에서도 여러 갈래로 그 분야가 나뉘는 특징도 있다.

음악치료사의 언어는 음악

음악치료사가 되는 길은 의외로 간단하다. 음악치료 분야의 학사과정이나 석사과정을 수료하면 음악치료 자격시험(전국음악치료사협회 주최)에 응할 수 있다. 숙명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전주대학교, 원광대학교, 한세대학교 등에 음악치료

교육과정이 개설돼 있다. 외국에서 음악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해도 자격시험 응모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음악치료사 자격시험은 1년에 1~2회 시행된다. 자격증을 딴 뒤엔 어린이병원, 성인병원, 요양원, 방과후학교, 복지관 등에서 심리치료사로 일할 수 있다. 음악치료사가 되려면 음악과 친해야 함은 물론이다. 하나 이상의 악기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 김동민 음악치료사는 “내담자와 관계 맺는 주 통로가 언어가 아니라 음악이기 때문에 음악이 곧 음악치료사의 언어”라고 말한다.

전국음악치료사협회에 등록된 전문 음악치료사 수는 500여 명. 그 수가 많아 보이지만 현재에 있는 음악치료사들은 아직도 음악치료라는 개념이 많은 사람에게 낯설게 다가가는 것 같다고 말한다. 소혜진 음악치료사는 미국 특수학교에서 음악치료사로 일하며 겪은 일화를 들려준다. “미국에서도 음악치료에서 치료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사람이 없었다. 대부분이 음악치료수업은 아이들이 즐기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미국 학교에서는 작업치료, 물리치료, 언어치료가 모두 필수과목이다. 그런데 음악치료는 필수가 아니다.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음악치료 과정을 계속 비디오로 녹화해 찍었고 학교 스탭 모임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음악치료가 왜 이 아이에게 필요한지 보여줬더니 그제서야 음악치료를 진지하게 생각해주더라.”

음악치료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한하다. 레퍼런스를 따르지 않고 스스로 개척해야 하는 일이 많기에 음악치료사의 일은 한편으론 고되다. 그럼에도 이 고생스러운 일이 행복을 복돋우는 이유는 뭘까. 관계 맺기가 불가능해 보이던 사람과의 관계 맺기. 아마도 불가능을 가능으로 돌려놓았을 때의 짜릿함 때문이 아닐까. 김동민 음악치료사는 “우리가 상대하는 많은 내담자가 관계 맺기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다. 음악치료로 그들과 관계를 맺게 될 때 참 보람 있다”고 말했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소혜진) “음악의 힘을 믿는 사람”(백혜선) “다른 사람의 안녕에 관심 있는 사람”(김동민)이라면 음악치료사에 도전해봐도 좋을 것 같다.



1 음악치료사는 하나 이상의 악기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
2 음악치료사들이 사용하는 악기.



● 김동민 백혜선 곽희정 소혜진, 음악치료사 “내담자의 변화를 지켜보는 기쁨”

음악치료의 한 분야인 ‘노도프-로빈스’ 음악치료사들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화된 음악으로 ‘음악중심 음악치료’를 한다. 한국의 노도프-로빈스 음악치료사 김동민, 백혜선, 곽희정, 소혜진 씨를 그들의 사무실 ‘Musicing’에서 만났다. ‘Musicing’은 노도프-로빈스 음악치료 자격증 훈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곳이다.

어떻게 음악치료사의 길을 걷게 됐나? **곽희정** 대학에서 작곡을 전공했다. 처음에는 음악치료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했는데, ‘음악으로 어떻게 치료한다는 거지?’ 그런 호기심이 생겨 시작하게 됐다. **백혜선** 한국에 음악치료가 없는 상황에서 외국에 유학을 갔다. 음악치료사 1세대. 피아노를 전공했는데, 막연하게 음악치료에 대한 동경이 있었다. 음악치료라는 단어가 궁금해 무작정 미국으로 떠났다.

음악치료사로 일하며 힘든 점과 보람된 일은? **김동민** 눈에 보이지 않는 내담자(클라이언트)의 변

화를 알아차려야 한다. 보이지 않는 것을 내담자의 가족에게 설명해야 할 때, 증거를 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대야 할 때 힘들다. 하지만 그 변화를 본다는 것 자체가 기쁜 일이다.

백혜선 어디 가서 음악치료사라고 하면 그게 뭐냐고 그러다. 기분이 안 좋을 때 어떤 음악을 들으면 좋을지 골라달라고도 하고, 음악치료사에 대해 일일이 설명해야 할 때 속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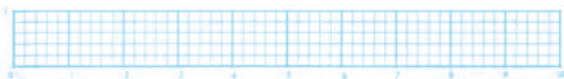
잊지 못할 환자가 있다면? **소혜진** 미국의 특수학교에서 음악치료사로 일할 때 겪은 아이인데, 4살부터 6살 때까지 내가 개별 치료를 했다. 나이에 비해 성숙하고 똑똑한 아이였는데, 부모님이 별거 중이었다. 그래서 어른들은 다 그런 거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처음엔 내게 무척 방어적이었다. 그러다 점차 관계가 발전했다. 음악으로 스토리텔링을 많이 했는데, 마지막 세션 때 그 아이가 딱 한마디 하더라. “오늘은 나랑 같이 (음악으로) 얘기 만들자”고, 나중에 그 아이가 영재학교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참 기뻐다.



1

유물 복원 사진 전문가

원본의 느낌을 그대로 되살려내다



주말 삼청동 등지에서 커다란 DSLR 카메라를 든 사람을 보는 것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 사진의 대중화에 힘입어 아마추어 사진가부터 해외 유명 작가의 사진전이 연이어 열리는 등 사진은 일상생활과 가장 가까운 예술이다. 직업의 세계도 다양해졌다. 사진을 찍는 대상이나 목적에 따라 광고패션사진가, 매체사진가, 광고나 출판물에 쓰일 법한 사진을 미리 예측하고 촬영하는 스톡사진가, 인물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인상사진가 등으로 세분화된다. 사진전이 하나의 문화상품으로 자리 잡아, 사진전 전문 큐레이터도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

유물 원본에 최대한 가깝게 복제, 복원한 것을 영인본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그림으로 모사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사진 기술과 디지털 복제에 의한 인쇄기술이 발달하면서 최근에는 사진으로 원본과 거의 근접한 영인본을 제작하고 있다.

김해권 작가는 유물 촬영부터 보정, 프린트까지 전 영역을 맡고 있는 전문가다.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간송

미술관에서 영인본을 제작하면서 간송미술관 연구원으로 유물 복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항상 새로운 것, 화려한 것만 추구하는 광고사진에 지쳐 있을 때, 우연히 선배의 추천으로 시작한 유물 복원은 그에게 새로운 창작의 문을 열게 했다. 유물을 촬영해 박물관 DB를 구축하고 원본을 전시할 수 없는 상황에는 영인본을 전시하기도 한다. 국내 유물사진 전문가들은 10여 명 내외, 영인본 제작업체는 2~3 군데 정도인데 대부분 촬영만 하거나, 보정과 프린트만 맡고 있다. 가까운 나라 일본은 영인본 제작의 역사가 오래되고 전문화되어 있는데, 1999년부터 문화재를 보존하여 차세대에 계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타쿠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전통 기술로는 재현이 불가능했던 천장 그림 재현, 금박 인쇄 등 많은 기술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벽화, 천장, 병풍, 족자 등 일본화 표현 기법을 모두 재현할 수 있게 되었다.

국내도 외부 노출로부터 원본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청주 고인쇄박물관, 삼성출판박물관, 해인사 등 중요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여러 기관에서는 영인본을 대체 전시에 활용하고 있다. 아직은 양자나 기계 한계에 프린트한 영인본이 대부분이며 색감이나 규격도 원본을 대신하기에는 왜곡된



- 1 조명의 색, 각도 등을 조절해서 원본과 가장 유사하게 보이도록 하는 작업.
- 2 유물 복원 작업 사진.
- 3 프린트 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부분이 많다. 최근에는 인쇄 기계가 다양해지고 고급화되면서 좀 더 원본에 근접한 영인본을 제작하려는 욕구가 강해지고 고원본 종이의 느낌을 대신할 수 있는 전통 한지나 비단까지 사용되고 있다. 원작이 비단에 그려진 작품이면 똑같은 비단에 영인본을 인쇄하더라도 그 느낌을 온전하게 살리기 어렵다. 이런 때는 조명의 색, 각도 등을 조절해서 원본과 가장 유사하게 보이도록 전시한다. 이러한 과정까지 모두 영인본 전문가의 영역이다.

남들이 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라

김해권 작가는 이 외에도 여러 직함을 가지고 있다. 여러 차례의 개인전과 단체전에 참가한 사진작가이자, 숭의여자대학, 홍익대학교 대학원에 출강 중이며, 올에디션스 대표이기도 하다. 올에디션스는 사진 프린트 전문 스튜디오다. 촬영 이후 작품이 탄생할 때까지 스캔, 보정, 프린트 전 과정을 맡고 있다. 사진 전시회가 많아지는 요즘, 큰 전시에도 여러 번 참가했다. <텔피르의 친구들> 전시작품 중 일부, 유네스코가 주최한 <아시아의 길상문양> 전체를 맡았다. 처음 프린트에 관심을 둔 이유는 업체에 맡긴 작품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러 차례 장벽에 부딪힌 후, 디지털화되면서 예전에 비해 기계 가격이 저렴해지자 2004년에 거금 400만 원을 투자하여 이 일을 시작했다. 국내에 전문 프린터 스튜디오가 생긴 지가 10년이 채 되지 않아, 아직 전문 교육기관은 없다.

국내 사진학과 수는 이미 2년제를 포함하면 40여 곳을 넘어섰다. 졸업생이 많이 배출되는 만큼 진로의 폭은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다. 김해권 작가는 “남들이 하지 않는 것에 집중”이라고 조언한다. “디지털 세상이라고 하지만 아직 아날로그의 느낌을 똑같이 살리는 건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백금인화 방식은 디지털로는 아직 흉내 내기 어려워요. 디지털은 잉크로만 출력하기 때문에 물질적 특성 자체가 달라 깊이감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방식을 디지털로 재현할 방법을 찾는다면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겠죠. 새 분야를 개척하려는 시도가 중요합니다.”

글_장인숙 어릴 때부터 만화에 미쳐 있어 3년간 만화잡지 기자, 편집자로 일했다. 지금은 잡지로 어떻게 돈을 벌까라는 세속적인 고민 중.

사진_오계옥 느긋한 일요일 오전의 커피 한 잔을 꿈꾸며 일주일을 씩씩하게 살아가는 사진가자.

김해권, 올에디션스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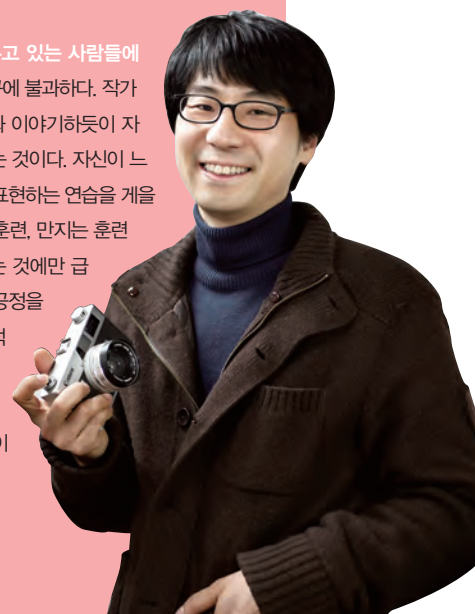
“찍는 것에만 급급해선 안 된다”

유물 복원의 매력은? 유물 작품은 유물과 함께 간다. 촬영해서 박물관 내 DB를 구축하기도 하고 내가 찍고 복원한 작품으로 도록을 편찬하기도 한다. 도록에는 작가의 이름도 함께 실린다. 20년 후를 생각했을 때 나에게 남을 수 있는 일이란 무엇인가 고민을 많이 했다.

프린트를 직접 한다고 했을 때 주변의 반응은 어땠나. 내 작업을 위한 투자였는데 미친 놈 소리도 좀 들긴 했다. 해보니 프린터보다 부수적인 것에 더 많은 돈이 들더라. 소프트웨어가 750만원, 작은 평가등 하나가 200만원 정도다.

프린터의 전망은 어떤가. 아직 우리나라는 전문 프린터의 역사가 10년 이 채 안 된다. 프린터를 구매한 처음에는 기술적인 노하우가 없어서 전문가를 수소문해 직접 문제를 해결했다. 외국의 경우 유명한 프린터가 작업한 작품은 가격도 더 올라가고, 촬영 전 단계부터 작가와 함께 사용할 필름, 카메라, 렌즈 등에 대해 전반적인 협의를 한다. 전직이 프린터였던 유명 작가도 많다. 그만큼 프린터가 전문 영역으로 인정받고 있다.

유물 복원과 프린터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카메라는 도구에 불과하다. 작가가 펜을, 화가가 붓을 들고 세상과 이야기하듯이 자신의 이야기를 카메라를 통해서 하는 것이다. 자신이 느끼고 경험한 것을 카메라를 통해 표현하는 연습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보는 훈련, 찍는 훈련, 만지는 훈련도 각각으로 해야 한다. 다들 찍는 것에만 급급한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모든 공정을 입력부터 출력까지 익히고, 전반적인 디지털에 대한 지식도 쌓아야 한다. 프린터 시스템을 이해할 경우 본인 작업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행복

미술관 가는 길목에서 그림을 그려요.
멋진 갤러리도 전시관도 미술관도 아니에요.
물론 그림이 멋지지도 아름답지도 않아요.
제가 힘들겠다구요? 아니에요. 전 행복해요.
왜냐구요? 제 그림은 모두에게 평등하거든요.
그림 보러 오세요. 관람비는 없습니다.

사진 · 글_백중현 <씨네21> 기자







이 시대의 탁월한 이야기꾼, 소설가

김영하

나는 미쳐가는 탐미주의자



● 김탁환은 시간을 여행하고 공간을 여행하는 작가다. 그는 황진이가 시를 짓던 먼 과거에서 인간의 몸을 기계가 대체하는 가까운 미래까지 기나긴 시간 속을 오가고, 해초의 사막을 가로질러 눈물마저 얼어붙는 개마고원까지 술한 길을 걸어간다. 그런 김탁환에게 지도와 나침반이 있다면, 그것은 책과 문자다. 책을 읽고 책을 쓰면서 그는 책상 앞에 앉아누구도 꿈꾸지 못할 여행을 하는 것이다. 물론 때로는 직접 길을 떠나 인물과 함께 움직이고 호흡하기도 하지만, 그 종착지는 결국 수백 페이지의 책이다.

김탁환은 또한 문자의 세계를 여행하는 작가이기도 하다. 그의 소설은 영화가 되고 드라마가 되며, 때로는 사진과 영상이 그의 소설에 개입하기도 한다. 서로 똑같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 겹치고 몸을 섞는 세계들이 책으로 이루어진 그의 우주를 구성한다. 책의 날이 들어 있는 4월, 문학과 책의 경계를 무너뜨리며 그 세계를 확장해가는 작가 김탁환을 만났다.

〈열녀문의 비밀〉을 각색한 영화 〈조선 명탐정〉이 500만 명에 가까운 관객을 동원하며 선전하고 있다. 이전에도 〈불멸의 이순신〉 〈나, 황진이〉가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과 〈황진이〉로 제작되었고 〈방각본 살인 사건〉 〈노서아 가비〉도 영화 판권이 팔린 상태다. 이처럼 유독 영상과 인연이 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아마도 내가 이야기꾼이어서 그런가 보다. 한국 소설가 중에는 이야기꾼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다. 나는 오히려 한국의 만화가 중에서 이야기꾼을 자주 발견하고는 한다. 그리고 내게 장르 의식이 있다는 것도 이유의 하나인 듯싶다. 나는 어떤 소재를 접하면 일단 이걸 어떤 장르로 풀까, 추리로 할까 호러로 할까, 아니면 동물 이야기로 풀어볼까, 그런 생각을 먼저 한다. 그런 면이 영화나 드라마와 잘 맞는 것 같다.

〈열녀문의 비밀〉 그리고 그 전편인 〈방각본 살인 사건〉은 그런 장르 의식이 잘 드러난 소설이다. 역사와 추리를 결합했고, 거의 10년 전에 이미 정조와 함께 개학을 꿈꾸었던 젊은 실학자들이 백담파를 소설에 끌어들었다. 그때는 지금처럼 정조 시대가 관심을 받기 전이었는데 어떻게 그 소설을 떠올리게 되었는가.

먼저 역사 추리 소설을 쓰고 싶다는 마음이 강했다. 사실 '백담파 시리즈'를 쓰기 전에 첫 번째 역사 추리 소설을 쓴 적이 있다. 〈서러워라, 잊혀진다는 것은〉이라고, 서정적인 제목 때문에 내용을 오해하는 사람이 많은데(웃음) 김만중의 〈사씨남정기〉에 얽힌 비밀을 다룬 추리 소설이었다. 그 소설은 만족한 부분도 있었고 만족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소설 한 권으로 끝나는 것이 아쉬웠다. 정통 탐정을 내세운 소설이 아니었으니까 시리즈로 이어갈 수는 없었던 거다. 그래서 김탁환의 탐정을 만들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러던 즈음 백담파를 발견하게 됐다. 백담파는 유물론을 추구했고 사물의 차이를 알아보는 사람들이었다. 예를 들어 담배가 있다면 담배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 하나하나의 차이는 무엇인지를 일일이 따지고, 물고기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그 차이에 엄청나게 집중하는 거다. 정약전의 〈자산어보〉를 보았는가. 정말 엄



눈먼 시계공

과학자 정재승과 '통'한 소설. 기계와 인간이 몸을 섞으며 새로운 진화를 꿈꾸는 2049년의 서울. 우리는 '장님이 되어 가는 사람'의 마지막 남은 눈동자처럼 외롭다.

청난 작업이다. 것처럼 백담파는 차이를 중시했던 것 같다. 그렇다면 그 차이를 보는 사람이 탐정이 될 수 있겠구나 싶었다. 그 소설들을 쓰면서 내게 중요했던 것은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나 노론과 소론의 다툼이 아니었다. 백담파에 속한 사람들의 새로움이 무엇인가, 그들의 가장 빛나는 부분이 무엇인가, 그 점이 가장 중요했다.

‘백담파 시리즈’에서 탐정 역할을 하는 김진과 그 조수 역할을 하는 이명방은 홀스와 왓슨처럼 보인다. 작가나 소설이 아닌, 특별히 마음이 가는 탐정이 있는지.

홀스를 좋아한다. 약간 침울하고 제정신이 아닌 것 같고(웃음). 처음 〈조선 명탐정〉 제작사인 청년 필름이 〈열녀문의 비밀〉 영화화를 제안했을 때 그 회사가 커워 영화를 만드는 회사라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김진과 이명방 사이에 약간 동성애적인 분위기가 있으니까 말이다(웃음).

로 맨 스, 로 맨 스, 로 맨 스

세상을 얻지 못하여 꽃에 몰두하는 선비 김진과 왕실의 종친으로 태어나 천진하고 호방한 무관 이명방 사이에는 단순한 우정 이상의 정서가 놓여 있다. 술에 취한 벼에게 마음 쓰고 상처 입은 벼를 안타까워하는 그들을 보면 언젠가 밝은 세상이 열려 그들이 더불어 웃을 수 있기를

노서아가비

고종에게 매일 커피를 올리는 여자가 있었다. 최대의 여자 사기꾼이자 조선 최초의 바리스타. 그녀가 벌이는 유쾌한 개화기 사기극. 이런 매력적인 이야기가 영화로 안 만들어질 리 없잖은가. 이미 영화화가 결정된 지 한참이다.

밀림무정

이 세상은 밀림이고, 밀림에는 정이 없다. 아니, 반대다. 밀림의 정은 무한하다. 서로만을 노려보며 끝까지 나아갔던 자들의 거칠 것 없는 승부에 대한 기록.

바라게 된다. 김탁환의 소설에는 소재를 듣는 것만으로 마음을 끄는 이야기와 함께 그 이야기를 감싸 안아 읽는 이의 마음에 누벼 넣는 감정이 흐르고 있기에, 그런 공감이가 가능할 것이다. 김탁환은 그런 공감의 능력을 여성에게도 적용한다. 그는 남성 작가로는 드물게 여성의 내밀한 마음속에 다가가는 작가이다. 무엇보다도 자유를 원했던 〈나, 황진이〉의 독백, 조선 여인으로 태어나 세상을 떠돌았던 〈리심, 파리의 조선 궁녀〉의 발걸음은 관찰하고 분석하며 때로는 왜곡하는 남성의 시선을 거치지 않는다. 그저 거침없이, 반드시 그해야만 한다는 듯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쏟아놓는다.

그런 여성의 정서는 지금 영화촬영을 준비하고 있는 〈노서아가비〉에서 좀 더 가볍고 솔직하게 드러난다. 〈노서아가비〉는 '조선 최초의 여성 바리스타' 이야기로 알려졌지만 그 바리스타 따나에게 보다 중요했던 직업은 사기꾼이다. 〈노서아가비〉는 조선과 러시아를 무대로 삼아 호쾌하게 사기를 치고 뜨겁다 못해 끓어 넘치는 듯한 사랑을 했던 여자, 내딛는 발걸음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두려워하지 않았던 여자의 이야기다. 변화가 많고 격하며 그 자신조차 자기 마음을 모를 때가 많기에 어쩌면 보다 무거운 소설이었던 〈나, 황진이〉 〈리심,

파리의 조선 궁녀〉보다 그 마음을 다루기가 어려웠을지 모른다. 그런 궁금함으로 김탁환에게 여자의 마음을 물었다.

〈노서아가비〉는 따나의 일인칭 시점으로 전개되는 소설이다. 한 여자가 직접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작가가 인물과 밀착되어 있다는 느낌이 든다. 짧은 스토리나 설정보다는 사소한 반응이나 몸짓에서 드러나는 부분이 특히 그렇다.

작가란 존재가 모순된 존재여서 남성성과 여성성이 섞여 있기 마련이다. 어떤 작품을 쓸 때는 내 안의 남성성이 나이고 또 다른 작품을 쓸 때는 여성성이 내가 돼서 나도 가끔 내가 왜 이러나, 고민할 때가 있다(웃음). 나는 경상도 남자고 남자들이하고만 섞여 살았는데 대학에 들어가면서 여성을 만나게 됐다. 국문과였으니까 여학생들이 있었고 전공이 고전 문학이다 보니 여성적인 문학을 많이 접했다. 말하자면 학습된 여성성이 생겼던 거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딸만 둘을 낳으면서, 그러니까 여자들하고만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삶 속에서 여성성을 얻게 됐다. 아마 그런 점에서 다른 작가들보다 유리한 것 같다. 〈나, 황진이〉 〈리심, 파리의 조선 궁녀〉 〈노서아가비〉는 여성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소설이다. 나는 그런 것들을 쓰고 싶었다. 여성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데 익숙해지면 언젠가 로맨스를 쓸 수 있지 않을까. 남자들이 보는 이상한 로맨스 말고(웃음) 말이 되는 로맨스 말이다.

로맨스를 쓰고 싶다니 조금 의외다. 거의 모든 소설에는 로맨스가 있기는 하지만.

나 로맨스 좋아한다(웃음). 워킹 타이틀 〈노팅힐〉 〈브릿지 존스의 일기〉 등 로맨틱 코미디의 수작을 만든 영국의 영화 제작사) 영화도 좋아하고,

그처럼 이성(異性)에 밀착하여 소설을 쓰려면, 아니 동성이라 해도 그처럼 인물과 밀착할 수 있으려면 단순한 상상만으로는 어려울 것 같은데.

빙의라고 할까, 내가 인물이 되는 일은 소설을 쓸 때마다 일어나는 일이다. 그런데 그게 심한 경우가 있다. 〈나, 황진이〉 때가 그랬다. 황진이는 500년 전 여자인데 그런 시간의 간극 때문에 생기는 차이를 없애고 그 호흡을 소설 속에 구현하고 싶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다. 시간적 간극을 지워가는 방식으로 소설을 쓰자고 마음먹었는데 그 시대 문헌을 보면서 작업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고려 말부터 조선 초에 이르는 문헌을 읽었고 황진이가 읽었을 한시도 5,000수 정도를 읽은 것 같다. 그 소설을 쓸 때는 내 손가락이 500년 전 손가락으로 바뀌는 거니까, 작업 시작하기 전에 한 시간 정도 한시를 읽고 그것들이 내 몸을 지나가도록 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그런 식으로 작업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다시 한번 그 인물이 그 시대에 읽었음직한 텍스트를 읽으면서 그렇게 몸을 뜨겁게 할 수 있을까. 그건 몰입의 문제만이 아니라 방법론을 모색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힘이 드니 항상 그렇게는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고 보면 〈밀림무정〉의 로맨스도 참 절절한 사랑 이야기다. 아주 짧은 시간 함께 지낸 연인의 사랑이 평생을 가니 꿈같이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읽는 순간에는 절박하고 공감이 간다.



전형적인 선택은 아니었지만 그 소설에는 여자를 넣어보고 싶었다. 인간과 자연이 대결하는 다른 소설을 몇 권 읽었는데 여자가 거의 나오지 않았다. 그 배경이 〈밀림무정〉처럼 밀림이든, 〈모비딕〉처럼 바다든, 힘과 힘이 부딪치니까 말이다. 그래서 조금 달라질 듯싶었다.

“나는 점점 탐미적이 되어가는 것 같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그 말을 한 뒤에 쓴 〈노서아 가비〉 〈눈먼 시계공〉은 가볍고 경쾌한 문체를 구사하는데 〈밀림무정〉을 보면 탐미적이라는 단어가 다시 떠오른다.

소설을 쓰고 나서 내가 굉장히 탐미적이구나 싶을 때가 있는데 그때의 탐미적이라는 것은 아름다움을 탐한다기보다 내가 미쳤구나라는 뜻이다(웃음). 소설에 빠져들어 쓰다 보면 다시는 이런 글을 쓰지 못할 것 같을 때가 있다. 그걸 처음 느낀 작품이 〈나, 황진이〉였다. 〈노서아 가비〉 〈눈먼 시계공〉은 경쾌하자고 마음먹고 쓴 소설이지만 〈밀림무정〉을 보면 그런 느낌이 다시 든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보면 내가 어떻게 이런 걸 썼던가 싶은. 그렇게 잘 썼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아닌 누군가가 쓴 것 같다는 의미이다.

밀림에는 정이 없다

〈밀림무정〉이 출간되고 석 달이 넘게 지났지만 아직 그 소설에서 빠져 나오지 못한 것 같다는 김탁환은 〈밀림무정〉을 이야기하는 동안에는 유독 생기가 있어 보였고 조금은 자부심에 차 보였다. 김탁환의 신작 〈밀림무정〉은 인간과 호랑이의 대결을 다룬 대작이다. 개마고원의 주인인 백호 흰머리, 흰머리에게 아버지와 동생의 한쪽 팔을 잃고 7년 동안 그 뒤를 쫓은 포수 산, 호랑이와 사랑에 빠져 호랑이를 만나고자 개마고원을 찾지만 산을 사랑하게 되어버린 동물학자 홍. 〈밀림무정〉은 책장이 버거울 정도의 무게를 지닌 인물과 이야기를 실으며 이제는 갈 수 없는 땅 개마고원의 산줄기에 몸을 붙인다. 야생의 발걸음으로 산과 계곡과 동굴을 딛고, 맹수의 감각으로 바람을 느끼며 그 냄새를 맡는다. ‘밀림무정’은 산의 아버지인 명포수 웅이 자신의 총에 찔림으로 새긴 네 글자다. 그 말처럼 밀림엔 정이 없어 야생은 냉혹하지만 산과 홍은 그 존재의 가치와 당위를 안다. 흰머리는 동화 속의 호랑이가 아니어서 우리에게 갇힌 자신에게 손을 내미는 홍을 물어뜯으려 하지만, 그럼에도 두 사람은 흰머리가 있어야 하는 땅으로



돌아가도록 싸운다. 산은 흰머리를 길들이거나 그 애정을 얻거나 인간에게나 적용되는 감정인 용서로 대하려 하지 않는다. 다만 정당하게 싸우려 한다. 그러므로 흰머리를 가두는 자들은 흰머리의 적이자 산의 적이기도 하다. 그 대결 또한 무정하다.

남자의 눈으로 여자를 볼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의 눈으로 호랑이의 길을 갈 수도 없었을 것 같다. 〈밀림무정〉을 쓰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고 말했는데, 〈밀림무정〉은 호랑이의 눈으로 보는 세상이다. 보통 인간은 밀림의 변화를 알 수가 없다. 산과 그의 동생 수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알지만 호랑이는 그들보다도 훨씬 많이 안다. 그러니까 호랑이의 감각으로 써야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동화에 불과한 소설이 된다. 그런데 자꾸만 인간의 눈으로 자연을 보게 되더라. 그래서 미루고 미루다 보니 몇 년을 미루게 됐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장애를 극복할 수 있었던 건가.

일단은 많이 읽었다. 북한 학자들이 개마고원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자료를 읽으면서 남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개마고원의 식물과 풍광과 짐승

을 만날 수 있었다. 개마고원에 직접 갈 수는 없으니 설악산처럼 높은 산에 오르기도 했고, 나는 〈밀림무정〉도 과학 소설이라고 생각한다. 생태학과 동물학과 식물학 등을 공부하면서 그 소설을 쓴 거다. 〈눈먼 시계공〉을 쓰면서 과학적인 정보로부터 이야기를 빼내는 연습을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진입 장벽이 다소 낮았다고 할 수 있다. 서울대 수의학과 이항 교수도 많은 도움을 주었고 러시아 라조 보호구역에 가서 야생 호랑이의 배설물과 털 같은 흔적을 직접 확인하기도 했다. 호랑이는 시간차를 두고 쫓아야 해서 진짜 야생에서 호랑이를 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내가 이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소설을 쓰기 전부터 행복했다.

〈밀림무정〉은 추억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적을 쫓고 그로부터 몸을 숨겨야 하니 일반적인 여행기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 지형을 완벽하게 파악하여 그것을 이용해야 하는데, 직접 가보지도 못한 땅을 그처럼 쓸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산길이라는 게 그렇게 많이 변하지는 않는 것 같다. 예전에 백두산과 개마고원을 답사하고 여행했던 기록을 보면서 구체적인 루트를 확인했더니 개마고원을 종으로 올라가는 길은 거의 비슷했다. 물론 지금까지 나온 북한의 지도와 지리책도 열심히 봤지만 소설의 배경이 1930년대여서 과거의 기록이 유효하다는 장점도 있었다.

온몸으로 밀고나갔던 이야기

지금까지 나온 당신의 소설은 스토리나 설정을 듣는 순간 곧바로 흥미를 끌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밀림무정〉은 단순하고 고전적인 이야기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이 소설은 작가가 작품과 정면승부를 벌이는 것 같다는, 숨겨나 기댈 데가 없다는 느낌이 든다.

나는 매일 소설을 6~10시간 쓰니까 소설과 함께 산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언제나 한결같은 건 아니다. 음악으로 치면 아주 진지한 교향곡처럼 소설을 쓰고 싶을 때도 있고 연습곡이나 사랑의 세레나데처럼 가볍게 만들고 싶을 때도 있다. 〈노서아 가비〉를 쓸 때는 개화기 이야기를 어떻게 신나게 쓸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하지만 〈밀림무정〉은 단순히 분량 문제를 떠나 오래전부터 쓰고 싶었던 대작이다. 문장으로 승부해야 하고 시간도 많이 드는 소설이다. 다른 작가의 소설을 봐도 이런 대작이라고 쓴 거구나, 이런 유희하면서 쓴 거구나, 그런 게 느껴진다. 다른 작가가 그런 대작을 쓸 때의 삶을 보면 생활이 엄청나게 단순해진다. 몰입도가 높아야 하기 때문이다. 2009년 여름에 카이스트 강의를 그만두면서 그처럼 오직 쏟아 붓고 싶었던 소설이 〈밀림무정〉이었다. 이런 작품은 솔직히 독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상관하지 않게 된다. 내가 생각하는 절대 수준에 도달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미 수많은 결작이 나온 고전적인 주제를 선택한 것에 대한 부담은 없었는가.

대학 때 교수들이 그런 말을 하곤 했다. 정말 뛰어난 학자는 남들이 전부 싸우는 데로 가서 싸우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미 논문이 수천 편이나 나온 〈춘향전〉에 관한 논문을 써서 승부를 본다는 거다. 하지만 찌질한 사람은 저기 구석에 처박힌, 남들이 안 쓰는 그런 주제를 택해 논문을 쓴다

고 했다(웃음).

얼마 전에 이제 야생에 남은 한국 호랑이는 없다고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다.

남한에 호랑이가 남아 있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호랑이는 반경 100킬로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동물이어서 이미 도로가 여기저기 뚫려버린 남한에서는 생존할 수가 없다. 하지만 한국 호랑이는 아직 남아 있다. 식민지 시대에 박제로 만들어져 지금은 일본 초등학교 같은 데에 전시된 한국 호랑이들이 있는데 이항 교수가 그 박제에서 DNA를 채취해 시호테알린 등의 야생 호랑이와 비교했더니 유전적으로 같은 종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옛날에는 속리산에 살았던 호랑이가 지금은 블라디보스토크에 사는 것이다.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다

〈밀림무정〉이 과학 소설이라면 이는 김탁환의 두 번째 과학 소설이 될 것이다. 김탁환은 과학자 정재승과 함께 근미래가 배경인 SF 소설 〈눈먼 시계공〉을 썼기 때문이다. 로봇 격투기와 연쇄살인을 엮은 이 소설은 새로운 소재도 눈길을 끌지만 그 창작 방식에서도 두드러진다. 과학자와 소설가의 공동 창작. 이것은 끊임없이 다양한 방식의 스토리텔링을 고민하고 그 구현 방식 또한 확장하려는 김탁환에게 매우 어울리면서도 필연적인 과정이었을지 모른다.

〈눈먼 시계공〉은 뇌과학을 비롯한 과학 지식과 정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설이다. 수십 년을 인문학만 접하며 살아온 작가로서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카이스트 문화기술 대학원 강의를 제안받고, 솔직히 카이스트에 가면 바로 SF 소설을 쓸 수 있을 줄 알았다(웃음). 나는 기본적으로 시간을 이야기하는 작가여서 언제나 SF에 흥미가 있었다. 500년 전, 100년 전의 시간을 말하다가 지금 이후의 시간을 말하는 건 어떨까 하고, 하지만 과학 지식이 없어 쓰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 문제를 극복하려면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카이스트 강의를 시작한 다음 6개월 정도는 굉장히 고생을 했다. 다른 교수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웃음). 하지만 공부하고 세미나를 하면서 차츰 익숙해졌고 특히 정재승 교수와 같은 랩을 쓰게 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눈먼 시계공〉은 정재승 교수의 아이디어로 시작되었다. 어떤 방식으로 함께 소설을 썼는가.

먼저 1년 정도 세미나를 하고 대화를 하면서 세계관을 맞춰나갔다. 사소한 부분은 바로잡을 수 있지만 두 작가의 세계관이 어긋난다면 작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2049년의 도시는 어떤 모습일까, 국가는 어떤 체제를 가질 것이며 빈부의 차이는 어떻게 나타날까, 이런 부분에 있어 합의를

“한국 소설가 중에는 이야기꾼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다. 나는 어떤 소재를 접하면 일단 이걸 어떤 장르로 풀까, 추리로 할까 호러로 할까, 아니면 동물 이야기로 풀어볼까, 그런 생각을 먼저 한다. 그런 면이 영화나 드라마와 잘 맞는다.”

보고 나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나는 스토리텔러니까 이야기를 만들었고 정재승 교수는 과학적인 현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었다. 두 사람의 시너지 효과가 매우 컸던 작업이다.

얼마 전에 ‘원탁’이라는 창작 집단을 만들었는데 거기에서는 어떤 시너지 효과를 얻나.

소설은 기본적으로 솔로곡이어서 골방에서 혼자 하는 작업이다. 하지만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다. 소설은 장르가 잡식성이라 과학을 먹으면 〈눈먼 시계공〉처럼 과학 소설이 되고 철학을 먹으면 철학 소설이 된다. 그러면 소설이란 듀엣이나 트리오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사진작가 강영호와 〈99, 드라큘라 사진관으로의 초대〉도 썼다. ‘원탁’은 고향 친구이기도 한 이원태 프로듀서와 함께 만들었다. 나는 소설의 문법에 익숙하고 이원태는 영상의 문법을 잘 알고 있어 서로 이해하거나 싸우거나 설득하면서 결과물을 만들어가고 있다. 영화든 소설이든 호러든 로맨스든 보는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작업이라는 면에서는 모두 같다. 하지만 어떻게 흔들 것인가라는 문제에서는 그 방법과 노하우가 겹치는 것도 있고 완전히 다른 것도 있다. 지금은 하나의 이야기를 소설과 시나리오로 동시에 만드는 중이다.

책을 찾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는 요즘 다른 분야와 책의 소통을 찾고 개발하는 대표적인 작가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

일단은 나는 영화를 하고 싶은 꿈이 있었다. 아니 영화화기보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무엇이든 다 해보고 싶은 욕망이 있다. 소설가로서 나는 글을 쓰지만 그 글의 아이디어로 연극이나 영화, 뮤지컬도 만들고 싶은 거다. 제리 브룩하이머나 J. J. 에이브러햄스처럼 크리에이터라 이야기되는 그런 사람이 나의 모델인 것 같다.

그렇더라도 아직 책 자체의 의미는 남아 있을 것이다. 다른 매체가 모방할 수 없는 책의 매력과 의미는 무엇일까.

능동성이다. 인터넷이나 영상 매체는 수동적으로 받아들이 수밖에 없지만 책은 읽는 사람이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 그 의미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재미있는 부분은 빨리 읽는데 다른 사람은 재미있다고 일부러 천천히 읽지 않나. 심지어 결말을 미리 알 수도 있다. 어릴 적에 추리 소설과 무협 소설을 읽을 때면 처음을 읽은 다음 끝을 상상하고 그 다음에 책을 넘겨 마지막을 확인했다. 내가 상상한 대로 결말이 나면 재미없다고 안 읽어버리곤 했다(웃음).

글. 김현정 몇몇 영화 잡지에서 기자로 일하다가 문득 직업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다른 직업을 찾기 전에 정열이 넘쳐난다는 스페인으로 떠나보았지만 그곳에서 1년 넘게 살며 스페인 남자는 한국 남자와 매우 비슷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다. 실의를 안고 돌아와 지금은 단행본 편집자 생활을 하고 있다.

사진. 백종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주 한 잔, 사진 한 장 그리고 여자?





순간의
감정이 담긴
열다섯 개의
결절

EP가 나온 지 일 년 만인 지난 1월,
사비나앤드론즈는 15곡을 수록한 앨범 〈Gayo〉를
발매했다. 음악과 병행하던 일을 그만두고
좀 더 앨범과 관련한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라는
그녀를 만나 궁금했던 것들에 대해 물었다.

첫 번째 앨범 〈Gayo〉 발매한

사비나앤드론즈

S a v i n a & D r o n e s





“음악을 하면 월세와 통신비, 커피값, 담뭍값, PC방비, 데이트 비용이 나오는 신세계”를 찾아 홍대 인디 신에 진입한 밴드 10cm는 깨알 같은 일상이 담긴 노래로 이른바 대세가 되었다. 사글세 내고 돈 없을 때 밥 대신에 아메리카노를 마신다는 10cm의 가사는 이들에게 일종의 리얼 상황극이다. 이들은 비루한 일상을 농담으로 비틀어 던지면서 예능의 방법론을 통해 인기를 얻었고, 여기엔 트렌드를 포착하는 영민함이 있었다.

그래서 사비나앤드론즈의 비장하고 진지한 눈빛은 유독 눈에 띈다. 그녀는 고단한 삶에서 상처를 받고 사람이 이러다간 죽겠다 싶을 때 절박하게 음악을 붙잡았다. 1940년대 음악에 유독 끌린다고 말하면서, 언뜻 들어서는 뜻이 분명하게 와 닿지 않는 가사를 노래로 부르는 그녀의 음악은 일견 트렌드에서 비껴나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2010년 1월 발매한 EP 〈Does to Live〉는 별다른 프로모션 없이도 주목을 받았고, 사비나앤드론즈라는 이름은 〈향뮤직〉 〈음악취향Y〉 〈대중음악SOUND〉 등 여러 매체에서 올해의 신인으로 언급되기도 했다. 이 정도의 반향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의 목소리에 있다. 듣는 순간 청자를 사로잡는 장악력을 가진 그녀의 음색은 곡에 따라 변주를 거듭한다. 짧은 시간 동안 매섭게 파고들고 달래는가 싶더니 어느새 쓸쓸히 사라져 다시 붙잡고 싶게 만드는 목소리다.

자격증? 내 꿈의 인큐베이터

사비나앤드론즈는 워낙 어렸을 때부터 노래하는 게 꿈이었다고 한다. 음악을 하려면 생계를 꾸릴 방법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하다 대학 진로를 간호학과로 결정했고 졸업 후 응급실에 배치되었다.

“간호사를 택한 건, 꾸준하게 창작을 하고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였어요. 자격증이 있으면 나이 제한 없이 취업도 쉽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녀는 음악이 잘 안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고 못을 박는다.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음악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다. 음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이런 것들을 고려하여 직업을 골랐다니 무서울 만큼 주도면밀하다는 말에 그녀는 웃으면서 대답했다.

“아무래도 목표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외국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옛날부터 많이 했는데, 외국에서도 음악을 하려면 먹고살게 필요하기 때문에 간호사 자격증을 따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도면밀한 그녀지만 일이 계획대로만 진행되는 건 아니었다. 3년간 일을 하고 나서 음악을 시작하려고 했던 사비나앤드론즈는 6개월 만에 위기를 맞는다. 생계를 위한 일로만 하루를 꼬박 채우고 나면 마음이 조금씩 공허해졌고, 그게 얼마간 쌓이자 정신적인 공황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음악을 시작했다. 그때가 2008년 9월이었으니 벌써 2년이 좀 넘는 일이다.

“앨범에서 키보드를 치는 친구가 물렁젠인데, Poe라는 밴드에서 프로듀싱도 하고 음악도 만들고 있어요. 저랑은 고등학교 동창이죠. 그 친구라면 어딘가에서 음악을 하고 있을 것 같아 무작정 연락을 했어요. 그러고는 다짜고짜 털어놨어요. 나는 음악을 하고 싶어서 일을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한계인 것 같다고, 꽃이 시들듯이 사람이 시들고, 암흑기라고 할까, 이러다 죽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친구한테 구조를 요청한 거



2



3

- 1 2011년 2월27일 클럽 오퍼트 공연
- 2 2010년 3월27일 카페 소울언더그라운드 공연
- 3 2010년 7월25일 카페 벨로주 공연
- 4, 5 앨범 사진



4



5

죠. 사실 누구한테 연락하는 스타일이 못 되는데, 2년 만에 뜬금없이 연락해서 아마 그 친구도 놀랐을 거예요. 자기가 속한 레이블이 있는데 한번 와보지 않겠느냐고, 가이드 녹음 같은 걸 구한다고 해서 갔어요. 그게 ‘Woman and Mans’ 레이블이었고, 그때 김영준 프로듀서를 만났죠. 몇 마디 얘기를 나눈 뒤 한 달을 지켜보더니 들어와서 음악을 할지 말지 정하자고 했어요. 저야 뭐 음악을 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기는 거니까, 그러자고 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가요’입니다

본격적으로 음악을 시작하게 된 사비나앤드론즈는 먼저 장르별로 많은 음악을 단시간에 접하고 흡수했다. 처음에는 1940년대 빌보드 차트부터 듣기 시작했다고 한다. 한국 음악이 좋아서 전에는 김현식, 김광석 등 가요만 들었다는 그녀가 서양 음악을 많이 듣기 시작한 건 이때부터다. 194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의 음악에 대한 애정 역시 이때 형성됐다. 앨범에 재즈, 소울, 포크, 그런지록 등 다양한 장르의 곡이 실린 것도 많은 음악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는 과정이 그대로 담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가요’와는 계속 거리가 멀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앨범의 제목을 ‘Gayo’라고 붙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다.

“앨범 타이틀을 정할 때는 고민이 많았어요. EP 때는 타이틀곡도 없었죠. 음원 사이트에 그냥 등록을 했더니 첫 곡이 타이틀곡으로 뜨더라고요. 장르도 매우 다양하게 분류되고, 어떤 곳에선 록, 어떤 곳에선 재즈, 심지어는 국적이 영국으로 뜨는 데도 있고. 장르라는 게 구분하기 위해서 있는 거긴 하지만 그런 경계라는 게 우리에게 필요할까 생각했을

때, 이것도 가요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이것이 가요가 아니라 이것도 가요라는 의미죠. 사실 한국 음악에는 뿌리가 없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외국에서 받아들인 음악이 변화되면서 우리만의 것이 나왔다고 할까요. 지금 나오는 음악도 거의 그런 식이고요. 앨범에 실린 음악도 내가 한국에서 불렀고, 그렇다면 이것도 가요라고 생각했어요.”

사비나앤드론즈가 음악을 만드는 방식은 좀 특별하다. 프로듀서인 김영준이 곡의 알개를 만들면, 사비나앤드론즈가 그걸 들으면서 즉흥적으로 멜로디와 가사를 엮는다. 앨범에 실린 곡 중 반 이상이 악보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녹음해서 나온 결과물이고, 음악을 들으면서 생겨난 느낌과 감정이 그대로 실려 있다. 가사 역시 순간적으로 튀어나오는 말들이다. 이를테면 방언 같은, 발음도 국적도 애매한 낱것의 언어다.

“음악을 시작하기 전에는 가사에 담고 싶은 말이 무척 많았어요. 그런데 음악을 알아가다 보니 소리 자체가 좋고 감정이 충분히 느껴질 경우 이 감정이 그대로 사람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더 이상 건드리기가 어려워졌죠. 프로듀서가 그냥 이대로 하자고 했을 때 불안하기는 했어요. 이걸로 과연 소통이 가능할까.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들을 거라는 생각은 거의 안 했죠. 내가 느끼기에는 좋은 음악이지만 전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번 앨범을 내면서는 사람들과 더 많이 소통하기 위해 녹음하는 전날 써온 가사를 보면서 한 번에 녹음했다고 한다. 하지만 즉흥적인 감정을 그대로 담는 작업 방식에 대한 확신이 바뀐 것은 아니다.



2010년 12월12일 카페 벤제임스 공연.

“제가 내는 앨범을 라이브 앨범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홈레코딩이냐고, 좀 어설피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좋은 스튜디오에서 곁에 다듬은 사운드라고 해서 다 훌륭한 것 같지는 않아요. 사비나앤드론즈만의 사운드, 색깔을 거르지 말고 한번 내보자 이런 생각이었던 거죠.”

외로움이야말로 21세기의 음악

사비나앤드론즈는 요즘 기타를 연습하다 잠드는 밤이 많아졌다고 했다. 탁월한 목소리를 가진 보컬리스트에 만족하지 않고 악기를 배우는 것을 보면서, 그녀가 음악을 더 많이 장악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닌지 궁금해졌다. 프로듀싱을 배우고 싶지는 않느냐고 물었더니 그녀는 이런 대답을 내놓았다.

“같은 레이블에 있는 친구들은 기계 다루는 것도 많이 배우는데, 저는 노래에만 집중해서 그런 분야의 일을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사실은 제가 사람을 늘 혼자라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맞는 사람이 생기거나 누구와 뭔가를 같이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이 사람과 작업하면 내 모습 그대로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걸 감안하고 믿고 같이 작업하자는 생각을 애써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녀가 처음부터 협업에 익숙했던 건 아니다. 처음에 프로듀서와 작

업을 시작할 때 힘들었던 경험을 털어놓기도 했다.

“내 노래인데 누가 손대는 거, 그게 정말 싫었어요. 눈물이 날 만큼 싫었죠. 그렇지만 내 노래라고 해서 내가 연주하고, 프로듀싱하고, 앨범 만드는 게 최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누군가 제게 영향을 미치더라도, 다른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제 모습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사비나앤드론즈의 음악을 듣다 보면, 힘들고 고단한 삶에서 받은 상처를 음악으로 치유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다. 그녀의 가사는 파편적이다. 언뜻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단어의 나열이지만, 그렇게 파편적으로 내뿜은 말이 합쳐져 무언가 절박하고 뜨거운 것을 전달한다. 상처를 받았을 때 왜 아픈지 차분히 말로 설명할 수 있다면 그건 이미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났거나 치유된 상흔이다. 오히려 상처가 치명적이거나 극복하기 어려울 때 논리적인 말이 아니라 방언처럼 알아듣기 어려운 언어로 표현되는 것이다.

“제가 참여했던 공연 중 하나가 ‘조용필이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21세기 음악, 비로소 시작되다’라는 부제를 달고 있었어요. 그때 21세기 음악이라는 게 뭘까 하고 생각하다가 떠올랐던 게 ‘외로움’ 같은 거였어요. 병원에서 근무하다 보면, 아프다고 병원에 온 사람들 중 반 이상이 마음 때문에 몸까지 아프게 된 걸 볼 수 있거든요. 간호사로 일했던 게 음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고 하긴 어렵겠지만, 감정적인 측면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죠.”

글_이수연 대중음악 웹진 [weiv] 에디터. 좋은 게 왜 좋은지에 대해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한다.

사진_손홍주 '세상은 이쁜 사진 같아'라는 책의 제목만 정해놓고 단 한 글자도 쓰지 않은 철없는 철 지난 수능. 할 줄 아는 게 사진뿐이기도 한

촬영_협조_유어마인드

“사실 한국 음악에는 뿌리가 없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외국에서 받아들인 음악이
변화되면서 우리만의 것이 나왔다고 할까요. 지금 나오는 음악도 거의 그런 식이고요.
앨범에 실린 음악도 내가 한국에서 불렀고, 그렇다면 이것도 가요라고 생각했어요.”



조선시대 성벽의 아름다움

● 일본 지방정부 아미가타현청(한국의 도청에 해당-역주)에서 아미가타현 서울사무소에 주재원으로 부임한 지 2년이 된 나는 한국의 관광객을 아미가타현에 유치하는 한편 아미가타현의 특산품을 한국으로 수출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아미가타현은 많은 한국인이 즐겨 찾는 '자오온천 스키장'이 있는 곳으로, 겨울에는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습한 계절풍의 영향을 받아 많은 눈이 내린다. 덕분에 기름진 땅과 깨끗한 물을 확보할 수 있어서 아미가타현에서 생산하는 농산물과 사케는 품질이 뛰어나기로 유명하다.

서울에서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한국만이 가진 고유의 문화를 통해 내 사업과 관련한 아이디어를 얻기도 한다. 바로 '한국의 문화나 물건을 접하면서 감동을 받

고, 일본의 문화나 정서와 비교하다 보면 나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떠오른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서울 거리를 걸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2~3층짜리의 붉은 벽돌집이 늘어선 서울의 전형적인 주택가와 과거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성벽이다.

어느 날 지하철 2호선 이대역 근처에 있는 '웨딩거리'의 남쪽을 거닐다가 처음으로 '붉은 벽돌 거리'를 보았다. 완만하게 경사가 진 땅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붉은 벽돌집들 가운데로 쭉 이어져 있는 좁은 골목길. 겨우 한 명이 지나다닐 수 있는 좁은 골목길이지만 막다른 길이 아니라 신기하게도 다른 골목길로 연결되는 구조. 누가 오가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급경사의 계단. 겨울이면 매우 추워지는 서울에서 빨래를 널거나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 만든 것처럼 보이는 유리로 만든 선룸(sun room), '붉은 벽돌 거리'의 이러한 풍경을 일본 어디서도 볼 수 없어서일까.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는 붉은 벽돌 거리는 나 같은 외국인에게는 무척 인상적인 문화이다.

'붉은 벽돌 거리'는 고층 아파트 지역보다 오래된 만큼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 자동차 문화에 익숙한 현대인이 살기

朝鮮時代の城壁の美しさ

日本の地方政府である山形県庁から、同県ソウル事務所に派遣されて2年。主任務は韓国から同県への観光誘客と同県産品の韓国への輸出である。多くの韓国人のお客様からスキーを楽しんでいただいている「蔵王温泉スキー場」のある県だ。地理的に、冬には湿った北西の季節風の影響を受けて膨大な積雪がある。その積雪が肥えた土壌と清冽な水をもたらすことから、質の高い農産物や日本酒で知られる地域だ。

仕事を進める上で、悩みのタネであると同時に、ヒントも与えてくれる一つの留意点がある。それは、「ある国の人が外国の文化や物に触れて感動するとき、その人の母国の文化やメンタリティーとの間で化学反応を起こしている場合が多

いこと」である。

例えば、私がソウルを歩いて最も感動したのは、「赤れんがの2階から数階建ての建物が並ぶソウルの典型的な住宅街の町並み」と「観光地化されずに何気なく残る城壁」である。

ある日、地下鉄2号線イデ駅の南側、いわゆる「ウェディングストリート」の南側に入り込んだときに、私が「赤れんがの街」に出会った最初である。丘陵地に張り付くように密集して並ぶ赤れんがの低層建物群(2階~数階建て)と、その間を細かく縫うように走る、幅数十センチからせいぜい数メートルの街路・路地。人間1人がやっと通れる細さの路地に入り込んで、不思議なほどに袋小路が少なく、おおむねどこかに抜けるような街の構造。移動の高低差を一気に稼ごうと随所に現れる急な階段。酷寒のソウルで洗濯物干し場や物置

에는 불편할 수도 있다. 그래서 외국인이 느끼는 이국적 정서는 아랑곳없이 재개발로 인해 사라질 것 같아 무척 안타깝다. 서울은 여행객과 재한 외국인을 위한 곳이 아니니 어쩔 수 없는 일일지도 모른다.

조선왕조 시대의 성벽 또한 일본인은 맛본 적 없는 감동을 준다. 대륙의 가열찬 역사를 성벽 그 자체가 대변하는 듯하기 때문이다. 일본에도 중국의 도성을 본뜬 헤이안쿄(平安京) 등이 있지만 적의 침략에 대비해 방위를 할 만한 성벽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일본이 섬나라인 데다 토착민 이외의 민족의 침략에 대해서는 바다라는 완충물이 있었고, 일본내에서는 무사들 간의 전쟁만 벌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서울의 성벽은 대부분 관광지가 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그 모습이 마치 오랜 역사를 대변하는 듯하여 나 같은 일본인에게 감동의 깊이를 더해준다. 그럼에도 한국에서는 최근에야 이러한 성벽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렇듯 외국인에게 감동을 불러일으키고자 할 때 외국인의 문화와 정서를 염두에 두면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자원화할 수 있다. 내 고향 '아마가타' 또한 한국에서 방문하는 분들이 감동받을 수 있도록, 일본인의 눈으로만 바라봐서는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자세를 가지려 한다.



글_ 스가와라 야스시(菅原 靖(すがわら やすし)) 1990년 4월 일본 아마가타현청에 입청. 이후 20년이 넘게 아마가타현의 생산물 수출, 현 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등 일본 지방행정 업무를 담당해왔다. 2001~2003년에는 아마가타현과 우호관계를 맺은 미 콜로라도주 주정부 주재 콜로라도주 생산품의 수출 진흥 업무에 종사했다. 1990년 4월에 일본의 山形県庁に入庁。以来、20年以上にわたり山形県産品の輸出、同県内企業の海外展開支援など、日本の地方行政に関わってきた。この間、2001年から2003年までは、山形県と友好関係にある米国コロラド州の州政府に出入し、コロラド州産品の輸出振興の仕事にも従事した。
번역_ 박지예 일본 아마가타현 서울사무소 통번역 담당 사무관

키스페이스に暖をとるために設けられたと思われるガラスで囲まれた特徴的なサンルーム。「赤れんがの街」のこれらの特徴は日本のどこにも見られないため、そこに身を置いただけで、強烈な異国情緒を感じてしまうのだ。特に、そこが観光地でなく生活の場であるだけに、日本にはない気候や韓国人の考え方が何気なく反映されており、その国ならではの「本物」の側面として外国人にアピールするのである。

「赤れんがの街」は、高層アパートエリアよりも歴史があるだけに、街路が自動車社会に十分適応していないことなど、韓国の最近のライフスタイルからしたら住みにくい要素を抱えるのかもしれない。そうだとすれば、「赤れんがの街」は、史跡などと違い、外国人が感じる異国情緒などは顧みられることなく、再開発で減って行くのだろうか。都市は、旅行者や在留外国人のためだけにあるのではない。仕方のない

ことだろう。

朝鮮王朝時代の城壁についても、日本人は経験したことのない感動を覚える。大陸の歴史の苛烈(かれつ)さを、城壁そのものが強烈に伝えてくるのだ。日本でも中国の都城スタイルを採用した平安京などの例はあるが、戦時防衛に十分な城壁を備えてはいなかった。その理由としては、日本が島国であり、土着民族以外の民族による侵略に対しては海という緩衝物があったことと、日本国内の戦は武士だけの間で行われたことがある。ソウルの城壁は、大部分が観光モニュメント化されることもなく、ひっそりと残っている。そのあり様が、「本物」であることをより力強く語り、日本人の感動を深くする。しかし、この城壁についても、韓国で大切にされ始めたのは、最近のことだと言う。

このように、外国人に感動を呼び起こさせようとするとき、外国人の文化とメンタリティーを踏まえて考えると、思わぬものが資源になるようだ。私の故郷「山形」においても、韓国の方から感動していただけるのに、日本人の感覚ばかりに頼って見落としているものがないかどうか、常に考えるようにしている。

강남 갔던 진성 강북내기 돌아왔다네



내가 홍대 앞으로 간다고 했을 때 몇몇 사람은 뜨악한 시선을 던졌다. 저 치가 왜 저래, 뭐 이런 거였다. 그렇다. 요리사 박찬일은 청담동 언저리에서 어정거리면서 고급 요리나 팔아서 폭리를 취하는 인간으로들 알고 있었던 셈이다. 폼 나게 오트 퀴진이니, 파인 다이닝의 배후조종자쯤으로 나를 알고 있었으리라. 그도 그럴 것이, 청담동에서 십여 년을 몽개면서 푸아 그라나 트러플 뿌린 샐러드, 최상급 쇠고기 스테이크를 파는 식당을 전전했으니 그럴 만도 하겠다. 그래서인지, 간혹 무슨 파티인가에서 초대를 하면서-드레스 코드는 블랙 앤 화이트로 해주세요!-이렇게 내게 전언하곤 하였다.

“차는 모두 발렛이 되니 정문의 버틀러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집사에게 우아하게 자동차 열쇠를 맡기는 내 모습을 상상해보긴 했지만, 나는 언제나 ‘지하철 몇 번 출구’가 아니면 절대 목적지를 찾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문제였다. ‘청담역

에서 한 블록 더 가서 우회전, 다시 유탄하여...’ 이런 식의 길 안내는 내겐 무용지물이라는 뜻이다.

하여튼, 내가 홍대 앞으로 ‘진출’(이건 순전히 어떤 기자의 표현이다)한 건 오랜 ‘숙원’(역시 기자의 표현)이기는 했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골수까지 강북 노선을 지향하며, 그중에서도 서북파였던 것이다. 은평구와 서대문구 일부에 걸친 5학군에서 악착같이 초중고를 나온 진성(眞性)의 강북내기인 셈이다. 그 시절에는 홍대 앞이라고 하면 쓰러져가는 양철 슬레이트 지붕의 용인집에서 막걸리나 마실 수 있었을 뿐, 요즘 같은 풍성한 상권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조용했다. 거리는 간혹 물들인 군용점퍼에 물감을 묻힌 장발의 예비 화가들이나 어슬렁거렸을 뿐이다. 나는 그 거리를 돌며 담배나 피우고, 그림 그리는 친구들과 예의 용인집에서 되도 않는 열변을 토하곤 했었다. 말하자면, 나는 선사시대의 홍대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무슨 점령군처럼 청담동에서 홍대 상권을 노리고 진출한 것도 아니고, 그저 옛 고향으로 돌아온 정도가 나의 홍대 진입기의 전말이었다. 다시 말해서, 강남을 떠나 홍대 앞의 식당에서 일하게 되었다는 소리다. 남들 보기에 고급 요리를



로, 밤에 목과 팔뚝을 도화지 삼아 요란한 그림을 그리는 친구들이 절대 내게 위협적이지 않다는 사실에 마음에 편해진다. 다 같은 문신애호가라고 하더라도 강남 바닥과 홍대는 정서적 불일치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고백하자면, 강남의 한 사우나에서 나는 탕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계집애처럼 조용하게 샤워기 앞에서 대충 비누칠만 하고 나온 적이 있다. 탕 안에는 서울대공원의 맹수사를 방불케 하는 그림판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적어도 홍대 앞에서 그럴 일은 없어 마음에 든다).

홍대 자량을 하자면, 이곳을 서식처로 삼아 밤낮을 사는 이들에게 누가 될까 저어되기는 한다. 홍대 생활 1년도 안 되어 '홍대 피플' 행세를 하려 드는 것 같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런 짓도 가능한 게 홍대만의 자유로움이기도 하다. 자, 첫 번째 자량은 떡볶이다. 그 이름도 찬란한 스킨떡볶이가 지척이고,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스킨떡볶이가 있다. 전국을 평정한 두 곳의 떡볶이집이 인근이니 심히 자랑스러운 일이다. 오늘은 어느 떡볶이를 먹을까,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된다. 거기다가 얼마 전에는 전통의 '초등학교 앞 떡볶이집 맛'을 표방하는 떡볶이집도 등장해서 세몰이를 하고 있다. 거기다가 우리 술 애호가들을 즐겁게 하는 온갖 전국 전통 막걸리집이 홍대 앞에서 대적전 중이다. 여기에 일본 본토 맛에 근접하는 각종 라멘과 오코노미야키 같은 주전부리는 물론이고, 터키식 케밥과 그리스식 식당까지 싸고 맛있는 집이 널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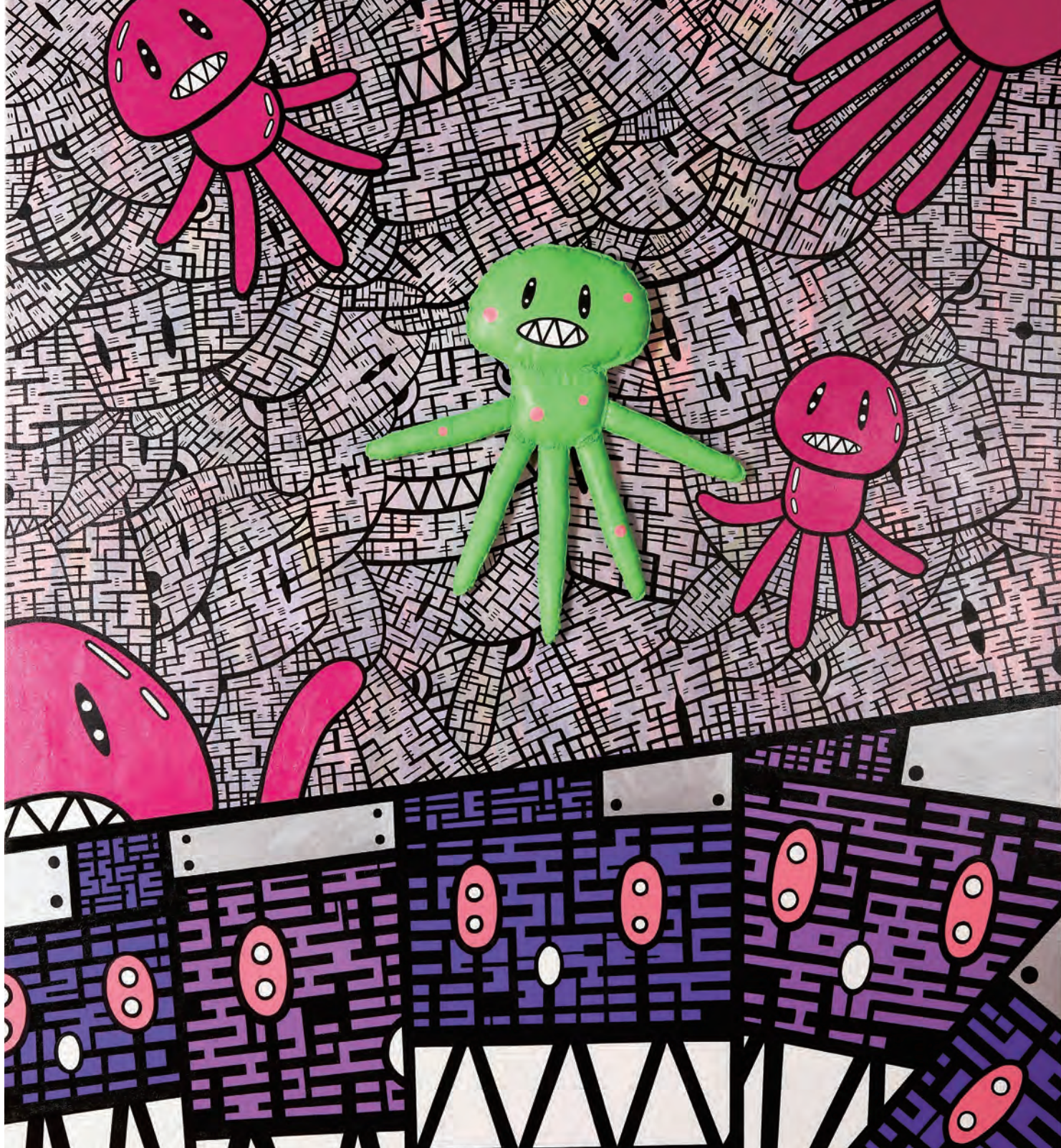
무엇보다 나의 비장의 산책 코스가 홍대 앞에 있다. 일하는 식당을 나와 셋길로 극동방송국을 향해 걸어 올라가면 자그마치 '해발 99미터'인 와우산이 저 멀리 구름 속에서 희미하게 보인다-누구는 그 구름을 스모그라고 부른다. 어쨌든 해발이 높은 낮은 산은 산이어서 여름이 아니어도 제법 등에 땀이 돈다. 온갖 가게로 가득 찬 홍대 옆에 이런 산책코스가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하다. 그 코스를 타다 보면 제법 요령도 생긴다. 라인홀트 메스너는 아니지만 나만의 초등(初等) 루트도 개척할 수 있다. 약수터로 해서 공민왕 사당을 지나 광흥창역을 끼고 대로변으로 돌아오는 길, 와우산 정상 of 공원에서 신촌 옆으로 빠져 돌아 홍대 정문 앞으로 돌아오는 길, 아예 와우산에서 홍대 안으로 진입해서 유유히 캠퍼스 구경을 하며 정문을 빠져 나오는 길 등 수많은 루트를 개척할 수 있다.

아예 와우산을 배신하고 상수역 쪽으로 발길을 돌려서 상수동 구 주택가를 끼고 절두산까지 가는 길도 아끼는 루트다. 상수동은 아직도 낡은 여관과 허물어질 듯 낮은 담의 슬래브집이 남아 있어서 옛 서울의 모습을 살짝 내비쳐준다. 그 골목에는 북카페가 있는데, 모양만 북카페가 아니라 진짜로 커피 한 잔과 함께 책에 파묻힐 수 있는 운치가 있다(간혹 책으로만 보던 진짜 소설가를 만나기도 쉽다). 당인리 발전소 앞을 지나 절두산까지 가는 길도 소담하고 수수해서 서울에 이런 동네가 있나 싶다.

홍대 앞이 내 식당 인생의 한 간이역이 될지, 아니면 진짜 홍대 피플이 되도록 오랫동안 터를 잡을지 모르지만 오랜만에 나를 만난 사람들이 얼굴 좋아 보인다고 놀라는 것만은 확실하다. 하루 매상에 묵숨 거는 요리사 처지에 그런 말 듣는 게 썩 좋은 일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기는 하다. 으흠, 나는 원래 5학년이니까. 모래내, 신촌, 홍대 앞을 돌던 강북내기였으니까.

하니, 홍대 앞의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을 것 같다는 뜻에서 예의 뜨악한 시선이 있었다. 그렇지만, 강남에서 나는 안절부절 못하는 촌뜨기에 불과했고, 늘 좌불안석이였다. 문자 그대로 내 자리 같지 않았던 까닭이다. 그도 그럴 것이, 사회초년 시절까지도 나는 여의도와 잠실이 붙어 있는 줄 알았다. 그 지경의 강남 이해 수준을 가졌으므로 오랜 강남 생활은 고통의 연속이었다고 할까.

홍대는 누구 말대로 'B급 정서'의 최고봉이기도 하다. 고급 요리는 없지만, 맛있는 어묵과 밥집이 있고 서민풍의 이자가 야가 있다. 누구도 새침하게 얼굴에 칼날을 세우고 다닐 필요 없고, 금세 악수를 나누며 친해질 동무가 가득하다. 결정적으



「문화+서울」이 주목한 4월의 작품

Tension

1620x1300mm | mixed media on canvas | 2010
복잡한 사회 속에서 룰에 따라 컨트를 되는 듯하지
만 결국에는 스스로의 의지로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해파리에 비유해 표현했다.

강석현(Eddie Kang)

일본, 대만, 중국 등지에서 4회의 개인전과 다수의 단체
전에 참가했다. 최근 국내 첫 개인전 'Storyteller'를 갤
러리 인에서 열었다.

●

(위부터)

Flowerpot 1, 2

1000X1000mm | Lightjet print | 2009

Flowerpot 3, 4

750X560mm | Lightjet print | 2009

사람이 오브제로 변화한다. 단지 훑내낸 것이 아니라 사물이 되어 본질과 소통하고 메시지를 전달한다. 가끔 우리가 자신의 감정으로 마치 사물이 되어버린 느낌처럼 말이다.

장성은 (CHANG SUNGEUN)

2011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영아트프론티어지원 시각예술분야 선정 작가.



막 피어오르기 시작한 볼꽃 구경만으로는 어딘가 허전하다면 다양한 문화 공연과 함께 풍요로운 봄나들이를 나서보자.
여유만 있다면 공연장 주변의 숨은 산책로를 거닐며 봄기운을 만끽할 수도 있다. 봄나들이 계획으로 제격인 다섯 가지 문화 소식.

봄나들이

문화로 봄나들이 5가지 코스 추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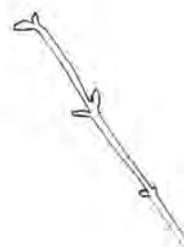
문화서울로 간다





서울의 재발견

서울 문화예술 탐방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서울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무심코 지나치던 거리에서 생각지도 못한 아름다운 건축물과 공공미술 작품을 만나고, 골목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 작고 이색적인 미술관에서 색다른 전시를 관람할 수도 있는 서울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면 서울을 잘 안다고 말할 수 없다. '서울 문화예술 탐방'은 막상 서울을 즐기자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사람들을 위한 행사다. 2007년부터 해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이 행사를 통해 서울 곳곳을 둘러보며 서울의 매력을 재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도 무료로 말이다.

서울 광장에서부터 시작되는 2011년 '서울 문화예술 탐방'은 4월 매주 토요일인 16일, 23일, 30일에 만날 수 있다. 해마다 열리는 '서울 문화예술 탐방'은 문화와 예술이라는 큰 틀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올해 진행되는 프로그램 역시 문화와 역사, 미술, 건축 등을 바탕으로 한 네 가지 문화예술 테마로 선보인다. 한국문화에 대해 깊고 진하게 이야기해볼 수 있는 문학 탐방과 서울 속에서 여전히 살아 숨 쉬는 역사유적 탐방, 다양한 미술작품과 전시품을 감상할 수 있는 뮤지엄 탐방, 그리고 독특한 외관과 남다른 감각, 건축가들과 건물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가 담긴 서울 곳곳의 건축물을 만나보는 건축 탐방 등으로 진행된다.

서울 재발견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인디 밴드를 중심으로 한 인디 아티스트들의 아지트에서 젊은이들의 놀이터로 영역을 넓혀 문화의 집결지를 대변하며 서울에서 가장 핫한 장소로 떠오르고 있는 홍대 앞에서는, 좀 더 특별한 문화예술 탐방이 펼쳐진다. 2008년부터 3년간 이어지고 있는 문화예술 탐방 프로젝트 '홍대 앞 재발견'은 '서울 문화예술 탐방'과 함께 4월부터 홍대 앞의 새로운 문화예술 지역인 상수동, 합정동, 연남동을 중심으로 다양한 작가와의 만남을 만들어간다. KT&G 상상마당과 함께하는 '홍대 앞 재발견'은 4월부터 9월까지 매월 1일~15일에 상상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25~30명의 참여인원을 선발하며 다과와 공연, 워크숍 비용 등을 포함한 1만 원의 참가비를 지참하면 된다. 또한, 대학로에서는 공연관람은 물론 무대 뒤 배우, 연출가 등 연극을 만드는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대학로 연극투어'가 진행된다. 4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네 번째 일요일 진행되며 신청 및 프로그램 세부 일정은 서울연극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 문화예술 탐방의 세부일정 또한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2

- 1 뮤지엄 탐방.
- 2 서울 문화예술 탐방 참가자들.
- 3 역사유적 탐방.

3



1 체험프로그램 <상상미술>
2 중앙광장 야외공연
3 옥상정원 재조공연



봄맞이 축제의 향연 **가든파이버**



대규모 복합 문화 공간을 표방하며 탄생한 송파구 문정동의 가든파이버는 그 규모만큼이나 다채로운 문화 행사로 많은 나들이객의 발길을 모으고 있다. 특히, 지난해 오케스트라와 인디 음악, 미술 전시 등으로 축제의 장을 만들었던 '문화숲 프로젝트'는 많은 인파가 몰려들어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올봄, 가든파이버에서는 지난해 열렸던 문화의 향연을 그대로 이어가는 '문화숲 프로젝트 시즌 2'를 진행한다. 올해 역시 시민들과 음악으로 소통하고 봄의 에너지를 불어넣어줄 오케스트라 연주와 인디 음악 페스티벌 등의 공연 프로그램, 엄마와 아이를 위한 대규모 전시 프로그램, 그리고 시민과 아티스트가 함께 어울려 직접 체험하며 보고 느끼는 교육·체험 프로그램 등이 무료로 개방될 예정이다.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는 공연 프로그램은 따뜻한 봄 날씨만큼이나 감미롭고 봄의 에너지를 불어넣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 요소로 구성된다. 오케스트라, 실내악, 월드뮤직 등이 가든파이버 중앙광장에서 펼쳐져 도심 속 야외무대에서 즐기는 이색적인 추억을 만들 수 있다. 가든파이버 옥상정원에서 펼쳐지는 인디음악페스티벌은 5월부터 10월까지 매달 첫째주와 셋째주 금요일, 토요일에 상설공연되어 인디음악 마니아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4월 15일 개관하는 미술전시 <아트캐슬展>은 실존하는 현실의 공간과 있을 법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허상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술작품으로 이루어진 성(castle)에서 일상의 공간과 예술이 선사하는 환영(illusion)을 만날 수 있다. 또한 미디어 작품들을 통해 시각이 인지하지 못하는 3차원 공간감을 느껴볼 수 있다.

이밖에 책을 직접 만들어보고 문화지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아트북카페'가 상설로 운영된다. 또한 예술가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신진작가를 육성하는 실질적인 예술창작 지원을 통해 시민들과 어울려 작품활동을 하고자 하는 예술가를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숲블로그를 참조하면 된다.(www.g5culture.com) 더불어 가족과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연극, 뮤지컬, 어린이 인형극 등의 프로그램이 가든파이버 <아트홀>에서 4월 23일 막을 연다.

마음의 소리를 찾아서

남산 국립극장

국악이 변하고 있다. 우리 고유의 음악이면서도 오히려 낯설게 느껴 지던 국악이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며 대중에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 1950년에 아시아 최초의 국립극장으로 설립되어 지금은 대극장인 해 오름극장과 소극장인 달오름극장, 공연 성격에 따라 무대가 바뀌는 별 오름극장, 원형 야외무대로 이루어진 하늘극장으로 구성된 국립극장은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무대에 올려왔다. 이러한 국립극장이 올봄에 선보일 공연의 주제는 국악이다. 단순한 국악 공연이 아니라, 어렵고 낯설게만 느껴졌던 우리 전통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요소를 접목했다.

그 첫 번째는 국내 최초 판소리 브런치 콘서트 <정오의 판소리>다. 4월 5일 오전 11시부터 시작하는 <정오의 판소리>는 다양한 우리네 삶을 노래한 판소리의 특성을 살려 관객이 직접 판소리의 주인공이자, 판소리 속에 나오는 삶의 주인공이 되어볼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는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4월 15일 오후 7시 30분부터 펼쳐지는 국악관현악단 명곡전, 국악칸타타 <어부사시사>이다. 국립 국악관현악단의 <어부사시사>는 출연진만 130명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역작으로 국악과 양악, 가곡과 합창 등으로 편성하여 새로운 느낌의 국악을 즐길 수 있게 한다. 나들이객들이 국립극장을 찾는 데에는 근처에 자리 잡은 남산 산책로도 한몫한다. 국립극장에서 우리 국악의 소리를 찾는 공연 관람을 마쳤다면 남산 산책로를 오르며 함께하 는 이들과 서로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연인들을 위한 대표적인 산책 코스로도 유명한 남산 산책로는 이맘때쯤 봄꽃이 만발 하여 더욱 로맨틱한 봄나들이를 완성해준다.



1 봄기운을 만끽할 수 있는 남산 산책로.
2 국립극장 전경



북촌에서의 특별한 하루

북촌 창우극장

미디어의 힘일까. 요즘 북촌 한옥마을, 가회동, 삼청동 등을 아우르는 종로 일대는 국내외 관광객들로 연일 분주하다. 드라마 촬영뿐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소개되며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자리 잡았다. 많은 사람이 모여들면서 이 일대의 다양한 예술극장에도 관람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 종로 한복판에 위치한 북촌 창우극장이 그중 한 곳이다.

북촌 창우극장은 한국적 연극의 시초인 마당극, 판소리를 무대화한 창극과 한국 전통연희축제의 개척자이자 선구자였던 연극 연출가 고(故) 허규 선생이 지은 소극장이다. '창우'는 고려시대 이후 예술인을 통칭하던 말로, 조선시대에 풍류 문화의 본거지였던 북촌에서 당시의 창우들이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통해 새로운 전통예술과 공연 양식을 만들어나고자 설립한 북촌 지역의 유일한 전통예술 전용 소극장이다.

창덕궁 돌담길 입구에 자리 잡아 따뜻한 봄날, 종로 일대로 나서는 볼나들이에서 특별하고 의미 있는 코스가 되어줄 북촌 창우극장에서는 1월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와 오후 1시, 한국의 대표적인 민요 '아리랑'을 다양한 장르와 퍼포먼스로 만날 수 있는 전통음악 상설 공연 <창우아리랑 시즌3>을 선보이고 있다. <창우아리랑>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한국의 민요 '아리랑'이 판소리, 성악 정가, 시조 등 다양한 예술과 만나며 보여주는 한국 전통음악의 역동적이고 신명나는 매력을 선사하고자 기획된 공연으로, 한국 전통성악의 진수를 한 무대에서 만날 수 있다. 예전 그대로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 사진 찍기 좋은 아름다운 마을이라고도 불리는 북촌 한옥마을, 드라마 <겨울연가>에서 배웅준과 최지우가 함께한 추억의 장소이기도 했던 중앙고등학교가 도보로 몇 분 이내에 자리 잡고 있어 공연 관람과 함께 다양한 볼거리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다.



- 1 북촌 창우극장 전경.
- 2 전통예술 전용 소극장인 극장무대.
- 3 중앙고등학교.
- 4 북촌 한옥마을.





오감 만족 런치 콘서트 **삼청각**



화려하지만 단아한 멋을 지닌 전통한옥의 단청이나 우리의 소리 한 가락, 그리고 소박하고 한가로운 공원 한켠이 조용하게 마음을 흔들어놓을 때가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고유의 것, 혹은 자연 그대로의 것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까닭일 것이다. 성북동에 위치한 전통문화의 명소 삼청각에서는 자연과 전통문화를 통해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프리미엄 런치 콘서트 **자미(滋味)**를 새롭게 선보인다. **〈자미(滋味)〉**는 '자양분이 많은 좋은 음식'이자 제주도 방언으로 '재미'를 뜻하는 단어로 국악과 점심식사, 전통 차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오감 만족 프로그램이다. 2010년 삼청각의 상설공연으로 많은 이의 사랑을 받았던 **〈자미(滋味)〉** 프로그램을 한층 업그레이드해 선보인다.

〈자미(滋味)〉의 공연은 편안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퓨전 음악을 중심으로, 창작 음악과 무용 등이 결합된 종합 예술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연주는 20대의 참신하고 실력 있는 여성 연주자들로 구성된 국악 앙상블 **〈청아랑(靑娥娘)〉**이 담당한다. 또한 삼청각 전문위원인 국악 작곡가 유은선의 친절한 해설이 가미되고, 영어와 일어 등 외국어 서비스를 병행하여 폭넓은 연령대의 관람객이 더욱 재미있고 알찬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공연에 이어지는 점심식사는 갈비찜정식, 산채비빔밥정식, 불고기뭇밥정식 등의 특별 유기능 메뉴가 요일별로 다르게 제공되며, 식사가 끝난 후에는 전통차의 향기를 즐기며 담소를 나눌 수 있다.

공연을 관람하고 식사까지 마쳤다면 근처에 자리 잡은 삼청공원으로 여유로운 산책을 나서보는 것도 좋다. 삼청각에서 시작해 삼청공원 입구까지 이어지는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내려오다 보면 서울 한복판에서 푸르른 녹음과 이따금 산새 소리까지 만끽할 수 있는 삼청공원에 다다른다. 1940년에 개원해 오랜 시간 보존되어온 공원으로 만큼 비교적 크고 울창한 나무로 조성되어 있어 계절의 변화와 정취가 그대로 느껴진다. 연인, 가족과 함께 맑은 공기를 마시며 한가로운 산책을 즐길 수 있다.



- 1 자미 콘서트 점심식사.
- 2 삼청각 전경.
- 3 공연관람과 점심식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자미 콘서트.
- 4 삼청공원



글 **박여란** 전 잡지 기자, 현재 국내 아티스트들의 국내외 기획전시를 주관 및 홍보하는 프로젝트팀의 일원이자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사진 **최성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진+사진+여자?

80년대 대학 연극의 메카에서 열리는 제1회 '신촌 연극제'를 보며

반갑다, 신촌 무대

봄은 예나 지금이나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 곁을 찾아온다. 2011년의 봄 역시 어김 없이 찾아왔고 그 봄과 함께 또 다른 봄을 품고 제1회 '신촌 연극제'가 열린다. 한국 연극에 있어 2011년의 신촌 연극제는 춥고 시린 긴 겨울의 시간을 견디고 새로운 생명으로 움트는 '봄' 같은 힘을 가질 것을 기대한다.

나는 지난해 가을, 공연 제작사 해본 측으로부터 2011년의 제1회 신촌 연극제에 우리 극단(극단 산)의 연극 <짬뽕>으로 참가해줄 것을 제안받았다. 내가 신촌 연극제와 연을 맺는 첫 순간이었고 너무도 기뻐다. 나는 20년 정도를 연극과 함께해왔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지금도 공연을 한다는 것 자체가, 큰 설렘이고 바람이다. 20년 정도를 했음에도 아직도 나 스스로 판을 짜고 그 위에서 맘껏 우리의 연극을 하며 신명 나게 한바탕 놀기란 쉽지 않은 것이 연극계 현실이다. 주최측에 신촌 연극제의 취지를 물었더니 '여기가 바로 진짜 대학로다'라고 아주 간단하지만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 답을 들을 수 있었다.

여기가 바로 진짜 대학로다?

'여기가 바로 진짜 대학로다'라는 문장! 이 단순한 한 문장을 듣고 나는 왜 설렘이 생긴 것일까? 아마 나쁜만이 아닌 다른 작품으로 참가하는 극단들 역시 나와 같았으

리라. 더욱이 신촌에서 연극을 보고 연극을 해오던 선배들은 또 다른 감회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 90년 중반까지는 많은 대학이 이웃하고 있는 신촌 지역을 대학가의 대명사처럼 사용했다. 지성의 출발이고 지성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대학을 상징하던 공간이 신촌 지역이었다. 그 지성의 중심에는 연극도 자리하고 있었다. 한국 연극의 중추적 활동을 하던 극단들이 신촌의 지성들과 함께 시대에 대한 통찰, 인간에 대한 깊이 있는 접근, 사회의 부조리한 모습을 주제로 하는 많은 연극을 생산하고 즐기고 공유하고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쉽게도 나는 지성의 중심지에서 하는 연극을 거의 접할 수 없던 세대이다. 내가 신촌에서 연극을 본 것이 아마도 89년이나 90년쯤으로 기억된다. 오래된 기억은 아닌데 흐릿하게나마 남은 기억을 더듬으니 지하철 신촌역 근처의 홍

<아미시 프로젝트>

<디너>



익문고 위쪽에 있던 홍익소극장에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본 것이 신촌에서 접한 첫 연극인 것 같다. 오래지 않은 기억이 흐려진 탓은 내 기억력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그 지역에 가서 연극을 볼 일이 적었기에 다른 것보다 더 빨리 잊힌 탓도 있을 것이다. 그 후 홍익 소극장도 곧 없어졌다.

그 후 91년도에 대학을 들어가 연극에 입문하고 또 연극을 보고 나의 연극을 관객에게 선보이던 시기는 이미 연극의 주 무대가 현재의 대학로로 이동한 다음이다. 연극무대가 대학로로 이동한 이후 한동안 신촌의 연극은 홍대 쪽의 산울림 소극장을 제외하면 주류에서 벗어나거나 공연이 그다지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반드시 주류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수요도 공급도 줄어들었고, 연극이란 것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젊은 정신이 만들고 즐기는 문화로

지금 대학로는 120여 개가 넘는 극장이 모여 있다. 이는 달리 얘기하면 하루에 120여 개의 공연이 진행 중이란 뜻이다. 모든 공연이 나름의 가치를 두고 진행 중일 것이다. 하지만 극단은 여전히 경제적으로 힘겹다. 극단이 경제적으로 힘겹다는

것은 공연에 관계된 사람들 역시 힘겹다는 얘기다. 공연 문화가 신촌에서 현재의 대학로로 이동한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테지만 경제적인 이유가 컸다고 한다. 공연을 보기 위해 신촌을 찾는 관객이 늘어나고 거리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상권이 발달하자 건물주들이 월세를 올려 돈을 챙길 기회를 마련했다. 그런데 공연 보는 관객이 늘어나는 것보다 다른 상업이 훨씬 크게 번창하고 성행하면서 극단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 때문에 그곳을 떠나야 했다고 한다.

지금 대학로도 신촌의 과거를 닮아가고 있다. 극장도 늘고 공연도 늘었다. 그에 비해 상권은 너무도 현저한 차이로 커지고 있다. 하지만 극단의 수입은 여전하다. 아니 어쩌면 과거 신촌에서 활동하던 시절보다 못할 수도 있다. 공연장이나 공연의 편수가 늘어난 데 비례해 관객의 수는 늘어나지 않았다. 이것은 일정하게 무리 지어 있는 관객층을 각 극단들이 서로 나누어 극장으로 끌어들이는 데 급급한 양상을 만들었다. 같은 수의 관객을 더 많은 수의 극단이 나누어야 하니 극단 자체의 수입은 점점 줄 수밖에 없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대학로의 연극도 대안을 찾거나 만들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신촌 연극제는 새로운 관객층의 개발, 좋은 관객의 개발, 수준 높은 관객의 개발이란 측면에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앞으로 공연의 판을 키우고 질을 높이고 때론 냉철한 이성으로 일침을 가하기도 하는 '고급의 잠재 관객'을 키우는 역할도 해야 할 것이다. 한국 대학 지성의 메카 신촌, 그 신촌의 젊은 정신들이 만들고 즐기는 공연들, 그들이 선택하고 그들이 키워가는 공연은 싸구려 웃음과 저질 개그만이 난무하는 공연이 아닌 이 시대를 비춰볼 거울이기를 바라고 또 이 시대의 다른 모습의 밑그림을 그려주는 스케치북이 되길 바란다.



<잠뱅>



<락히맨 쇼>

반향과 젊음과 도전의 정신이여 일어나라

내게 있어 연극은 나와 세상이 소통하는 방식이고 소통의 장이다. 그러기에 나는 연극을 하며 세상과 만나고 이 시대 우리의 문제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 나누며 나를 반성하기도 하고 관객에게 감동도 주고 즐거움을 주고 때론 이성적인 사고를 자극하기도 한다. 생각할 시간을 마련하고 생각을 자극하고 자극받은 관객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이다. 연극은 그렇게 하는 이와 보는 이 모두를 정화하고 행동하게 한다.

지성들이 모인 대학가 신촌, 이제 그곳에서 직장을 구하기 위해 다니는 대학이 아닌 자신의 삶의 질을 고민하고 이 시대를 함께 생각하고 행동하는 지성인으로서의 대학생들 만날 순간을 기대해본다. 이번 신촌 연극제는 신촌이 저 깊은 곳에 품은 반향과 젊음과 도전의 정신을 다시 한번 꽃피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 청년 정신, 젊고 건강한 정신을 가진 관객을 만나고 그런 관객이 늘어나면 우리의 내일도 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젊은이란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반향, 도전, 실험, 모험 등의 심장 박동 같은 뉘앙스들,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는 작품이 신촌을 뜨겁게 달구기를 기대해본다. 2011년 제1회 신촌 연극제를 시작으로 젊은 정신이 살아 숨 쉬는 신촌의 새 모습을 벅차 오르는 가슴으로 그려본다. 그 처음에 연극 <짬뽕>이 함께 할 수 있어 무척 행복하다. 진정한 대학가, 진짜 대학로 신촌에서 건강한 젊은이들과 웃음과 울음을 함께하고 비판과 수용, 변화, 발전을 모색하며 양질의 공연으로 만날 것이다. 그들과 함께 양질의 공연이 관객의 사랑을 받는 풍토를 만들어갈 것이다. 이 첫 출발이 좋은 결과로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번 신촌연극제를 계기로 나 역시 다시 한번 젊은 정신을 가다듬을 것을 기대해본다.

글_윤정환 극단 산의 산지기로 직접 글을 쓰는 작가이고 연극과 뮤지컬,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연출도 하고 있다.

<청춘 18대 1>



신촌연극제 참가작 관람 tip

즐길 마음의 준비 되셨죠?

물질소비문화에 물든 신촌이 문화소비의 중심으로 재탄생한다. 3월 5일부터 8월 28일까지 제1회 신촌연극제가 열린다. 여느 페스티벌과는 달리 각 작품마다 한 달의 공연 기간을 두는 것이 아쉽다. 일회성 소비보다는 관객과의 교감을 노린 기획이다. 신촌 The STAGE에서 열리는 이번 연극제에서는 총 다섯 작품을 선보인다. 참여한 연출자, 제작자, 프로듀서가 작품별 관람포인트를 보내왔다. 자세한 내용은 www.thestagetheater.co.kr 참조.

<아미시 프로젝트> 3월 5일 ~ 4월 10일

“아미시만의 이야기 하나만 쫓지 말고 용서가 필요한 6개의 이야기도 쫓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 한 명이 독백을 할 동안 나머지 6명의 배우는 끊임없는 움직임으로 독백에 반응하는 모습을 지켜봐주세요. 마지막으로, 무대 가운데 갇혀 있던 아미시 소녀들이 공간 밖으로 나오는 공간의 이동 또한 중요한요소입니다.”

_극단 바이러스 대표 이문원 교수

<디너> 4월 15일 ~ 5월 8일

“중년부부의 사랑과 권태기에 접어든 사람들을 위한 사랑의 레시피입니다. 결혼생활에 지친 사람들, 권태기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더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요?” _이성열 연출

<짬뽕> 5월 12일 ~ 6월 12일

“우리 주변에 항상 있을 평범한 사람들의 소박하고 진실한 모습을 만나면서 진행되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즐기면 일상에 담긴 소박한 모습들이 결국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행복인지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_윤정환 연출

<락희맨쇼> 6월 18일 ~ 7월 17일

“무대 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을 담은 버라이어티 쇼입니다. 웃자고 만든 쇼이니 만큼 웃을 준비만 하고 오세요. 마방진 특유의 에너지로 바탕으로 기필코 웃겨 드리겠습니다.” _고강민 프로듀서

<청춘 18대 1> 7월 23일 ~ 8월 28일

“1945년 일제 강점기, 비극의 시대를 살았던 청춘들의 이야기를 차차 차와 컵스텝, 자이브, 왈츠 등 신나는 춤으로 표현한 <청춘, 18대>. 연극이 갖고 있는 한계성을 뛰어넘는 감각적인 텍스트와 한편의 영화를 연상케 하는 역동적인 무대는 ‘청춘’ 그 자체입니다.” _서재형 연출

행사명: 2011 신촌 연극제 - 여기가 진짜 대학로

일정: 3월 5일(토) ~ 8월 28일(일)

장소: 신촌 The STAGE

문의: 02-312-9940, www.thestagetheater.co.kr

비대한 결핍, 허기진 욕망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까?

실

작이해성 연출 | 안경모

2011.4.1-4.17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화~금 8pm | 토 3pm · 7pm | 일 3pm (월 쉼)

출연 | 최연식 강애심 이윤재 김신용 김동완 호산 이명행 문현진 박보미
이이림 이소영 김영진 이재호 이지현 안재현 김아영 정지인 이운호

드라마터그 | 김옥란 음악 | 성기완 안무 | 장은정 기술감독 | 심우인 무대 | 심채선 김대한 조명 | 김창기 영상 | 신정엽
의상 | 이유선 소품 | 강민숙 분장 | 백지영 무대감독 | 구봉관 조연출 | 구유리 그래픽디자인 | 인크 사진 | 최은선

주최 | 서울문화재단 제작 | 남산예술센터 후원 | 서울특별시

티켓가격 | 일반 25,000원 관람연령 | 19세 이상

예매 | 남산예술센터 02.758.2150 www.NSArtsCenter.or.kr 인터파크 1544-1555



1

10대 시절에 들었던 음악에 정서적으로 집착하는 이유는

대중음악과 노스탤지어

통칭 켄시봉이라고 불리는 1970년대 통기타 음악이 유행이다. MBC 예능프로그램 <놀러와>에 출연해 새삼 화제가 된 송창식, 윤형주, 조영남, 김세환 등을 비롯해 <무릎팍도사>에 출연한 이장희에 이르기까지, 한 시대를 풍미한 이들은 지금 다시 콘서트를 열거나 방송에 출연하면서 그 전성기를 부활시키고 있다. 사실 이렇게 대중음악의 유행이 돌고 도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역사적으로도 세대와 대중음악의 관계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이 증명되었고 그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켄시봉의 인기가 단지 1970년대에 청년기를 보낸 세대들에 의해서만 환기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지금의 젊은 세대들, 그러니까 2011년에 20대를 보내는 세대들도 켄시봉 세대의 음악에 반응하고 그걸 자기 취향으로 삼는다는 점이 특이하다.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들어보니 그 시절의 음악이 좋았다고 고백하는 글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으며, 온라인 음반점에서는 1970년대와 80년대에 히트한 앨범이 재발매되는 경우도 종종 찾을 수 있다. 특히 지금 음악을 생산하는 그룹에 의해서 이런 취향도 드러나는데, 브로콜리너머의 초기 멤버였고 현재는 가을방학의 보컬로 활동 중인 계피는 얼마 전 라디오에 출연해 “요

즘엔 장덕 같은 80년대의 음악을 즐겨 듣는다”고 말한 바 있고, 9와 숫자들의 음악은 1970년대 캠퍼스 그룹사운드의 감수성과 1990년대 유행가의 감수성을 적절히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장기하는 아예 그 시절의 음악을 기반으로 히트하며 상업적 기반을 닦았다.

‘켄시봉 붐’이 환기하는 건 더 있다. 이 통기타 음악의 리바이벌이 다른 장르의 음악에 대한 관심으로도 확장되었다는 사실이다. 흥미로운 건 켄시봉 붐이 방송에 의한 것이었다면 재즈나 록의 붐은 영화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한국의 1세대 재즈 연주자들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브라보 재즈 라이프>는 입소문만으로 독립영화관에서 매진 행렬을 이어갔다. 이 여파로 SBS 예능프로그램 <스타킹>에는 1세대 재즈밴드 멤버들인 봉고의 류복성과 <빨간 마후라>를 불렀던 자니 브라더스의 보컬 김준, 색소폰의 이정식, 피아노 신광웅, 국내 유일의 재즈 클라리네티스트 이동기, 콘트라베이스 천인수, 트

- 1 MBC 예능프로그램 <놀러와>에 출연한 씨시봉 멤버들. 사진 제공 MBC.
- 2 루시드 폴 같은 후배 뮤지션들은 유희열, 이적, 김동률의 음악적 감수성을 계승하고 있다.

럼펫의 최선배 등이 공동으로 출연해 즉흥연주와 라이브를 선보였다. 여기에 조영남, 윤형주, 송창식, 김세환이 발표한 베스트 앨범 <씨시봉 친구들>은 아이돌 그룹의 틈바구니에서 앨범 차트 상위권을 유지하는 저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그런데 과연 이런 현상이 최근 몇 개월 사이에 벌어진 일일까. 아니다. 한국에서 1970년대 음악의 리바이벌 붐은 적어도 2000년 이후부터 소소하게 진행되었다. 보아의 성공으로 대변되는 한류가 이슈로 자리 잡은 시기와도 맞물리는데, 산업으로서의 대중음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학계와 비평계,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가요에 대한 기반 사업이 벌어진 시기기도 했다. 신현준, 이용우, 최지선과 같은 음악평론가들에 의해 1960년대와 1970년대 한국 대중음악계의 역사를 복원한 <한국 팝의 고고학> 1, 2권이 집필, 발간된 것도 이 시기였고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대중음악 아카이브 지원사업을 실시한 것도 이 즈음이었다. 요컨대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포크 리바이벌, 혹은 노스탤지어와 존경, 취향과 산업의 맥락이 뒤섞여 있는 현상은 천천히 쌓아 올린 과정의 결과인 셈이다.

‘유행의 20년 주기설’의 근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씨시봉 멤버들의 인기처럼 다른 시대의 가수들도 새삼스럽게 소환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몇 해 전 신승훈과 이적, 윤상 같은 1990년대 싱어송라이터들이 화제가 되었던 것과 관련해 윤상이 아이유와 싱글을 만들고 <슈퍼스타K>에 윤종신이 심사위원으로 등장해 존경을 받으며 요즘 크게 히트하고 있는 10cm가 윤종신에게 음악적 영향을 받았음을 고백하는 것을 비롯해 에피톤프로젝트나 노리플라이, 루시드 폴과 같은 음악가들이 유희열과 이적, 김동률의 음악적 감수성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 역시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년마다 유행이 돌고 돈다는 속설처럼 앞으로는 1990년대 음악의 영향력이 훨씬 더 강해질 것임을 짐작하게 된다.

그런데 이 ‘유행의 20년 주기설’은 근거 없이 떠도는 소문일까. 이에 대한 힌트는 뜻밖에도 뇌 과학 분야에서 찾을 수 있다. 최근 7~8년 사이 미국 인문학 분야의 화제는 단연코 뇌 과학이었다. 그 붐을 일으킨 건 컬럼비아 대학의 신경정신과



씨시봉 리바이벌은 어떤 사람에게는 아련한 추억의 순간을 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추억을 팔아먹는 상업 행위일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쨌든 노스탤지어가 대중문화에서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창작과 취향과 시장 모두를 통틀어 작동한다는 사실이다.

임상 교수이자 문학과 음악에 조예가 깊은 필자로 활동 중인 올리버 색스의 <뮤지코필리아>였다. 다양한 임상결과를 통해 음악과 뇌의 관계를 밝히며 뇌 과학의 새로운 장을 열었던 이 책은 이후 다양한 연구에 영향을 미쳤는데, 대표적인 건 대니얼 J. 리버틴의 <뇌의 왈츠>다. 인지심리학자이자 신경과학자, 레코드 프로듀서이면서 뮤지션이자 작가인 리버틴은 <뇌의 왈츠>를 통해 ‘10대 시절에 들었던 음악에 정서적으로 집착하는 이유’를 밝혀낸다. 기억과 경험을 관장하는 특정 호르몬이 10대 이후 둔화되다가 일정한 환경을 통해서(그러니까 그때 그 시절의 음악을 들었을 때) 활성화된다는 얘기는 ‘유행의 20년 주기설’을 꽤 설득력 있게 뒷받침한다. 새삼 생각해보면 1990년대 말과 2000년 초기에는 신중현이나 산울림 같은 1960~70년대 록 음악이 유행했고, 2000년 이후에는 1980~90년대 음악이 유행했다. 대중문화 전반적으로 지금 유행하는 문화와 미디어를 통해 소개되고 소비되는 문화는 어느 정도 간극이 생기기 마련인데, 뇌 과학의 최근 연구결과와 그에 대한 신빙성 있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금 씨시봉 리바이벌은 어떤 사람에게는 아련한 추억의 순간을 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추억을 팔아먹는 상업 행위일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쨌든 노스탤지어가 대중문화에서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창작과 취향과 시장 모두를 통틀어 작동한다는 사실이다. 그걸 비판하거나 지지하거나 즐기는 건 또 다른 문제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건 씨시봉 멤버들의 인기 덕분에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하지 않던 것들에 대해 생각하거나 말하고, 또한 듣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건 놀랍지 않은가. 경험이 변화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말이다.

Rome

당신의 물건을 호텔 서비스로 모십니다

신개념 개인물품창고, 카사포르테

사람만 호텔에 가나? 로마에는 물건만 가는 호텔이 있다. 그것도 오성 호텔. 공간이 부족한 도시 사람들, 쓰지 않는다고 해서 버리기 아까운 물건들, 그렇다고 어디다 맡길 데도 없는 좁기만 한 도시, 이 허점을 비집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카사포르테 사람들이다.

마리아 사비나(48) 씨는 이제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했는데 아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썼던 물건을 보관할 장소가 필요했다. 유모차, 세발자전거, 초등학교 때 읽었던 책, 공부했던 노트, 장난감, 스키용품 등 아들이 지금까지 썼던 물품을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고 남 주기에는 오래된 물건이어서 결국 보관했다가 아들에게 물려주기로 했다. 너무 커버린 아들의 기억 속이나 남아 있을 용품을 맡길 곳으로 선택한 곳은 카사포르테이다.

로베르토 만치니(35) 씨도 카사포르테를 찾았다.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손자에게 남겨준 소중한 유물과 가구를 팔 마음도 없고 그렇다고 집에 둘 장소도 마땅치 않았다. 만치니 씨는 “어떤 것은 100년이 훨씬 지난 것인데 집에 있는 가구와 어울리지 않아 들여놓을 수는 없지만 귀한 물건이라서 도둑이 자기 집 드나들듯 하는 창고를 믿을 수 없어 이곳에 온다”고 했다.

‘셀프 창고(Self Storage)’ 개념을 도입한 카사포르테는 개인이 알아서 운영하도록 하는 신개념의 개인물품창고! 물건이 쉴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호텔에 비유한다. 개인물품창고가 아닌 꼭 호텔인 이유는 물건을 대우하는 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이다. 카사포르테가 창고와 차별화되는 점은 안전함과 청결,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지닌 환경에서 서비스를 한다는 것이다. 즉, 물건을 대하는 태도와 철학을 오성 호텔의 서비스와 비슷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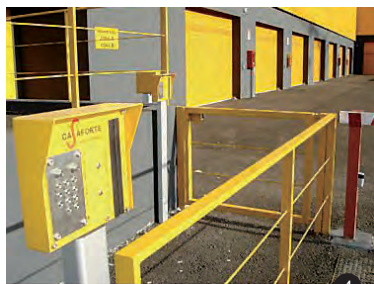


저렴한 가격, 최고의 서비스

루이지 조바니 카르카노(65) 씨는 운송회사를 운영하며 세계의 여러 곳을 돌아다녔다. 12년 전, 당시 미국에는 벌써 개인물품창고 개념이 널리 확산되어 있었지만 유럽은 북유럽 몇 개국만이 이 개념을 수용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운송회사를 운영하며 그가 절실히 필요했던 것은 물품을 보관할 곳이었고, 물건은 저렴한 가격에 적절한 환경의 서비스를 제공받아야만 했다. 그 생각은 지금의 카사포르테를 설립하고 이끌어나가는 기본 방침이 됐다.

지금까지 이탈리아에 18개의 체인점을 열었고 스위스에 2개의 체인점도 마련했다. 앞으로 로마에 다른 두 곳을 더 낼 욕심을 갖고 있다. 계속 늘어만 가는 카사포르테를 보면, 분명 이곳을 찾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 카르카노 씨에 따르면 ‘손님들이 아주 의욕적이다. 카사포르테를 아는 사람들은 아는 것에 만족하고 몰랐던 사람들은 이제라도 알게 되어 만족한다’고 한다.

카사포르테는 도시 주변의 빈 공간이나 헛 건물을 매입하여 공간을 다듬고 포장하여 도시인에게 월세를 준다. 로마 외곽의 무기 공장이 있었던 프레네스티나 거리에 물건 호텔이 들어선 지는 10년 전이다. 방은 2제곱미터의 작은 것부터 100제곱미터의 큰 것까지 750개가 있다. 10년 전 개관한 이래 객실은 매년 85%가 찬다. 로마 지사장 아르칸젤로 가브리엘레 트로이나 씨(38)는 물건 호텔이 들어선 초창기부



- 1 콜로노의 카사포르테 외관.
- 2 브레사의 카사포르테 외관.
- 3 베로나의 카사포르테 내관.
- 4 베로나의 카사포르테 객실 외부 전경.

터 카사포르테 로마지사서 일하고 있다.

‘카사포르테’란 강한 집을 뜻한다. 로마 지사장 트로이나 씨를 따라 카사포르테의 방에 들어가 보니 안전을 위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밖에서 안으로 연결된 문은 이중 철문인데, 바깥 철문을 통과하면 안 철문이 나온다. 이중 철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중 잠금 장치를 해제해야만 비로소 카사포르테 호텔방으로 들어갈 수 있다. 방에는 개별 알람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카사포르테 주변은 경비원이 24시간 순찰을 돌고 CCTV로 감시하고 있어 이보다 더 안전하기도 힘들어 보인다.

이탈리아 사람들의 아침식사인 코르네토와 카푸치노 값보다 적은 1유로50 센트가 카사포르테 공간의 하루 대여비다. 한 달에 대략 45유로의 비용으로 도시 사람들은 자신이 빌린 공간을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 자신의 신발을 넣는 개

인 고객으로부터 수출물품을 보관하는 대형 고객까지 호텔을 찾는 고객이 참 다양하다. 이들이 꼭 이곳을 찾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내 물건이 더럽고 지저분한 곳에 버려지길 원하지 않고 내 물건이 적절한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의외로 다양했다.

수많은 사연이 모여드는 공간 혁명

이탈리아 법상 10년까지는 서류를 보관해야 하는 변호사 사무실의 서류나 회계사 사무실의 서류가 이곳을 찾는다. 집을 새로 지어 옮기는 사람들도 현 집의 가구를 새집으로 옮기기 전에 이곳에 맡겨놓는다. 외국에서 유학 온 학생이 방학을 맞아 집에 돌아갈 때도 하숙집에 맡겨놓기보다는 이곳을 찾는다. 안전하고 값이 싸다는 게 그 이유다.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하는 회사도 이곳을 자주 찾는다. 몇 개월씩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 안심맞춤이라는 것이다.

현 라싱거 교황도 이곳에 짐을 맡겼었다. 교황으로 선출되자 예전 집에서 바티칸으로 옮기는 과정에 사용했다. 로마대학의 한 교수는 이곳에 책만 보관하면서 일주일에 서너 시간씩 와서 책을 읽는다. 그가 보관하고 있는 책만 4만 권이라는데 이곳에서 책을 읽는 이유는 아내의 간섭이 싫어서일까? 한 아랍 왕자는 작년 겨울에 세계 곳곳에 있는 친구들에게 보낼 연말 선물을 이곳에 보관했다. 20개의 박스를 나라별로 나누어 보관했다고 한다. 몇 년 전 티엔네티라는 음악하는 그룹은 이곳을 빌려 자신들의 꿈을 키워왔다. 비용 때문에 로마에서 스튜디오를 대여하기가 수월치 않아서 이곳에서 자신들의 첫 음반을 연습했다고 한다. 로마 지사장 트로이나 씨에 따르면, 3년이 지난 지금 티엔네티는 매우 유명해졌고 이제는 자신들의 스튜디오를 가지고 음반 연습을 한다고 한다. 최근 들어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집에서 쫓겨난 이혼남들이 자신의 짐과 가구를 둘 곳이 절실했다. 집을 마련할 때까지 짐을 맡겨둘 곳이 필요한 이혼남들은 카사포르테의 새로운 손님으로 등장하고 있다. 트로이나 씨는 물건 호텔 지사장으로 있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보고 듣는다고 했다. 아픈 이별 이야기부터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이사하는 사람들이 꿈을 키워가며 들려주는 감동적인 이야기까지, 사람들이 사는 이야기가 카사포르테를 가득 채운다고 한다.

사용하지 않는 가구나 물건을 보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취미 생활을 하거나 꿈을 키워나가는 사람들이 찾는 카사포르테의 쓰임새가 그 자체로서 하나의 목적이 되어 보인다. 미국식 개인물품창고를 이탈리아식 물건 호텔로 전환하여 자꾸 공간을 늘려가고 있는 카사포르테는 공간을 이용한 혁명을 일으킨 게 분명하다.



수용소를 연상시키는 철창이 설치된 전시장. © Palais de Tokyo

Paris

역사 다시 말하기

흔적 Traces

일시 _ 4월 10일까지
장소 _ Palais de Tokyo
문의 _ +33 1 47 23 54 01,
accueil@palaisdetokyo.com

팔레 드 도쿄(Palais de Tokyo)가 4월 10일까지 시네아티스트 아모스 기타이(Amos Gitai)의 〈흔적(Traces)〉전을 개최한다. 에펠탑 근방의 센 강변에 자리 잡은 이 전시장은 현대 미술관으로, 한때 최전방에 섰던 모더니즘 걸작부터 신진 작가들의 참신한 작품까지 망라하는 다양한 전시를 기획한다.

아모스 기타이는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의 문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을 비롯한 정치, 사회 논란에 대해 영상 매체를 통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좌파 지식인이다. 이번 설치전은 팔레 드 도쿄가 전시공간으로 새롭게 단장 중인 지하실에서 열리는데, 어둡고 거대한 공사장이 만드는 독특한 공간성과 영상 작품이 어우러지며 강렬한 의미를 만든다.

우리는 역사를 다시 말해야 하고 기억은 다음 세대로 전수되어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 쇼아(히브리어로 '절멸', 나치에

의한 유대인 대학살을 뜻함)와 같은 역사의 과오에 대해 이야기하는 일은 때로 새로운 전략을 요구한다. 반복되는 반성과 넘치는 논의 속에서 중심 사안은 자칫 공허한 단어의 나열이나 감수성을 무디게 하는 단순한 메시지가 될 위험에 처하기 때문이다. '사건을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의 질문에 마주해 새로운 방법론을 탐구하는 것이 예술이 짊어진 과업이라면 아모스 기타이는 이번 전시를 통해 적극적으로 이에 답하고 있다.

〈흔적〉전의 전시장으로 쓰이는 팔레 드 도쿄의 지하실은 제2차 세계대전 중 파리가 나치에 의해 점령당했을 때 유대인에게서 갈취한 예술품 등의 재산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되었던 '기억을 간직한 장소'이다. 역사와 현재가 부딪히는 이 공간의 무너져 내리는 벽면 위로 아우슈비츠(Auschwitz)의 침묵을 담은 영상이 흐른다.

정체성과 영토, 망명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아버지에게 보내는 자장가(Lullaby to my father)〉는 바우하우스(Bauhaus) 출신 건축가였으나 나치에 의해 고문당하고 나라 밖으로 추방되어 이스라엘에 정착했던 감독의 아버지에게 헌정하는 작품이다. 현재 촬영 중인 영화의 부분을 발췌해 상영하는 이 작품을 비롯하여 개인의 역사와 거대한 집합으로서의 시대사를 가로지르는 다양한 작품이 동시 영사된다. 선거 운동에 나선 무솔리니(Benito Mussolini)의 손녀에게 연호하는 군중의 외침소리 "수령의 이름으로" (Au Nom du Duce)가 유대인 전통 음악의 바이올린 연주와 뒤섞이며 유령처럼 울려 퍼지고, 격동하는 중동 지방의 다큐멘터리와 느린 곡조에 맞추어 왈츠를 추는 노부부의 이미지가 한 공간 안에서 얹힌다. 사건과 그 사건을 겪은 개인의 이야기가 집단 기억전수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나는 〈흔적〉전이 집단적 정신분석이라고 생각한다. 영화는 나의 세계이고 나는 영화를 통해서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한다. 아론 아펠펠트(Aharon Appelfeld)가 말한 대로 '홀로코스트의 마지막 증인이 사망함에 따라 기억은 오직 글쓰기와 영화, 그림과 같은 예술을 통해서만 전수 가능해졌다.'"

우리의 삶과 운명을 비인간화시키는 역사의 폭력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아모스 기타이의 전시는 이렇게 관객의 성찰을 이끌어내는 시청각적 체험을 제안한다.

London

이방인의 감성

An Englishman in New York:
Photographs by Jason Bell

일시 _ 4월 17일까지(월~수, 토~일 10:00~18:00,

목~금 10:00~21:00)

장소 _ National Portrait Gallery, Room 38 (A)

문의 _ +020 7306 0055

스타 사진작가 제이슨 벨(Jason Bell)이 소년이었던 시절, 런던 캄덴에 위치한 그의 집에는 뉴욕의 전경이 담긴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 뉴욕에 크게 매료되었던 소년은 사진 앞에 서서 '저곳이야말로 세계의 수도!'라고 중얼거리곤 했다고 한다. 그리고 2003년, 어느새 30대 중반의 유명 사진작가가 된 소년은 뉴욕 시내에 아파트를 장만하고 일 년의 절반은 런던에서, 나머지 절반은 그곳에서 보내기로 결심했다. <An Englishman in New York>전에 선보인 사진들은 그가 뉴욕에서 지내는 동안 만나게 된 12만여 명의 영국인에게서 받은 영감을 표현한 것이다. 이번 전시와 함께 출간된 동명의 책에서 벨은 이번 작품들은 뮤지션 스티브와 함께 센트럴 파크를 산책하면서, 배우 케이트 윈슬렛(Kate Winslet)의 루프 테라스에 서서 함께 차를 마시면서, 혹은 뉴욕 8번가를 달리는 영화 감독 스티븐 달드리(Stephen David Daldry)의 자전거를 멀리서 내려다보며 조금씩 완성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내셔널 포트레이트 갤러리에서 전시 중인 그의 작품 속에는 영화배우와 감독, 유명 화가와 학자뿐 아니라 영국인 택시 운전사, 영국 출신의 뉴욕 경찰과 공사장 인부 등 다양한 인간 군상의 모습이 담겨 있다. 대중의 이목을 끄는 작품은 단연 배우 케이트 윈슬렛과 저명한 역사학자 사이먼 샤마(Simon Schama), 영화감독 스티븐 달드리, 뮤지션 스티브, 미국 <보그>지의 유럽 편집장 해미시 볼스(Hamish Bowles)의 사진이다. 생각에 골몰히 잠긴 케이트 윈슬렛의 눈빛이나, 지팡이를 들고 길가에 서서 고개를 치켜들고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는 해미시 볼스,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화가 빌 잭클린(Bill Jacqueline)의 심각한 표정, 'Tea and Sympathy'의 공



Hamish Bowles by Jason Bell. © Jason Bell

동 경영자 중 한 명인 니키 페리(Nicki Perry)의 반쯤 감긴 눈은 사실 그 자체로도 매우 드라마틱하다. 하지만 처음 이들의 사진을 신기하게 바라보던 관객들은 벨의 흑백사진 속 피사체가 된 이들이 '외로움'이나 '고독함'이라는 공통된 정서를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수많은 셀러브리티와 사회 저명 인사의 모습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전시회장 안이 황홀함 대신 묵직한 적막감에 둘러싸인 이유도 이 때문일지 모른다. 이는 어쩌면 일 년의 절반을 타향에서 보내고 있는 사진작가의 마음일 수도 있다. 혹은 '세계의 수도'에서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 모든 이의 마음속에 흐르고 있는 공통된 감성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벨의 이번 전시를 보고 나오는 발걸음은 어느 때와 달리 조금 무거울 수도 있다. 만약, 당신이 현재 이방인으로 어딘가에 정착하려 한다면 더더욱.

글 **손주연** <한겨레> <씨네21> 기자로 활동했다. 데미안 허스트(Damien Hirst)가 얼마나 유명한지 확인하고 싶어 런던 골드스미스 대학에 입학했으나, 영화비평을 전공하면서 데미안 허스트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됐다.



1



2

- 1 누비아 사람의 두상 유약을 입힌 도자기, 케르마 지역에서 출토, 기원전 1700~1550 © 보스턴 순수 미술 박물관 2011
- 2 색칠 장식된 소의 두골 소의 두골은 후대 문명에서 장식으로 많이 쓰이는 상징적인 문양이기도 하다. 소뿔, 코잠 지역 출토, 기원전 1700~1550 © 보스턴 순수 미술 박물관 2011

New York

고대 왕국 누비아의 비밀

Nubia: Ancient Kingdoms of Africa

일시 _ 3월 11일~ 6월 12일

장소 _ New York University ISAW (Institute of the Study of the Ancient World)
15 East 84 St. New York, NY 10028

문의 _ www.nyu.edu/isaw

● 항상 크고 작은 전시로 넘치는 뉴욕에서는 전시가 있는 지역이나 전시가 열리는 공간으로 전시의 성격이나 분위기를 짐작해볼 만하다. 차분하고 클래식한 취향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어퍼 이스트 사이드의 학교에 딸린 박물관에서 열리는 전시라면 진지하고 학구적인 분위기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2006

년 세워진 뉴욕대 부속 고대 문화 연구소인 ISAW에서는 종종 고대 문화와 관련한 전시를 마련하곤 하는데 3월 11일부터 6월 12일까지 아프리카 고대 왕국 중 하나인 누비아에 관련된 전시를 한다.

누비아는 현재 이집트 남부의 나일강 유역과 아프리카 수단 북부에 위치했던 왕국이다. 나일강을 젖줄 삼아 꽃핀 문명 중의 하나로, 얼핏 보아 이집트 비슷하지만 이집트와는 또 다른 문화를 가진 지역으로 하나의 독립된 왕국이었다. 전시된 유물에 표현된 당대 사람들 모습만 보아도 곱슬머리에 검은 피부를 가졌음을 알 수 있다. 전시 공간은 넓지 않지만 널리 알려지지 않은, 하지만 알려질 가치가 충분한 고대 왕국 누비아의 탄생과 몰락의 2,500년 역사를 짚어볼 수 있다. 누비아는 기원전 3000년부터 기원전 750년 이집트 왕국이 전 지역을 점령할 때까지 존재했다. 유물을 보면 누비아의 문화가 이집트 문화와 많은 영향을 주고받았음을 한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전시를 기획한 ISAW의 제니퍼 치(Jennifer Chi) 박사는 고대 누비아와 이집트는 무역 파트너로 공생의 동반자인 동시에 강력한 적이었다기 때문에 두 국가의 관계를 따로 떼어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한다. 공예, 장례, 종교, 전쟁 등에 관련한 유물로 누비아의 역사와 문화를 다각도로 짚어볼 수 있다. 장식품이나 장신구, 세련된 무늬의 토기, 섬세한 금귀속, 유려한 돌 조각 등이 요즘 사용해도 손색없을 만큼 뛰어나 누비아라는 고대 국가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라울로 모홀리나기 <구성>. © 베를린 신국립미술관



현대미술 클래식의 향연

모던 타임스: 컬렉션 1900-1945

일시 _ 3월 11일~10월 3일
장소 _ 신국립미술관
문의 _ 49 30) 266 42 42 42

베를린 신국립미술관에서 열리는 <모던 타임스, 컬렉션 1900-1945>는 20세기 전반의 회화와 조각 등 주요 미술작품을 선보인다. 에드바르트 뭉크(Edvard Munch), 오스카 코코슈카(Oskar Kokoschka), 게오르크 그로스(George Grosz)의 표현주의 작가의 작품을 필두로 다다, 신즉물주의, 바우하우스, 초현실주의, 입체주의 등의 다양한 미술사조의 작품을 전시해놓았다. 작품은 시대별로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고 작가별, 주제별, 시대별, 사조별 다양한 카테고리 분류였다.

에드바르트 뭉크가 베를린 소극장을 위해 그렸던 기념비적 <프리스(1906/1907)>, 1920년대 베를린의 도회적 삶을 그린 에른스트 루트비히 키르히너(Ernst Ludwig Kirchner)의 <포츠다머 플라츠(1914)>, 페르디낭 레제(Ferdinand Leger)의 <두 자매(1935)> 등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특히 독일 현대 미술에서 바우하우스도 빼놓을 수 없다.

변혁의 시대였던 20세기 초·중반 정치적 사건을 테마로 모아놓은 섹션에는 바이마르 시대를 풍자한 게오르크 그로스, 오토 딕스(Otto Dix)의 표현주의 작품도 인상적이다. 또 베를린의 역동적 모습을 담은 발터 루트만(Walter Ruttmann)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베를린, 대도시 심포니(1927)>, 찰리 채플린(Charles Chaplin)의 <모던 타임스>도 상영하며 당시의 사회상을 보여준다. 마케(August Macke),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의 청기사파, 피카소(Pablo Picasso), 브라크(Georges Braque) 입체파 회화, 나치와 홀로코스트를 기억하는 작품, 사회주의 이상향을 그린 작품 등 20세 중반까지의 사조와 역사를 종합 정리해볼 수 있는 전시다.

글. 한주연 9년 전부터 베를린에서 자유기고가로 살면서, 글쓰기와 한글교육을 업으로 삼고 있다.



미술관 내부에서 조형쇼 등의 이벤트가 열리고 있다.



뮤지엄에서의 신나는 하룻밤

뮤지엄의 긴 밤 Lange Nacht der Museen

일시 _ 4월 9일 19:00~4월 10일 02:00
문의 _ www.lange-nacht.de

'뮤지엄의 긴 밤'은 도시 전체의 뮤지엄을 밤 늦게까지 개방해, 문화와 함께 밤을 새우는 날이다. 1997년 베를린에서 처음 시작된 이후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독일뿐 아니라 유럽 주요도시로 퍼져나가며 매년 급성장하고 있다. 현재 유럽 여러 나라 120여 개 도시에서 '뮤지엄의 긴 밤'이 열리고 있다.

올해 슈투트가르트의 '뮤지엄의 긴 밤'에는 90여 개의 뮤지엄, 갤러리, 아틀리에, 문화 관련 연구소 등이 참여한다. 관람객은 15유로짜리 자유이용권 하나로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모든 곳에 자유롭게 입장할 수 있다. 행사가 끝나는 시간까지 참여 뮤지엄을 대부분 연결하는 특별 버스가 편성되기 때문에 버스만 타고 돌아다니는 것도 이색적인 체험이 될 것이다. 총 10개 노선이 10~20분에 한 대씩 운행된다.

티켓을 구입할 때 주는 두툽한 가이드북에는 주제별 '뮤지엄 루트'와 행사 내용이 자세히 소개된다. 동서남북별로 노선이 하나씩 있고, 이 외에 네 카 강을 따라 마련된 노선 등 지역권으로 이름 붙인 노선이 대부분이다. 슈투트가르트의 특산물인 와인을 주제로 와인 뮤지엄과 와인 켈러 등을 둘러볼 수 있는 와인 노선도 있다.

이 행사는 단순히 뮤지엄 개방 시간만 밤까지 늘린 것이 아니다. 라이브 공연, 디제잉과 댄스파티, 퍼포먼스, 영상 상영, 특별 투어 등 이날만을 위한 이벤트가 마련된다. 특히 뮤지엄 10곳에서는 어린이만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행사 개방 시간보다 이른 오후 5시부터 시작한다. 연령에 상관없이 다양한 층의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슈투트가르트 '뮤지엄의 긴 밤'에 하루 동안 다녀간 관람객은 2만 8,000명이다.

글. 백소용 일간지 기자 생활을 하다가 독일에서 공부하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한국에 생소한 독일의 문화 콘텐츠를 여러 경로를 통해 알고 있다.

Tokyo

초현실, 현실 이상의 현실

〈쉬르리얼리즘-파리 퐁피두 센터 소장품〉

일시 _ 5월 9일까지

장소 _ 국립신미술관

문의 _ +81 3 5777 8600

● 잠들면서 뉴질랜드의 캔터베리TV 건물 어딘가를 상상하기는 했다. 지진으로 무너졌다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건물의 깊은 곳에 다다랐을 때 의식이 있는 채로 아직 구조되지 못한 이들이 있을까봐 숨죽였다. 그리고 불현듯 그날 밤 꿈을 기억해낸 것은 국립신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쉬르리얼리즘〉전의 어느 한 장의 사진 앞에서였다. 헤르베르트 바이어(Herbert Bayer)의 셀프 포트레이트. 거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는데 중간이 똑 잘려나간 자신의 팔을 놀란 얼굴로 바라보고 있다. 더 경악할 만한 일은 거드랑이에서 팔 사이에 있어야 할 살덩어리가 자신의 왼손에 들려 있다는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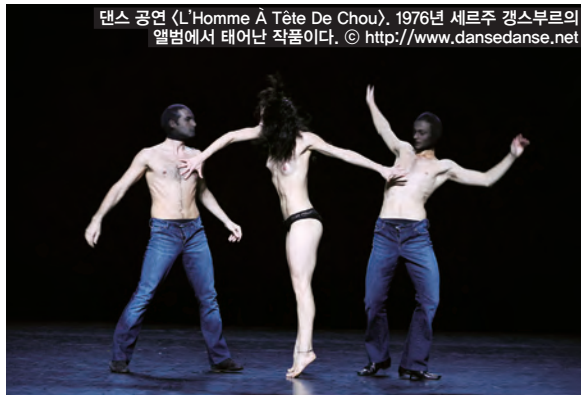
‘의식’, ‘이성’, ‘유용성’보다 ‘무의식’, ‘비이성’, ‘꿈’, ‘상상력’이 더 중시되었던 초현실주의의 작품이 모여 있는 전시장이니 이런 비현실적인 화면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관객이 많을지도 모르겠다. 얼굴에 달려 있는 줄 알았던 여자의 눈, 코, 입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유방과 배꼽, 성기로 변해버리거나(르네 마그리트 René Magritte) 한 장의 종이를 접어 여러 사람이 그림을 이어 그린 탓에 유방과 엉덩이가 같은 방향을 향한 여자가 뒤통지러기도 한다. 하지만 그 전날 꿈속이지만 무너진 건물에서 잘려나간 몸의 일부를 찾아 돌아다녔던 나는 헤르베르트 바이어의 작품 앞에서 잠시 움직이지 못했다.

초현실주의에 참가했던 작가들은 인간의 이성에 대한 불신이 지대했다. 이성을 믿고 세상을 발전시켰더니 고작 제1차 세계대전 같은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버렸다는 것. 실은 우리가 아는 현실에는 120명이 묻혔을지도 모른다는 뉴질랜드의 한 건물이나, 수많은 사람이 병기가 되어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전쟁 같은 비현실적인 일이 수없이 많다. 매일 아침 일어



회화, 조각, 오브제, 소묘, 사진, 영화 등 퐁피두센터 소장작품 170여 점으로 초현실주의의 전모를 보여주는 전시 구성.

나 출근시간을 걱정하고 밥을 먹고 잠을 자다 보면 건물 속에 묻혀버리거나 오른쪽 손목이 달아나는 일은 한없이 비현실에 가까울지도 모른다. 우리 주변에는 늘 누구나 잘 살 수 있다고 선전하는 세상, 발전과 진보, 풍요만 가득한 미래상이 넘쳐나기에 오히려 꿈에 가까운, 잔혹한 현실이 펼쳐진 전시장에서 ‘진짜(진실)’를 느끼는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겠다. 초현실주의 작품은 ‘초현실’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현실과 동떨어진 세상을 그린 것으로 여겨지곤 하지만 그들의 초현실이란 비현실이라기보다 오히려 ‘강도 높은 현실’ ‘상위의 현실’ ‘현실 이상의 현실’이었던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Montreal 무대로 올라온 갱스부르 스타일

L'Homme À Tête De Chou

일시 _ 3월 4~5일, 10~13일

장소 _ Théâtre Maisonneuve of Place des Ar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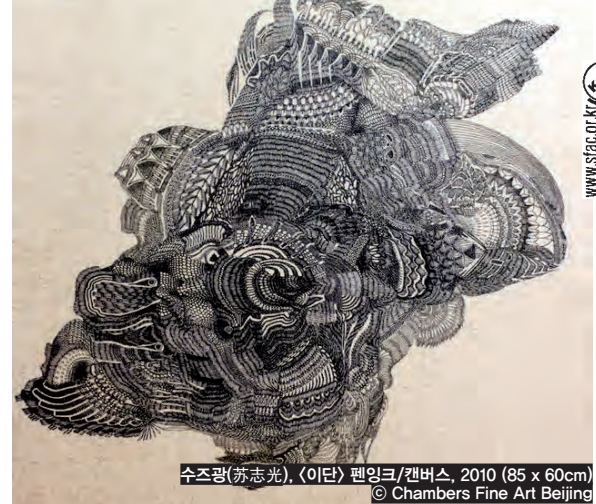
문의 _ +1 866 842 2112 www.pda.qc.ca (티켓 문의)/
www.dansedanse.net (공연단)

프랑스의 보수적인 음악사에 획기적인 반향을 일으켰던 세르주 갱스부르의(Serge Gainsbourg) 'L'Homme À Tête De Chou'(배추머리를 가진 남자)를 몬트리올의 'Danse Danse' 공연단에서 무대에 올렸다. 가수, 작곡가 그리고 배우인 알랭 바쑥(Alain Bashung)에 의해 다시 태어난 이 공연은 사람들의 안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다.

총 12장으로 구성되었고, 14명의 무용수가 함께 펼치는 무대는 웅장하고 에너지가 넘친다. 반은 인간이고 반은 채소인, 배추머리를 가진 남자. 매춘부 혹은 소녀 마릴루를 사랑하게 된 이 남자는 결국 질투심에 사로잡혀 그녀를 살해하고 만다. 각 장마다 출연하는 7명의 여성 댄서는 마릴루가 되고 7명의 남자는 배추머리의 남자가 되어 어둡고 관능적인 장면을 관객이 효과적으로 느낄 수 있게 했고, 흐느적거리는 음악과 에로틱한 무용수들의 몸짓을 통해 갱스부르가 말하고자 하는 인간 본래의 욕망을 잘 표현했다.

소품도 큰 역할을 한다. 첫 장부터 나오는 사무실용 바퀴 달린 의자에 극중의 무용수가 앉아 미끄러지며 큰 무대를 누비는데,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의자에서 일상의 이야기기를 암시한다. 또한 마지막에 살해 도구로 사용되는 소화기는 붉은 물체로 관객의 머릿속에 상징적으로 남는다. 새로운 시도와 논쟁을 끊임없이 했었던 대중음악계의 이단아 갱스부르와 현대무용의 장인 갈로타(Gallotta), 그리고 프랑스 음악계의 대부 바쑥, 이 세 명의 조화가 이뤄낸 이번 공연은 댄스와 음악이 이뤄내는 큰 에너지와 열정을 이곳 몬트리올 사람들에게 전해준 작품으로 남게 될 것이다.

글_ 김선정 2009년 몬트리올에 처음 왔고, 현재 Cegep de St-Laurent에서 파인 아트를 공부하는 미술학도이다.



www.sfac.or.kr
서울문화재단

Beijing 영 아티스트의 날마다 새로운 에너지

창신(創新) Make it new

일시 _ 4월 16일까지

장소 _ Chambers Fine Art

문의 _ 86 10 5127 3296 www.chambersfineart.com

미국 시인 에즈라 파운드(Ezra Pound)의 대표작에서 따온 이 전시는 제 목 그대로 젊은 작가들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예술을 선보인다. 에즈라 파운드는 은나라 탕왕이 쟁반에 새겨두었던 '하루를 새롭게, 매일 새롭게, 또 새롭게'(苟日新, 日日新, 又日新)라는 글귀에서 시의 영감을 얻었다고 밝힌 바 있다. 미마이(米麦), 수즈광(苏志光), 양파웨이(杨太慰), 예푸나(叶甫纳), 쟁양(曾扬), 장둔(张盾), 주창하이(朱昌海) 등 7명의 작가는 다양한 소재를 이용해 에즈라 파운드와 은나라 탕왕의 정신을 현대에 살려냈다.

1986년생으로 7명 중 가장 젊은 작가인 예푸나(叶甫纳)는 현대사진기술을 이용해 오래된 구식 사진의 형식을 현대식으로 유머러스하게 표현해냈다. 예푸나(叶甫纳)의 가족앨범 시리즈 속에서 60년대 모습으로 포즈를 취한 현대 모델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당시로 돌아간 듯한 느낌과 함께 그 촌스러움과 진지함에 쿡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기가 힘들다.

장둔(张盾)은 연필 한 자루로 관객을 감동시키는 작가다. 버려진 공장 과 철도 작품은 연필 소묘로 보기엔 너무나 자세하고 커서 곰곰이 들여다 보면 연필의 흔적을 찾게 만드는 작품이다. 중앙미술학원 실험예술과 학생인 수즈광(苏志光)은 실험예술과 학생답게 캔버스에 수묵화로 '이단'을 그려냈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캔버스와 수묵화의 만남은 이단적이면서도 새로운 느낌을 준다. 중국현대미술계를 이끌어 나갈 신진 작가들의 이번 전시는 다양한 작가와 작품을 한곳에서 만날 수 있어 중국현대미술의 이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글_ 손하나 2006년 중국에서 청동기 시대 무덤을 주제로 고고학 석사를 받은 뒤 놀러 살고 있다. 현재는 컴퓨터 시스템 관련 일을 하고 있으며 Art와 IT를 사랑하는 코즈모폴리탄.



Izit in 「문화+서울」 독자사진전

Seoul

●
활기 속으로 _ 덕수궁

김성란
출퇴근을 하며 항상 지나치는 곳이지만
오늘은 따로 시간을 냈다. 교대식을
구경하는 사람들로 시끌벅적한 덕수궁.
이 활기찬 기운이 나의 주말을 풍요롭게
한다. 공간이 내 시간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이런 의미다.

나만 아는 서울 고궁의 매력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서울의 고궁.
 멈춰진 시간을 느끼고 싶을 때 우리는 그곳을 찾는다.
 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만 같아서.
 발길이 머문 그곳, 그 시간들.



● 깊은 서울 _ 창덕궁

하성우

홀로 창덕궁을 찾았다. 고즈넉한 고궁에서
 흙을 밟으며 서울을 깊이 느껴본다.
 백년 전의 숨결이 전해지는 것 같다.



11번째 서울시창작공간, 홍은예술창작센터 4월 개관

몸과 자연의 상생을 추구하는 예술 커뮤니티

오는 4월, 서대문구 홍은동 백련산 자락에 홍은예술창작센터가 문을 연다. 서울시창작공간으로 11번째 공간이다. 무용과 친환경 예술을 중심으로 한 창작공간이자 지역문화 공동체와 소통하는 문화공간이 그 역할이다. 몸과 자연, 공동체라는 오브제를 통해 장르와 공간을 넘어선 융복합 문화예술을 꿈꾸는 곳, 홍은예술창작센터를 미리 만나본다.

서울의 서북쪽 지역에 푸르게 중심을 이루고 있는 백련산, 그 남쪽 줄기에 자리 잡은 홍은예술창작센터는 주변의 각종 학교 시설과 주택가가 만들어내는 조용하면서도 역동적인 분위기와 어우러져 독특한 아우라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몇 년 전만 해도 이곳은 서부도로교통사업소가 자리해 대형 도로 보수와 장비들로 인한 소음과 먼지로 민원이 끊이지 않던 곳이다. 그러다 사업소가 상암동으로 청사를 옮기면서 유희시설로 전락하게 된 것을 리모델링 끝에 지금의 홍은예술창작센터로 거듭나게 됐다. 앞으로 홍은예술창작센터는 ‘예술로서 도시를 재생한다’는 서울시창작공간의 모토 그대로, 예술로서 지역과 사람, 그리고 도시를 조금씩 변화시켜나갈 것이다.

무용과 시각예술로 ‘융복합 예술창작센터’ 꿈꾼다

산을 등대고 하늘을 향해 길게 드러누운 형상의 2층짜리 건물과 넓은 잔디마당을 지닌 홍은예술창작센터는 주변 환경을 적극 고려한 ‘친환경 지향의 창작공간’이다. 자연으로서의 사람, 사람으로서의 자연이라는 순환을 고민하고, 예술창작과 재할



- 1 홍은예술창작센터 전경.
- 2 3월 7일 열린 입주예술가 공모사업설명회 모습.
- 3 인형제작 연극놀이 체험 프로그램 <쏜노인 풍당연>
- 4 홍은예술창작센터 내부.



용을 통해 그 상생의 해법을 찾아보자는 의도이다.

먼저 사람의 몸을 소재로 하는 무용가를 비롯한 공연예술가와 친환경을 소재로 하는 시각미술 예술가들에게 공간의 문을 열었다. 3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입주 예술가들은 무용(안무 포함), 사진, 영상, 설치미술, 디자인, 재활용(리폼)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로, 3개월에서 최대 9개월간 개인 스튜디오와 각종 공간 및 시설을 활용,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

대지 3538.73㎡(1,070평)에 건물 3,137㎡(950평)의 홍은예술창작센터는 무용전용 연습실 3개와 입주 예술가들을 위한 스튜디오 12실을 비롯해 아카이빙 카페, 회의실, 다목적실, 세미나실, 교육연습실 등의 실내 시설과 야외공연(전시)장, 테라스 등의 야외 시설을 갖추고 있어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은 물론이고 각종 발표도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현대예술이 '통섭'과 '소통'이라는 화두로 집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홍은예술창작센터는 공연예술과 시각예술이라는 장르 간의 융합(convergence)을 실험하고, 나아가 예술가와 주민 간의 협업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융복합 예술창작센터'라는 새로운 공간 형성의 방향을 제시해줄 것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시범 운영 프로그램 미리 만나자

홍은예술창작센터는 개관에 앞서 공간과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범 프로그램(파일럿 프로그램)을 3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4

홍은예술창작센터에서 만난 사람, 현대무용가 김남진 좋은 작품 준비하는 동지가 되기를

홍은예술창작센터가 개관을 앞두고 진행하는 시범 운영 프로그램을 통해 홍은예술창작센터를 맨 처음으로 활용하고 있는 현대무용가 김남진 씨(댄스시어터 창 대표)를 만났다. 그는 국립현대무용단의 안무가 베이스캠프로 선정된 4인(김남진, 정영두, 이태상, 최경실) 중 한 명으로,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홍은예술창작센터 무용 전용 연습실을 사용하고 있다. 다국적 무용수 5인으로 구성된 댄스시어터 창(倡)을 이끌고 그가 연습 중인 작품은 <동개> 실업자가 난무하는 오늘날의 힘든 현실을 얘기하는 사회성 짙은 작품으로, 4월 2일과 3일 이들 동안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에 오른다.

사실 김남진 씨는 1995년 프랑스 파리로 건너가 한국인 최초로 프랑스 국립현대무용단에 입단, 4년간 활동한 바 있고, 이어 벨기에 '세 드 라 베 무용단(Les Ballets C de la B)'에서 2006년까지 활동한 베테랑 무용수이다. 귀국 후에도 그는 환경문제를 다룬 <미친 백조의 노래>, 장애인에 삶과 사랑을 다룬 <브라더>, 노숙자 문제를 다룬 <스토리 오브 비>, 자살의 심각성을 그린 <햄릿>, 분단과 통일을 다룬 작품 <기다리는 사람들 I, II> 등 주로 사회의 어둠과 거친 부분을 몸으로 표현해내는 작품을 꾸준히 무대에 올리고 있다.

"단순한 감흥으로만 끝나는 공연이 아니라 관객에게 뭔가 진지한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작품을 하고 싶어요."

공연이 끝난 후에도 관객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무용의 대중화를 위해 다가가는 것이 그의 바람이라고 한다.

유럽은 이미 춤과 연극, 음악, 오페라, 영화 등 장르 간의 구분과 경계가 무너진 지 오래고, 무용과 생활과의 다원화, 복합소통을 추구하는 것이 대세인데 그런 의미에서 홍은예술창작센터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한다. 앞으로 홍은예술창작센터가 전문 무용수들의 사랑방이자 새로운 작품이 준비되는 동지로서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1

1 무용연습실에서 연습 중인 단원들.
2 기획전시 <숨, 쉬는 입체정원>.

기획전시로 친환경을 주제로 한 현대미술전시로 <숨, 쉬는 입체정원>(4.6~4.30)이 회화, 설치 등 젊은 작가들에 의해 공간 내외부에서 진행된다.

주민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쉽게 버려지는 생활용품을 활용하여 예쁘고 실용적인 생활용품을 만들어보는 <एको와 노닥노닥>이 'एको파티 메아리'의 지도로 3월 26일부터 4월 23일까지 5회에 걸쳐 진행된다. 에코센스 컵홀더와 덧소매 만들기, 에코릴라 만들기, 티슈 케이스 만들기, 손목받침대, 에코 핫팩 만들기 등 누구나 쉽게 참여하여 환경에 대해서 생각해볼 기회도 마련할 수 있다. 또 프리마켓 <재활용 에코마켓>이 4월 말 야외공간에서 열린다. 생활창작 아티스트의 작품 전시를 비롯해 물물교환 및 판매와 기부가 가능한 나눔 형식 프리마켓으로 진행된다.

한편 공연창작집단 뛰다와 함께 인형극 <송노인 풍당던>에 인형 제작과 연극놀이로 참가할 문화유목민을 찾는 프로그램이 3월 27일부터 4월 17일까지 일요일마다 4회에 걸쳐 진행된다. 일상의 공간을 축체형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도심축체형 인형극 프로젝트로, 국내외 예술가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주민협업 프로그램으로서 의미가 크다. <2011 하이스쿨 페스티벌>의 참가공연으로도 예정되어 있다.

무용연습실 기획대관으로는 국립현대무용단 안무가 베이스캠프로 선정된 4개 팀(김남진, 정영두, 이태상, 최경실)에게 3개 무용 연습실을 활용하게 해 전문 무용시설로서의 가능성을 점검해본다.



2

홍은예술창작센터 시범 프로그램 및 개관식 일정

구분	내용	기간
시범 프로그램 기획 전시	홍은예술창작센터의 미션과 예술적 방향을 제시하는 현대미술전시 <숨, 쉬는 입체정원>展 : 친환경을 주제로 회화, 설치 등 젊은 작가 3~5명으로 구성	4.6(수)~4.30(토)
시범 프로그램 재활용 워크숍	리폼 생활용품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 <एको와 노닥노닥> : 버려진 티셔츠로 컵홀더, 덧소매 등 생활 소품 제작	3.26(토), 4.2(토), 4.9(토), 4.16(토), 4.23(토) 총 5회
인형제작& 연극놀이 워크숍	인형제작을 통한 연극놀이 <송노인 풍당던> 체험 프로그램 : '하이스쿨페스티벌2011' 참가공연으로서, 무대 상연 전 홍은센터에서 사전 진행	3.27(일), 4.3(일), 4.10(일), 4.17(일) 총 4회 ※ '하이스쿨페스티벌2011' 공연 : 5.7(토)~10(화)
프리마켓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매개로 지역주민들이 만나 소통하는 프리마켓 <재활용 에코마켓>	4월 말
무용실 기획대관	국립현대무용단 등 전문 무용단체 기획대관을 통한 전문 무용시설로서의 가능성 실험 및 보완	3.2(수)~3.31(목)

Pianissimo!

Piano 랄프 고토니
리카코 무라타
엘빈 탄
빈센트 드 브리스
슈 중
파스칼 드박이웅
피어스 레인
필립 탑슨
강충모
김영호
서해경
신수정
안희숙
유영옥
이정숙
이대욱
조재혁
최희연
한동일

Fortepiano 엘빈 탄

Violin 디미트리 홀
엘리나 베렐레
강동석
김현아
백익환
백주영
손인경
양고은
이경선
클러라 주미 강

Viola 이리나 모코조바
홍 웨이 황
김상진
최은식

Cello 에드워드 아론
줄리엔 스마일즈
지안 왕
송영훈
양성원
이강호
조영창

Double Bass 이창형

Flute 윤해리
이해경

Oboe 이운정

Clarinet 로망 귀요
채재일

Bassoon 로렐 르뤼브레

Horn 정종진

Trumpet 로망 클루

Voice 김소현

Group 트리오 아보다
골드너 콰르텟 멤버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

Conductor 랄프 고토니

Ballet 국립발레단

Composer 홍성지

해설 및 서회 손범수
진양혜
장일범



Seoul Spring Festival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OF CHAMBER MUSIC

2011년 5월 10일(화) ~ 5월 22일(일), 13일간

“건반 악기의 재발견” 피아니시모!

세계 최정상급의 음악가들과 함께하는 실내악 향연



하이서울페스티벌 2011
HISEOULFESTIVAL



주최 (재)서울문화재단,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조직위원회 주관 (사)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집행위원회 공식협력 호암아트홀 장소 세종체임버홀, 예술의전당, 호암아트홀, 덕수궁 플로팅아일랜드 외
문의 02-712-4879 www.seoulspring.org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 티켓링크 1588-7890 / 클럽 빌코니 1577-5266 / SAC티켓 580-1300 / 맥스티켓 1544-0113 / 옥션티켓 1566-1369 *SAC티켓, 맥스티켓, 옥션티켓은 예술의전당 공연만 가능

협찬 Haaatz d 문화문화재단 Samsung SMART TV TOYOTA 알신문화재단 법무법인 바른 monami 삼성생명 SAMSUNG 신세계 J & A Beare Ltd. YAMAHA





〈장석조네 사람들〉

남산의 봄을 맞으며

이달의 예술평론 - 2nd 대학로 우수작품 인큐베이팅 프로젝트, 〈장석조네 사람들〉 〈특급호텔〉 〈상사몽〉



〈장석조네 사람들〉

글을 쓸 무렵, 일본 동부에 쓰나미가 덮쳤다는 보도를 접했다. 일본에 사는 지인들에 대한 걱정으로 시청했던 뉴스 보도는 이후 조금 큰 주제로 나를 이동시켰다. 저 거대한 파괴 앞에서 인간의 삶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파괴시킬지도 모를 재앙의 지반 위에서 사소한 이익을 얻기 위해 욕망하고 시기하고 반목하며 일상을 살아간다. 한 치 앞의 그 미망을 떠나, 보다 큰 본질과 만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나. 예술이 존재하는 한 이유가 그것일 것이다. 그러나 좋은 예술이 만들어지기 위해선 좋은 제도라는 토대가 필요하다.

지원제도가 많아졌지만 대부분 창작 초연 중심이다. 그러고 보니 우리는 새것을 꽤 좋아한다. 뉴 트렌드, 뉴 패션, 새로운 신인의 등장. 그러나 예술을 지원하는 제도마저 그런 식으로 흘러가면 완성도는 끝없이 떨어진다. 승패를 가늠할 수 없는 초연에 대한 지원은 때로 의미 없는 작품을 양산했고, 때론 가능성 있는 작품조차 초연의 시행착오를 거치며 실패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지켜보아야 했다. 다다이즘이 아닌 선택과 집중, 심사의 공정성,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 지원에 대한 요구가 지난 10년간 계속 제기되었던 데는 앞을 예측하기 힘든 초연 중심의 제도에도 일정 부분 원인이 있다. '서울 맞춤형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대학로 우수작품 인큐베이팅 프로젝트>는 그런 맥락에서 기존 제도의 미진함을 보완하는 장점이 있다. 이미 공연되었던 소극장 작품 중에서 가능성 있는 작품을 발굴하여 중극장 규모의 작품으로 발전시키려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가능성 있는 작품이 사멸되지 않고 보다 나은 여건 속에서 관객과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분명 좋은 일이다. 게다가 또 하나의 장점은 이 사업을 매개로 중극장 규모의 극장에 어울리는 공연이 마련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한국 연극계의 당면 과제가기도 하다. 미학적 완성도가 요구되는 중극장은 최근 몇 년간 꽤 보급되었는데, 그동안 소극장 중심으로 움직였던 한국 연극계가 그 간극을 극복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다.

지난 3년간 대학로에서 공연된 작품 중 세 편이 선정되었고, 서울에서 봄에 걸쳐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에서 공연되었다. 극단 '드림플레이'의 <장석조네 사람들(1/21-2/6)>, 극단 '초인'의 <특급호텔(2/25-3/6)>, 극단 '여행자'의 <상사몽(3/12-20)>. 선정된 극단에게도 긍정적인 일이지만, 창작극 중심의 공연을 운영하면서 극장의 정체성 찾기에 골몰했던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로서도 자신의 입지를 보다 굳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다행히 세 편 모두 관객이 많았고 호응도 좋았다. 개관 이후의 고군분투 속에서 극장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졌고, 우수성이 검증된 작품을 만나고 싶은 관객의 욕망도 충족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세 편의 여정을 따라가자니 몇 가지 의구심이 들기도 했

극장이 가진 저마다의 개성에 대한 고민과 이를 효과적으로 구축할 만한 전문적인 스태프 확보된다면, 평범한 프로시니엄 중극장과는 다른 특별한 중극장용 무대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내년을 기약한다.

다. 제시한 기준과 달리 중극장에서 초연되었던 작품이 선정작에 포함된 연유는 무엇일까, 소장 연극인 중심의 작품만 선정하는 이 제도를 자칫 소장 연극인들의 육성정책 정도로 자리매김하게 하지는 않을까, 그를 방지하기 위해 소극장 공연이 중극장으로 변모하는 데 필요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은 진행되었는가 등등. '대학로 우수작품 인큐베이팅 프로젝트'는 올해로 시행 2년째다. 제도가 튼튼해지기 위해서 소소히 꾸려야 할 집과 가야 할 행보가 많을 것이다.

구분 없는 뒤섞임과 난장의 미학

<장석조네 사람들>은 작고한 김소진의 동명 소설을 극화한 것이다. 작품을 제작한 극단 '드림플레이'는 1970년대 미아리촌을 배경 삼아, 한 집에 다가구로 모여 살던 도시빈민의 삶을 에피소드 구성으로 느슨하게 엮었다. 덕분에 무대에는 함경도 피난민부터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인물들의 고달픈 서울살이가 그려지고 각종 사투리와 기지촌 양공주의 애인인 미군 병사의 영어까지 추가되며, 화투판에서 술판에 이르는 웃음과 욕설이 출렁거린다.

이런 구분 없는 뒤섞임과 난장이 <장석조네 사람들>의 기본 미학이다. 그리하여 장석조네 마당에서는 내남없이 사람들이 포개지고 싸우며, 사투리와 표준말이 뒤섞이고, 미추의 구분도 사라져 수돗가와 뚝간이 공존하고 사람과 오리새끼가 모두 가족인 것이다. 심지어 주인공과 조연의 구분도 없고 기승전결도 없으며, 연극의 마지막 장면에선 막걸리잔을 돌리며 무대와 객석의 경계마저 뒤섞어버린다. 다소 산만한 그 난장의 무대는 개인주의와 자아의 과잉에 허덕이는 현대인의 고립감을 무장 해제시키며, 촌스럽던 우리의 기원에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했다.

2009년 혜화동일번지소극장에서 초연되었던 <장석조네 사람들>은 이번 공연에서는 에피소드를 다소 간추렸는데 외형적으로는 규모가 커졌다. 가장 큰 변화는 공간인데, 협소한 소극장에서 간단한 소도구로 신출귀몰하게 다양한 삶을 보여주었던 과거의 역동성 대신 다가구의 삶을 넓은 무대에 병풍처럼 펼쳐놓아 총체성과 여백을 경험하게 해주었다. 그러나 초연부터 지적되었던 에피소드의 산만한 전개는 비록 그것이 난장을 연출하려는 의도라 하더라도, 공연의 전반부에 관객을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인터미션을 빼고도 세 시간에 달하는 긴 공연 시간을 감안한다면 작품



의 구조는 한번 더 정련의 과정을 가져야 할 것이다.

〈특급호텔〉은 미국 작가 라본느 뮐러(Lavonne Mueller)가 쓰고 극단 '초인'이 제작했다. 국내 극단으로선 드물게 위안부에 대해 다루었는데 2009년 서울연극제 참가작이며 아르헨티나에서 초청받아 호평을 받은 작품이기도 하다. 사실 위안부 문제는 그동안 여성의 성과 몸을 금기시하는 가부장적 시각과 고통의 크기 때문에 한국 연극계에서 자주 공연되지 않았고, 설령 만들어 지더라도 예술적 거리감을 확보하기가 힘든 영역이었다.

반면 라본느 뮐러는 여성의 입장에서 위안부의 문제를 조명하면서, 국가 간의 역사적 갈등이라는 통념적 구도 대신 전쟁의 폭력성과 희생당하는 여성을 대비시켰다. 또 직접성에 압도되지 않도록 다큐멘터리적 접근과 시적인 대사를 병치하여 위안부 문제에 대한 보편적 공감과 거리감이라는 완충지대를 마련해주었다. 여기에 '초인'은 골격만 남긴 무대와 고립감을 강조하는 어둠 속에서 배우들의 절제된 연기력으로 〈특급호텔〉을 시적인 무대로 형상화하는 데 성공했다.

문제는 이번 공연이다. 초연과 다르게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이 작용한 탓인지, 관객석으로 돌출된 무대와 남성 코러스를 사용하는 등 연극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시도가 추가되면서, 초연의

가장 큰 장점이었던 절제력과 거리감이 휘발되고 말았다. 더구나 객석이 무대를 반원형식으로 감싼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는 그 크기에도 불구하고 무대와 객석 사이에 모종의 근접성이 존재한다. 객석으로 돌출된 거대한 무대는 그 근접성을 부담스러울 정도로 확장하지 않았다. 작품의 미학과 공간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재고하기 바란다.

미학과 공간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다

〈장석조네 사람들〉과 〈특급호텔〉이 현재의 베일을 걷고 기원, 상처, 역사와 만나게 해주는 작품이라면 극단 여행자의 〈상사몽〉은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해 다룬 작품이다. 조선시대의 〈운영전〉을 재구성한 〈상사몽〉은 안평대군의 휘에서 글공부를 하던 소녀 운영과 한 선비의 비극적인 사랑을 다루었다. 그리고 보니 극단 '여행자'의 작품 중에는 사랑을 소재로 한 작품이 유난히 많다. 극단의 초기작인 〈로미오와 줄리엣〉을 필두로 〈한여름 밤의 꿈〉 〈미실〉을 거쳐 최근의 〈페르귄트〉에 이르기까지, 동서를 넘나드는 사랑과 연극적인 무대가 극단 여행자의 중심 테마인 듯하다.

작품을 쓰고 연출한 양정웅은 중극장 규모의 무대에서 작업한



〈상사몽〉

경험이 많아서, 이번에도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의 위용에 휘둘림 없이 단아한 무대를 구축했다. 가령 비단 두루마리 형태의 텅 빈 무대(무대미술 이윤수), 초연 당시의 모던한 의상 대신 한국적인 의상과 생음악을 가미해 〈상사몽〉에 운치 있는 격조를 부여했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 그 운치는 시를 통해 부각되었다. 사랑의 소네트처럼 시란 산문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정서를 가장 함축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다. 〈상사몽〉에서 사랑에 애틋한 등장인물들은 시를 지었고, 그 시는 뒷무대에 영상되었으며 앞무대의 모랫바닥에 직접 쓰기도 하고, 두루마리를 닮은 흘러내릴 듯한 무대 역시 시를 쓰던 비단 두루마리와 닮았다. 이런 일관된 콘셉트를 통해 양정웅은 〈상사몽〉과 자신의 연극이, 산문의 삶이 아닌 시적 감정과 형식에 헌신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그러나 고양된 시적 형식과 사랑의 감정이란 그 반대축, 지루한 삶과 산문이 존재하기에 비로소 빛나는 법이다. 〈페르균티〉처럼 예외적인 작품도 물론 존재하지만, 양정웅과 극단 '여행자'의 작품은 자주 그 대비를 놓친다. 이번 공연 역시 비단 보자기처럼

고왔으나, 가문의 대립은 빠지고 사랑만 남은 〈로미오와 줄리엣〉을 보듯 힘이 없었다. 형식적으로 정제되었지만 때로 여행자의 연극이 왜 공허하다는 평가를 받는지 고민해볼 지점이다.

무대라는 특별한 공간성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는 넓고 깊다. 언젠가 그 무대를 혼자 걸어본 기억이 있다. 가로로도 걸어보고 세로로도 걸어보았다. 몇 걸음만 걸어도 벽에 부딪히던 대학로의 소극장하곤 달라서, 소극장에 익숙한 연출과 배우라면 자신들의 에너지가 객석에 당도할 수 있을지 두려워할 것도 같다.

그러나 막상 객석에 앉아보면 이런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클로즈업된 무대를 보듯 전체 무대가 살살이 파악되고, 객석이 둥그렇게 무대를 감싼 특별한 공간성이 집중감을 확장하곤 했다. 극장이 가진 저마다의 개성에 대한 고민과 이를 효과적으로 구축할 만한 전문적인 스태프 확보된다면, 평범한 프로시니엄 중극장과는 다른 특별한 중극장용 무대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내년을 기약한다.

Cultural Calendar

4 월 의 재 단 소 식

04



책 읽는 서울, '책 음악과 만나다'



책 읽는 서울, '책 영화와 만나다'



대학로연극투어

구분	사업	장소	일시	문의
공연창작활성화지원사업				
연극	푸르가토리움, 하늘이 보이는 감옥(獄)	국립극장 별오름	4/2~4/17	명품극단 02-3673-2003
	셰익스피어, 여정(呂裝)을 하다	선돌극장	4/5~5/15	연출집단여고 010-9242-6844
	헨리6세 제1부(King Henry VI, Part 1)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4/6~4/17	유라시아셰익스피어극단 016-360-1112
	2011 재주 많은 다섯 친구	한양 레퍼토리 씨어터	4/15~5/15	극단북새통 010-9171-9840
	영국 왕 엘리자베스(Elizabeth Rex)	설치극장 정미소	4/18~5/1	연극집단위토소 010-8845-3821
	샘플 054씨 외 3인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4/25~5/2	극단동 010-3157-6925
	노래가 있는 연극, 미드섬머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4/26~6/12	(주)오디뮤지컬컴퍼니 02-556-8556
	교수형	정보 소극장	4/28~5/22	극단풍경 010-4307-6378
	어른들을 위한 동화 '夢'	국립극장 별오름	4/29~5/7	예술무대산 010-3716-4673
	춤으로 듣는 노래, 노래로 보는 춤-심청	아르고 예술극장 대극장	4/8~4/10	(사)창무예술원 010-6252-6407
무용	25주년 현대춤 작가 12인전 명작전	아르고 예술극장 대극장	4/12~4/16	한국현대춤협회 02-2220-1338
	디지털 본풀이 II-신화 뒤틀기, 麻故	서강대 메리홀	4/15~4/16	윤혜정 010-3744-0649
	제25회 한국무용제전	아르고 예술극장 대극장, 소극장	4/18~4/25	(사)한국무용연구회 02-593-4761
	BJ Dance Group 2011	국립국악원 예악당	4/27	BJ Dance Group 010-4927-6711
	신작공연 作品 短想			
음악	Pianist 한기아 Recita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4/2	노창영 02-2231-9001
	창단10주년 연주회 - 거장들의 부활	대한성공회 주교좌 대성당	4/7	고(古)양상불타펠무지크 02-587-7457
	미국 근현대음악 연구 및 그 영향	호암아트홀	4/13	창형준 010-3811-8465
	서울시티챔버오케스트라	호암아트홀	4/26	서울시티챔버오케스트라 02-780-5054
	푸른 지구를 위한 음악회			
	창악회 창립53주년 발표회	금호아트홀,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4/26~4/27	창악회 02-920-7527
	칸타타 담파다 II	KBS홀	4/29	나르바나필하모닉 오케스트라 010-4399-5235

시각창작활성화-기획 프로젝트지원사업				
시각예술	임승천 개인전	공간사옥 내	3/16~5/1	임승천 031-378-1430
	헨켈이노아트프로젝트	대안공간 루프	3/10~5/4	대안공간 루프 02-3141-1075
	〈허진〉展	성곡미술관	3/25~4/24	허진 02-6251-1982
	오용석 개인전 - Two	금호미술관	4/1~4/24	오용석 070-7526-4273
	Project on the Track	쿤스트독 갤러리	4/1~4/14	최종희 010-9538-3721
	피처링 시네마	코리아나미술관 스페이스 씨	4/7~5/31	코리아나 미술관 02-547-9177

다원창작활성화지원사업				
다원예술	김홍석 개인전, 사람특징적	서울 아트선재센터	4/9	스페이스 포 컨템포러리 아트센터 02-739-7068

시민축제지원사업				
축제	전국청소년 차문화전 및 차예절 경연대회	창경궁 일원	4/9	(사)한국차문화협회 02-719-7816~7
	제9회 신촌콘서트	신촌	4/9	(주)문화공간 얼티존 02-2275-0923

우수예술축제지원사업				
예술일반	해화동 1번지 5기 동인 페스티벌	연극실험실 해화동 1번지	4/7~6/26	해화동 1번지 5기 동인 02-742-6050

서울열린극장창동				
공연	연극 〈엄마를 부탁해〉	서울열린극장 창동	4/29~5/1	02-994-1469

남산예술센터				
공연	2011 시즌 프로그램 〈살〉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4/1~4/17	02-758-2150

서울연극센터				
프로그램	공연 〈사랑한데이〉	서울연극센터	4/22	02-743-9333
	대학로연극투어	서울연극센터	4/24 12:30	02-743-9333

서교예술실험센터				
기획전시	여섯 개의 밤들	1층 전시장	3/12~4/3	02-333-0246

구분	사업	장소	일시	문의
금천예술공장				
프로그램	2011 지역연계교육프로그램 〈아티스트 인 스쿨〉	이화여대 병설 미디어고등학교	3/31~4/14 매주 목요일(총 3회)	02-807-4135
신당창작아케이드				
전시	이윤철 개인전 〈time after time〉	아케이드 전시실	4/18~4/30	02-2232-8833
이벤트	봄맞이 이벤트 〈봄이 온 Day〉	신당창작아케이드	4/2	02-2232-8833
프로그램	무료체험공방 〈나도 예술가〉	아케이드 7호, 10호, 20호	2/19~5/7(매주 토)	02-2232-8833
입주작가	〈2011 공예+디자인 운동〉	아케이드 10호	4/6~6/1(매주 수)	02-2232-8833
창작지원	〈놀자, 호랑아〉	아케이드 20호	4/2~6/4(매주 토)	02-2232-8833
프로그램	〈신당 IN 일상재발견〉	아케이드 18호	4/9~6/11(매주 토)	02-2232-8833
	〈멘토링 프로그램〉	아케이드 19호	4/21~6/30(매주 목)	02-2232-8833
지역연계	〈프로젝트 I(아이)-소리, 얼굴〉	아케이드 10호	3/23~6/1(매주 수)	02-2232-8833
프로그램	〈배달 공방〉	신당초등학교	4/9~7/9(매주 둘째주 토)	02-2232-8833
프로그램	공공미술프로젝트 〈굴묵, 누빔〉	신당창작아케이드, 황학동 골목길	3/26~4/9(매주 토)	02-2232-8833

연희문화창작촌				
교육	'손택수 시인의 시창작교실'	세미나실(1동)	3/8~6/7(매주 화 19:00)	02-324-4690
	'김종광 소설가의 소설창작교실'	미디어랩(3동)	3/8~6/7(매주 화 19:00)	02-324-4690
	브런치 연희문학학교	미디어랩(3동)	3/8~6/7(매주 화 11:00)	02-324-4690
	탄생 100주년 문학인 기념문학제 문학의 밤	야외무대 '열림'	4/8(19:00)	02-313-1486
프로그램	목요낭독극장 〈불마중, 동시마중〉	야외무대 '열림'	4/28(19:30)	02-324-4600

문래예술공장				
공연	〈허기진 휴식〉(극단 몸풀)	문래예술공장 박스시어터	4/6~4/10	02-2676-4300

성북예술창작센터				
전시	1기 입주단체 NNR 전시_〈정선주〉	갤러리_맺음	4/9~4/19	02-943-9300
	1기 입주단체 NNR 전시_〈엄태신〉	갤러리_맺음	4/23~5/20	02-943-9300
프로그램	성북, 신나는 놀토체험	각 스튜디오	3/26~6/11(2/4째주 토)	02-943-9300
	씨알드림_〈창의력 디자인 코스〉	스튜디오#7	4/9~5/21	02-943-9300
	정여주미술치료 〈성인대상미술치료〉	스튜디오#4	4/4~4/25(매주 월)	02-943-9300
	똑딱똑딱 하늘공방워크숍	옥상 하늘공방	4/4~4/25(매주 월)	02-943-9300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프로그램	공연_모이세 '그림자야 놀자'	창작놀이터 '발'	4/1, 4/2 14:00	02-871-7400
	공연_금설 '이불꽃'	창작놀이터 '발'	4/15, 4/16 14:00	02-871-7400
	공연_ '나는 나는 린드버그'	창작놀이터 '발'	4/22, 4/23 14:00	02-871-7400
	공연_ '아시아 동화여행'	창작놀이터 '발'	4/29, 4/30 14:00	02-871-7400
	시각_!SEE	창작놀이터 '발' '쌈'	3/21 ~5/15	02-871-7400

흥은예술창작센터				
프로그램	एको와 노닥노닥	교육연습실2	3/26~4.23(매주 토 11:00)	02-304-9100
	송노인 풍당덕	무용연습실	3/27~4/17(매주 일)	02-304-9100
개관식	흥은예술창작센터 개관식	흥은예술창작센터	4/27	02-304-9100
공연	흥은예술창작센터 개관 기념 공연	흥은예술창작센터	4/27	02-304-9100

장애훈민미술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	공공미술프로젝트 〈Do ~ Do ~ Do ~!〉 장애훈민미술창작스튜디오		3/21~4/15	02-423-6674

책 읽는 서울				
프로그램	책 읽는 서울 '책, 음악과 만나다'	서울연극센터	4/5 오후 7시30분	02-3290-7146
	책 읽는 서울 '책, 세상과 만나다'	서울연극센터	4/12 오후 7시30분	02-3290-7146
	책 읽는 서울 '책, 영화와 만나다'	서울연극센터	4/19 오후 7시30분	02-3290-7146



S F A C N e w s

4 월 의 재 단 소 식

04



〈삼과 삶〉

서교예술실험센터

4월 8일부터 〈삼과 삶〉 전시

서울시창작공간 서교예술실험센터는 4월 8일부터 4월 17일까지 총 12일간 1층 아카이브 공간 및 전시장에서 김희라 작가의 전시 〈삼과 삶〉전을 개최한다.

김희라 작가는 인삼을 소재로 작업을 해오고 있으며, 사람 형상과 비슷한 인삼의 형태에서 본인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발견하고자 한다. 금산 인삼시장에서 인삼을 촬영한 후 종이에 스케치하고 다시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설치방법, 기법 등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고자 한다.

〈삼과 삶〉 전시

전시기간 4.8(금)~4.17(일) 오전 11시~오후 8시

전시장소 서교예술실험센터 1층 전시장

전시문의 02-333-0246



학교 방문 예술재능 기부 프로그램 <아티스트 인 스쿨>_작سن플록되기 장면



아트마켓 <봄봄> in 도시락(樂)

금천예술공장 입주예술가, 학교에 가다!

학교 방문 예술재능 기부 프로그램 <아티스트 인 스쿨>

서울시창작공간 금천예술공장의 학교 방문 예술재능 기부 프로젝트 <아티스트 인 스쿨>이 3월 31일부터 4월 7일까지 3주 동안 매주 목요일 화하여대 병설 미디어고등학교 교실에서 진행된다.

'패턴의 집'이란 이름이 붙은 이번 프로그램은 금천예술공장의 해외 입주 예술가이자 네덜란드의 현대예술가인 에리카 블릭만(Erika Blikman)과 마이마리 춘 다익스마(Mai Marie Choon Dijkstra)가 참여, 집에 대한 경험과 기억에 대해 워크숍 형식으로 진행한다.

한편 금천예술공장은 입주 예술가 프레젠테이션 및 스튜디오를 학생들에게 부분적으로 개방하는 <예술가의 방> 프로그램을 새롭게 선보인다. 직업으로서의 예술가의 삶 체험 및 창작활동 과정을 학생들이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사전접수예약으로 진행되며 학교별 접수로 가능하다.

프로그램	일정	비고
<아티스트 인 스쿨>	금천예술공장 국내외 입주예술가들이 직접 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진행. 1주 1회(총4회)로 금천구청 교육지원과와 협업하여 진행된다.	무료
<예술가의 방>	금천예술공장 입주예술가의 작품 프레젠테이션 및 스튜디오 관람, 시설 투어로 이루어지며, 중·고등학생의 학교별 사전 접수로 진행된다.	
접수안내	전시기간 4월 2/4째 주 수요일(예정)	
	전시장소 금천예술공장(해당 작가 1인 스튜디오 오픈 및 프레젠테이션)	
	소요시간 약 1~2시간	
	가능인원 30명 내외(1개반)	
	전사문의 02-807-4135	
	참조 www.seoulartspace.or.kr/G02_kumchun/main.asp	

(※ 신청서 홈페이지 공지)

신당창작아케이드 4월 2일 식목일기념 이벤트 <봄이 온 데이~>

시민들이 함께 꾸미는 베란다 정원

신당창작아케이드 전사실을 베란다 정원으로 꾸며보는 체험공방 봄 이벤트 시장 속 아이디어 공간인 신당창작아케이드에서는 4월 2일 식목일을 기념하여 봄맞이 이벤트 <봄이 온 데이~>를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매주 토요일 <나도 예술가>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유리, 도자, 섬유, 일러스트 등의 체험공방 이벤트를 통해 시민들이 만든 결과물을 활용, 신당창작아케이드 전사실을 베란다 정원으로 꾸미는 봄 이벤트이다.

유리 공방에서는 예술가와 인근 지역 어린이들이 함께 그리는 '베란다 윈도우 페인팅', 유리 액자에 윈도우 페인팅 기법으로 그려보는 '나만의 식물 만들기'가 진행된다. 도자 공방에서는 예술가와 함께 도자 초벌 그릇에 그림을 그려 나만의 화분을 만드는 작업과 미니 화분 그릇을 만들어보는 도자 물레 체험이 진행된다. 섬유 공방에서는 재활용 천으로 다용도 매트를 만들어 발판 혹은 화분 받침으로 전시할 예정이다.

일시 4월 2일 (토) 오후 1시~5시

장소 신당창작아케이드 전사실, 이벤트홀, 아트마켓 도시락, 공동작업실, 7호, 10호

분야	작가	시간	대상·인원	내용
유리1	유정아	13:30~14:30	지역어린이 7명	베란다 윈도우 페인팅 in 전사실
유리2		14:00~14:50, 15:00~15:50	전체·시간대별 각 10명	유리 액자에 윈도우 페인팅 기법으로 나만의 식물 그리기
도자1	이진희	14:00~14:50	전체·시간대별 각 10명	종이봉투 모양의 도자 칠판용 페인트로 색칠하여 드로잉, 다육 선인장 심기
도자2	임나영	14:00~16:00	전체 30명	도자 물레, 화창토로 만드는 미니 화분
섬유	추영애	14:00~15:30	성인 10명	펠트와 재활용 천으로 만드는 매트
일러스트	이은원	14:00~14:50, 15:00~15:50	초등학생 이상 시간대별 각 8명	재활용 유리병에 그린 일러스트 화병 만들기



극단 몸꿀의 신작 <허기진 휴식>



연희문학창작촌 연희목요낭독극장 <봄마중, 동시마중> 정호승 시인

아트마켓

<봄봄> in 도시락(樂)

4월 2일 신당창작아케이드 봄맞이 이벤트 <봄이 온 데이> 행사의 일부로 아트마켓 도시락에서는 <초록 새싹 이야기> 체험과 연계하여 시민이 함께 참여한 미니 기획전시 <새싹이와 찰칵전>, 식목일 특별음료 '아이스 녹차라떼'를 제공하는 <신당 에코 바>, 그리고 신당창작아케이드 2기 입주예술가가 기증한 아트상품으로 진행하는 <그린 옥션>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1 기획전시 <새싹이와 찰칵전> 신당창작아케이드 전시실의 한 코너에서 '초록 새싹 이야기'에 참여한 시민들이 새싹을 키우는 과정과 재배 후기를 촬영한 사진을 출력, 아트상품 개발 예술가가 개인 작품과 사진을 활용하여 개최하는 전시.

2 신당 에코 바 음료 이벤트 '텀블러, 머그컵을 가져오면 음료 한 잔이 공짜' 자유기부제로 운영하는 '신당 아트 바'에서는 종이컵 줄이기 캠페인으로 머그컵이나 텀블러를 가지고 오는 시민들에게 식목일 특별 음료인 '아이스 녹차라떼' 한 잔을 무료로 제공한다.

3 '그린 옥션' 진행 입주예술가 경매로 내놓은 작품의 입찰금액을 전액 기부하는 행사로, 행사 당일 아트마켓 도시락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예술작품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011 신당창작아케이드 입주예술가 창작지원 프로그램

<2011 공예 + 디자인 운동> 세미나

서울시창작공간 신당창작아케이드의 2011년 입주예술가 창작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기 입주예술가 박은선이 기획한 <2011 공예+디자인 운동> 세미나가 4월 6일부터 6월 1일까지 모두 9회에 걸쳐 진행된다.

<2011 공예+디자인 운동> 세미나는 공예/디자인과 사회의 관계 및 진정한 공예운동에 대한 논의와 토론을 위한 시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또한 5월 20일부터는 참가자가 각자 생각하는 디자인 공예 운동을 구상하고 함께 실천하여 6월 24일부터 2주간 신당 창작아케이드와 중앙시장에서 다양한 방법의 전시도 진행할 예정이다.

접수안내

전시기간	4월 6일~ 6월 1일 총 9회
전시시간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전시장소	신당창작아케이드 공방 10호
참가비	3만원(총 9회)
참가자격	공예, 디자인 운동, 공공미술에 관심 있는 디자이너, 작가, 공예가
문의	리슨투데이 디렉터 박은선 (parkeunseon@gmail.com / 010-4297-8652)

문래예술공장 박스씨어터 4월 대관공연

극단 몸꿀의 신작 <허기진 휴식>

서울시창작공간 문래예술공장의 4월 대관공연으로 극단 몸꿀의 <허기진 휴식>이 4월 6일(수)부터 4월 10일(일)까지 5일간 박스씨어터에서 공연된다. <허기진 휴식>은 욕망과 상처가 반복되는 작은 방 안에서 이루어지는 두 남녀의 애처로운 자살 시도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한 작품으로, 몸이 떨치는 솔직하고도 열정적인 공연예술을 시도한다. 또 영상 매체와 몸의 언어가 만나 소통하는 극적 미학과 더불어 박스씨어터의 가변형 무대를 적극 활용하여 새로운 시각적 즐거움도 안겨줄 예정이다.

관람시간	주중 오후 8시, 주말 오후 3시 / 7시
관람료	2만원
문의	문래예술공장 02-2676-4300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저녁, 연희문학창작촌 연희목요낭독극장으로

<봄마중, 동시마중>

2010년 2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열렸던 연희문학창작촌의 <연희목요낭독극장>이 겨울 동안 재정비를 하고 따뜻한 봄 햇살과 함께 돌아와 2011년 첫 낭독극장 무대인 <눈부신 시어>의 막을 올렸다. 3월 31일(목) 연희문학창작촌 야외무대 '열림'에서 진행된 첫 무대의 주인공은 정호승 시인의 신작 시집 <밥값>과 곽효환 시인의 시집 <지도에 없는 집>.



성북예술창작센터 1기 입주단체 공공미술그룹 NNR 5명의 작가 개인전 릴레이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공연영역 프로그램

한편 오는 4월 28일(목) 오후 7시 30분에는 4월 연희목요낭독극장 <봄마중, 동시마중>이 열린다. 5월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동시전문지 <동시마중>의 편집위원과 아동문학가들이 직접 꾸미는 이번 무대는 아동문학가와 어린이들의 시 낭송과 동화로 들려주는 그림자극, 애니메이션 <시리둥둥 거미동동> 상영과 더불어 '고승하와 아름다운합창단', '백창우와 굴렁쇠 아이들'의 동요 무대 등 어린이들과 동시를 좋아하는 독자를 위한 무대로 꾸며진다.

성북예술창작센터 1기 입주단체 디자인교육연구소 '씨알드림'

디자이너와 함께하는 창의력 디자인 코스 개강!

서울시창작공간 성북예술창작센터와 디자인교육연구소 '씨알드림'이 함께하는 <창의력 디자인 코스>가 4월 9일 개강한다. 5월 2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는 <창의력 디자인 코스>는 성북예술창작센터 온라인 카페(<http://cafe.naver.com/sbartspace>)를 통해 사전 접수한 11~14세의 초등학생 및 중학생 20명이 참여한다.

전문 가구디자이너와 함께 3명이 한 팀이 되어 단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가구 디자인 코스로 진행되며, 여기에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이끌어내는 다양한 발상수업과 이야기를 담아 낚은 가구를 의미 있는 가구로 재탄생시키는 작업이 함께한다. 완성된 가구는 디자이너의 작품과 함께 6월 중 성북예술창작센터 갤러리 맷음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문의 성북예술창작센터 02-943-9300

성북예술창작센터 1기 입주단체 공공미술그룹 NNR

5명의 작가 개인전 릴레이

서울시창작공간 성북예술창작센터 1기 입주예술단체인 공공미술그룹 NNR 소속의 5명 작가들은 지난 2월 19일 강효정의 개인전 <어프로프리에이션(Appropriation)>을 시작으로 5월 10일까지 유안나, 정선욱, 정선주, 엄태신의 개인전을 성북예술창작센터 갤러리 맷음에서 차례로 연다. 이번 개인전 릴레이는 대도시 안에서 활동하는 동시대 작가들이 가지게 되는

고민과 자기성찰을 적극적인 소통의 방식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NNR 전시 일정	
강효정	2/19~2/27
유안나	3/5~3/17
정선욱	3/26~4/3
정선주	4/9~4/19
엄태신	4/23~5/10
문의	성북예술창작센터 02-943-9300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새봄 맞아 다채로운 프로그램 준비

'관악명랑방석극장'과 함께 생활소품 디자인 프로그램도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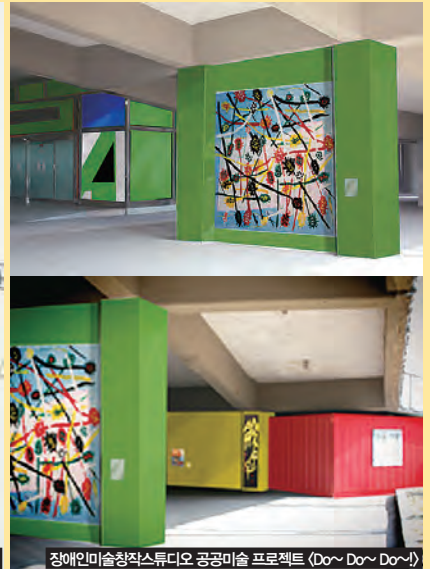
어린이 창의력 신장을 목표로 지난해 12월에 개관한 서울시창작공간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에서 새봄을 맞아 다양한 공연물과 시각영역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개관과 더불어 학부모와 어린이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은 바 있는 공연영역 프로그램은 '관악명랑방석극장'이란 이름으로 운영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참가방법은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온라인 카페(<http://cafe.naver.com/gakidsartspace>)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3월 21일부터 운영되는 시각프로그램은 디자인의 기초와 제작, 전시까지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어린이와 전문디자이너가 직접 교류하며 생활소품을 디자인·제작해보는 과정이다.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 및 참가자 접수 안내는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온라인 카페를 참고하면 된다.

단체명	공연명	일정	공연시간
모이세	그림자야 놀자~	4/1 오후 2시 · 4시, 4/2 오후 2시	60분
금설	이불꽃	4/15 오후 2시 · 4시, 4/16 오후 2시	50분
창작그룹오기	나는 나는 린드버그	4/22 오후 2시 · 4시, 4/23 오후 2시	60분
'놀자' 프로젝트	아시아 동화여행	4/29 오후 2시 · 4시, 4/30 오후 2시	60분
문의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02-871-7400/7417		



남산예술센터 2011 시즌 프로그램 <살>



장애인미술창작스튜디오 공공미술 프로젝트 <Do~ Do~ Do~!>

홍은예술창작센터 4월 개관

생활소품 제작과 연극 워크숍 등 2종 시범 프로그램

오는 4월 27일 개관을 앞둔 서울시창작공간 홍은예술창작센터는 시범프로그램으로 생활전 <एको와 노닥노닥>, 공연 워크숍 <쑹노인 풍당던>을 3월과 4월에 걸쳐 진행한다.

먼저 <एको와 노닥노닥>은 못 입는 티셔츠를 활용하여 에코센스 컵홀더, 덧소매, 티슈 케이스 등 다양한 생활소품을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으로, 3월 26일부터 4월 23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진행된다.

<쑹노인 풍당던>은 연극놀이와 인형제작을 주제로 국내 및 호주의 예술가와 지역 주민들이 함께 진행하는 워크숍이다. 워크숍은 3월 27일부터 4월 17일까지 매주 일요일 홍은예술창작센터에서 진행되며 참가 문의 및 접수는 홍은예술창작센터 온라인 카페(<http://cafe.naver.com/hongleun> 2011)를 통해 가능하다.

문의 서울시창작공간 홍은예술창작센터 02-304-0234
www.seoulartspace.or.kr/hongleun

장애인미술창작스튜디오, 입주예술가 참여한 공공미술 프로젝트

공공미술 프로젝트 <Do~ Do~ Do~!>로 산뜻한 봄 단장

서울시창작공간 장애인미술창작스튜디오의 4기 입주작가 14인은 3월 15일부터 공공미술 프로젝트 <Do~ Do~ Do~!>를 실시했다. 4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장애인미술창작스튜디오 창작실 입구 및 주차장 외부공간에 대한 공공미술로, 개관 이후 처음으로 입주 예술가가 직접 참여해 진행하는 것에 의미가 크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Do~ Do~ Do~!>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실시되어 장애인 예술가의 예술적 역량을 널리 알리고 장애인미술창작스

튜디오에 대한 시민들의 친근감과 접근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남산예술센터 2011 시즌 프로그램 <살>

비대한 결핍, 허기진 욕망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까?”

동시대 창작 현대연극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향하는 남산예술센터가 2011 시즌 개막작으로 이해성 작, 안경모 연출의 <살>을 새봄 무대에 선보인다. 전작 <고래>에서 인간 본연의 생존 본능과 인간다움이 무엇인가에 대한 화두를 던지며 탁월한 심리 묘사로 주목받은 배우이자 재능 있는 작가인 이해성의 신작 <살>은 2010 창작팩토리 연극 대본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심사위원들로부터 희곡의 무대화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는 평을 받았다. <해무>, <길삼봉던> 등의 작품을 통해 성실하고 끈기 있는 힘의 무대를 보여준 안경모 연출은 미니멀리즘의 간결한 무대와 충격적인 영상의 몽타주, 배우들의 신체 움직임의 집단적이고 원형적인 모습을 통해 감각적이고 구체적인 무대를 보여줄 예정이다.

일시 2011.4.1(금)~4.17(일) | 장소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 문의 02-758-2150

<서울연극센터 공연사랑한DAY> 프로그램 안내

공연 쇼케이스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기회!

대학로 공연애호가를 위해 '미리 보고, 싸게 보는' 공연이벤트로 매월 넷째 주 금요일 저녁마다 찾아간다.

일시	매월 넷째 주 금요일 저녁 5시
장소	서울연극센터 1층 작은무대 & 티켓박스
대상	대학로 공연을 사랑하는 누구나



어린이 창의예술교육 지원사업 <2011 어린이 창의 Arts-TREE>

서울시내 300개 초등학교 돌봄교실 문 두드려

초등학교 어린이가 일상에서 쉽고 재미있게 예술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어린이 창의 Arts-TREE>가 4월 중순부터 서울시내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을 찾아간다. 돌봄교실은 맞벌이 부모나 한부모가정, 저소득 가정을 위해 학교가 방과 후에도 아이의 보육과 학습지도 등을 맡아주는 곳이다.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시민의 장기적인 문화예술역량을 증진하고 저소득층 어린이의 문화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초등학교에 TA(Teaching Artist)-교육하는 예술가-를 양성, 파견하여 재단 고유의 창의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전문예술교육가 양성 <TA Arts-TREE> 입문, 심화과정 개강

문화예술 장르간 통합 및 연계를 통한 창의적인 미적체험 교육 과정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팀은 전문예술교육가 양성을 위한 <TA Arts-TREE> 입문, 심화과정을 4월 4일 개강한다. <TA Arts-TREE>는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를 교육가로 성장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문화예술교육의 핵심 인력인 전문예술교육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서울문화재단에서 매년 입문, 심화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입문과정은 예술전공자 또는 예술교육가, 심화과정은 입문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지원서를 접수하며, 서류심사를 통해 각 기수별 40명 내외의 수강생을 최종 선발한다. 특히 올해는, 오전 강좌(입문 13기)를 신설해 강좌선택의 폭을 넓혔으며, 강좌수료 후 인턴TA를 선발하여 재단 교육사업을 통한 활동 기회를 제공한다. <TA Arts-TREE>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www.stac.or.kr)를 참조하면 된다.

2011 책 읽는 서울

'책으로 만나다'

'책으로 만나다'는 각 분야의 전문가가 스토리텔러로서 책과 연계된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냄으로써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는 책을 음악, 영화 및 다양한 예술 장르를 통해 흥미를 키워주고자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두 번째 화요일에는 음악평론가 장일범 씨가 스토리텔러가 되어 책 속 음악 이야기를 풀어내는 '책, 음악과 만나다'가, 세 번째 화요일에는 유정아아나운서와 함께 책 속 이야기를 경계를 넘어 다양하게 탐색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읽어내는 '책, 세상과 만나다'가, 네 번째 화요일에는 영화의 원작이 된 책 이야기를 풀어내는 '책 영화와 만나다'가 영화평론가 이동진 씨의 진행으로 시민과 함께할 것이다.

문의 문화사업팀 02-3290-7146 / www.readingseoul.org

하이서울페스티벌 2011, 시민참가자 및 자원활동가 모집

5월 5일부터 10일까지, 다함께 놀아요

'하이서울페스티벌 2011'이 오는 5월 5일(목)부터 10일(화)까지 여의도 한강공원 및 서울 도심에서 열린다. 작년에 이어 언어·인종·세대의 장벽을 넘어 몸짓으로 소통하는 난버벌 퍼포먼스(Nonverbal Performance)를 주제로 하며, 축제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시민을 사전에 공개모집한다. 난버벌 오픈 콘테스트와 공연참여 프로그램의 참가신청은 3월 10일(목)부터 4월 8일(금)까지 하이서울페스티벌 공식 홈페이지(www.hiseoulfest.org)를 통해 접수하면 되며, 상시체험 프로그램은 별도의 사전예약 없이 축제 현장에서 참여 가능하다. (문의전화: 02-3290-7173)

한편, 넘치는 끼와 열정으로 축제를 이끌어갈 시민 자원활동가 총 400여명도 공개모집한다. 모집분야는 현장 행사진행·외국어 지원·홍보마케팅으로, 3월 16일(수)부터 4월 6일(수)까지 하이서울페스티벌 홈페이지(www.hiseoulfest.org)를 통해 지원하면 된다. 문의 02-3290-7172

서울에서 가장 매력적인 공간을 찾아라!

「문화+서울」과 함께하는 독자사진전 〈Azit in Seoul〉



「문화+서울」에서는 ‘나만 아는 서울의 숨은 공간’이라는 주제로 독자사진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혼자만 알고 있기에 아까운 서울 도심의 색다른 공간을 사진으로 담아주세요. 주제에 부합하는 4~5컷의 사진과 함께 사진 제목과 내용(촬영장소 및 간단한 설명), 찍은 분의 성함과 약력(2~3줄가량의 프로필), 연락처(휴대전화번호 및 거주지 주소)를 보내주시면 선별하여 리더스 앨범(Reader's Album)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서울문화재단 공식 블로그(http://blog.naver.com/i_sfac)에도 게재될 예정이니 관심 있는 독자님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작품주제 나만 아는 서울의 숨은 공간
접수기간 매월 15일까지
출품규격 jpg형식으로 4~5컷 파일 제출(이미지 사이즈 1600×1200픽셀 이상 권장)
접수처 jane0515@sfac.or.kr
기타문의 02-3290-7063(서울문화재단 홍보교류팀 정경미)

독자사진전에 작품이 선정되신
분들께는 본인의 작품이 게재된
해당 호 월간지와 그달의
남산예술센터 공연 티켓(인 2매)을
드립니다.



하이서울페스티벌 2011
HISEOULFESTIVAL

2011 | 05 | 05(목) ▶ 10(화) 여의도한강공원 및 도심광장
All over Seoul, mainly Hangang Parks

www.hiseoulfest.org

주최·주관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문의 다산문화센터

전화번호 120
서울시내 가전 02-120



